

연구보고서 2018-07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 정여진·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 정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신승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 홍성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기간 : 2018년 4월 ~ 10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는 전통과 서구의 문화가 임의적으로 결합되어 복잡하고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는 가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시적인 소비문화와 직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 문화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결혼문화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용 분담에 있어 성별분리적인 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작은 결혼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작은 결혼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작은 결혼은 대중적인 문화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지역은 호텔에서서의 결혼식이 매우 대중화 되어 있는 상황이며, 종일 피로연, 곱부조, 부신랑·부신부, 육지부와는 반대 방향 예단비 등 제주지역 특유의 결혼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신랑·신부 및 혼주를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 및 결혼문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해주신 도민들과 자문을 맡아주신 前제주대학교 김혜숙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선민 박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진혜민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소영 박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박사, 대구여성가족재단 성지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을 맡은 정여진 박사와 공동연구를 맡은 신승배 박사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아 마련된 본 보고서가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제주지역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 은 희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1930년대부터 점차 서구식 결혼을 올리게 됨으로써 전문 상업 예식시설이 등장하였는데(김지순, 1997), 이때부터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결혼이 소비문화와 결합되기 시작함. 최근에는 예식시설 고급화 전략에 따라 ‘예식장’이라는 명칭 대신 대부분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급 호텔에서의 결혼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결혼에 따르는 여러 격식들이 웨딩시장의 필요에 의해 전통과 서구의 문화가 임의적으로 결합된 복잡하고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가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시적인 소비문화와 직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됨
- 이러한 고비용의 문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결혼문화 전반에 잔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 또한 문제로 제기됨. 예컨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재화인 혼수와 예단은 주로 신부 쪽에서 담당하고 재산으로 남게 되는 주택은 주로 신랑측에서 맡고 있음
- 2015년부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관계부처 공동협력 TF’를 운영하면서, 감소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총리 주재 간담회 및 작은 결혼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작은 결혼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작은 결혼’은 대중적인 문화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웨딩홀 인프라 부족 및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결혼 피로연 관행 등과 맞물려 호텔에서의 결혼식이 매우 대중화 되어 있는 상황임. 이는 고비용 식대 지출 뿐만 아니라 주말 시내 교통 혼잡 유발, 대량의 음식 쓰레기 발생, 신랑신부 및 혼주의 피로도 가중 등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 이에 제주지역 결혼 비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곽부조, 부신랑·부신부, 반대방향인 예단비 등 제주지역 특유의 결혼문화에 관한 현대적 의미와 합리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신랑·신부 및 혼주를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 및 결

혼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결혼관련 정책 및 결혼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제주지역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관련 실태 및 인식 조사
 - 결혼비용 및 세대별 부담 비율, 결혼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 이해당사자별(혼주/신랑/신부)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합리적 결혼문화에 관한 인식 및 정책방향
-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나. 연구 방법

-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각 지역별 결혼관련 정책 현황 검토 •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3단계	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당사자 및 혼주 대상 설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결혼한 당사자(N=302) 및 혼주(N=203), 총 505명 • 결혼 당사자 및 혼주, 웨딩산업 관련자 대상 심층 조사 실시(총 10명)
4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
5단계	분석·집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집필

제2장 결혼관련 정책 현황 및 제주지역 결혼문화 고찰

1. 결혼관련 정책 현황

가. 중앙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에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앙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임대주택 직접 공급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임

2) 중앙정부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정책

- 박근혜 정부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정상화 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선정(14.1)하고,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과 더불어 16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작은 결혼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실시함
- 공공시설 예식장은 직영, 부분 위탁, 완전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예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운영 목적을 둠. 17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252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정책

(1) 주거지원 정책

- 중앙정부에서의 주거지원에 더하여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청년임차 보증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2)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 정책

- 몇몇 지자체에서는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예식장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임
- 봉화군, 고령군, 괴산군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일부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결혼장려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에는 결혼 자체 지원 사업보다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조례 제정 및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결혼관련 정책

1) 제주형 작은 결혼식

-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함('16~'18).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의 자연 및 환경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콘텐츠 발굴과 마을 결혼식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공시설 예식장과 연계한 작은 결혼식의 확산이 있음
- 연차별로 '16~'18년도까지 50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2018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추진된 사업은 없음

2)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및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 제주지역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은 2017년 기준 2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혼인지의 경우 대부분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하객 80~90명 정도로만 수용이 가능함
- 남원생활체육관의 경우 2009년에 이어 2017년에 1억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18년 실적은 5월 기준 4건으로 '17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결혼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체육관 시설관리 인원 1명 또는 당일 읍사무소 일직 직원이 행사 지원을 하는 상황임
- 제주시에서는 1984년부터 합동결혼식을 추진해왔으며('16.12월 기준 총 555쌍),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위한 예식 비용을 지원(결혼예식용품 등)하고 있음. 이 외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2. 결혼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 결혼비용 및 분담 정도

-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운영하는 듀오 휴먼라이프 연구소의 '2018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평균 결혼자금은 2억 2,974만원으로 나타났음
- 결혼 총 비용은 2016년에 정점이었다가 치솟 감소하여 2018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2억을 상회하는 비용인 것으로 조사됨
- 전체 결혼비용 중 신랑과 신부의 분담 비율은 2018년의 경우 '5:5'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 중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랑신부 5쌍 중 1쌍은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남
 - 2014년에서 2017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36.4%, 남성은 63.6%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담 비율은 시기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성과 남성의 결혼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사회적 관행이 결혼당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행된다고 볼 수 있음

나.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전통 혼례 풍습과 서구식 혼례 문화, 종교 의식이 뒤섞여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음
 - 혼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찰 없이 웨딩홀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예식은 서양식으로 진행하고, 함, 폐백, 이바지 음식 등은 전통 혼례의 형식을 빌어와 단순히 형식만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질되고 있음
-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중 3명(75.4%)이 우리 사회의 결혼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함

□ 과도한 하객초청 및 축의금 문화

- 우리나라 양가 하객 총 규모는 평균 343명인데 반해, 미국·일본·영국·대만·싱가포르 등의 하객은 대체로 50~100명으로 우리의 15~30% 규모에 불과함
- 한국 갤럽의 2013년 결혼식 축의금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

견이 13%, '약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5%로 전체의 68%가 결혼식 축의금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문희, 2014)

□ 결혼식 장소

- 마을 공동체에서 치러지던 전통혼례는 개화기 이후 서구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교시설, 강당 등과 같은 집회 장소의 형태로 결혼식 장소가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일반 예식장을 비롯하여 종교시설, 호텔, 야외 결혼식장 등으로 점차 장소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음
- 일반 예식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한때는 호화사치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호텔예식 연회는 호텔업계의 마케팅과 사회적인 인식 확대로 인해 현재 웨딩산업에서 점점 확대되어가는 추세임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대응에 따른 차별화되고 다양한 웨딩 장소의 등장으로 현재는 기존 일반 예식장과 호텔 웨딩 외에도 리조트 웨딩, 뷔페식당 웨딩, 야외 웨딩, 하우스 웨딩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남녀 불평등한 혼례의식 존속

-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결혼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음. 이는 혼수와 예단은 주로 신부측에서 준비하고 주택은 신랑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에서 그러함

□ 작은 결혼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 인식 및 실태'(이선민 외, 2015)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에 대해 48.1%가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9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작은 결혼식을 위해서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줄이거나 생략하고, 본식을 비롯해 전 과정에서 결혼 자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절차의 조정이나 간략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제주지역 결혼문화 고찰

- 제주는 섬이라는 지형학적 특성으로 인해 결혼의례에 있어 육지부와는 달리 절차를 중시하기보다는 다소 간략히 치러지는 경향이 있어, 주자가례 중 대례와 폐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제주지역 결혼문화는 해방에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지역 전통인 일뤼잔치의 풍습에 따라 혼인이 7일간 열리는 집안잔치로 이루어져 오다가, 한국전쟁 이후 제주시에 굴림 회관, 동신 예식장 등이 생겨나면서부터 집안의 잔치문화에서 점점 상업화된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함. 서구식 혼례문화가 정착된 현재에도 전통 혼례문화의 영향은 일정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막펜지와 이버지

- 육지부에서는 신랑측에서 신랑의 사주를 신부측에 보내면 신부측에서 택일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반해, 제주는 신랑집에서 택일한 결과를 신부집으로 전달하는데 이를 '막펜지 보낸다'라고 함. 막펜지를 받으면 신부집에서는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이는 현대의 약혼에 해당하는 것임

□ 흥세함과 우시

- 제주 지역에서는 납폐를 따로 하지 않고 초행과 함께 함. 혼례 전날 밤 혼서지(예장)를 쓰고 이를 간단한 예물과 함께 상자에 넣고 격식을 갖추어 붉은 보로 썼는데 이를 흥세함이라고 하며, 혼서함에서 비롯된 말로 해석됨

□ 혼례

- 제주 지역에서는 초행과 신행이 한 날에 이루어짐. 신랑 일행이 흥세함으로 가지고 신부집에 도착하여 우시가 흥세함을 들고 신부집에 들어가면, 신부의 근친이 이를 받아 문전제를 위한 제상에 올리고 분향한 다음 예장을 검토함
 - 예장 확인을 마치고 나면 신랑이 말에 내려 방으로 들어가고 신랑과 일행은 작은 상을 받은 다음, 식사를 마치면 신부집 친지들과 상객이 인사를 나누는데 이를

‘사돈 열맹’ 또는 ‘사돈 대위’라고 하였음

- 육지부에서는 신부댁 전통혼례의 중심은 유교문화에 따른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대례 절차에 있으나, 제주 지역은 대례를 거의 행하지 않았고 문전제와 신랑이상을 받는 것으로 신부집에서의 공식적인 의례는 사실상 종결됨

□ 재행 및 현구고례

-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부친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는 재행은 혼례 다음날 이루어졌으며, 이때 돼지고기, 쌀, 술 등을 함께 가지고 가서 양가의 상견례를 벌임. 이때 신랑신부가 하룻밤을 자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랑 다루기인 동상례는 이때 이루어지기도 함
- 제주지역에서는 폐백이라고 일컫는 현구고례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신행을 마치고 신랑집에서 여자 어른들이 마련해 준 옷을 받아보고 일일이 인사를 드리며 사례를 하는 것이 전부였음

□ 공동체 문화와 잔치

- 제주 지역의 혼례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 물이 귀한 지역적 특성 상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물을 길어다 주었고, 땀감이나 돼지 잡는 것 등 음식 준비도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임
- 제주의 혼례는 7일 정도가 소요되어 일명 ‘일뿔 잔치’라고 함. 1일에는 두부를 만들고 돼지를 잡아 삶고 마당에 장막을 치는 등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였음. 2일에는 손님 맞이를 하고 저녁에는 ‘가문 잔치’를 하였으며, 3일에는 혼례를 치루었음. 4일에는 신부집을 다시 찾아갔고, 5일에는 신부측에서 사돈댁을 찾음. 6일에는 그동안 수고한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사례하였으며, 7일에는 정리는 하고 마무리를 함
- 제주 지역의 결혼잔치는 육지부에 비해 꽤 길기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 고양과 유대감을 질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결혼 전날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모이는 가문 잔치와 결혼 당일에 종일 피로연을 포함한 이틀 혹은 하루 잔치의 형태로 잔치풍습이 변화함

□ ‘딸 판다’ 예물과 혼수

- 제주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신부가 시집오면서 특별히 예단을 하는 일은 없었고, 신랑측에서도 신부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으나, 미혼의 여성들이 일본공장 등지에서 일을 하는 등 현금 수입이 있고부터는 신부측의 혼수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보임. 최근에는 결혼 전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현금을 예단 명목으로 주는 추세임

□ 곽부조와 부신랑·부신부 관행

- 제주 지역의 결혼문화는 자식이 결혼하면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분가를 하여 부모를 모시지 않고 재산 상속은 균분상속의 풍습을 따름. 이러한 철저한 분가제도는 자녀들간에 그리고 부부간에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처가 뿐만 아니라 외가와 처가와도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함. 분가제도와 균분상속제도는 부모자식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어느 정도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문화는 여자들끼리의 친목 모임이 따로 있고 경조사에서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부조를 하는 곽부조 문화로 이어졌음(윤용택, 2015)
- 부신랑과 부신부는 결혼식 당일에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주로 친구들이 맡아서 하게 됨. 제주에서는 세대별로 혼주와 신랑·신부가 따로 본인의 축의금을 직접 받기 때문에, 부신랑·부신부는 신랑·신부를 대신해서 축의금을 챙기는 중요한 역할을 함

제3장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 개요

- 최근 3년 이내 결혼한 당사자 및 혼주 총 505명을 대상으로 임의선정식 무작위 조사를 실시함
- 신랑 150명, 신부 152명, 신랑측 혼주 100명, 신부측 혼주 103명

- 자료수집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면접조사
- 조사 기간 : 2018. 5.29~6.29

나. 조사 내용

- 설문지 영역별 문항 구성
 - 설문지 문항별 구성은 '결혼식 관련 질문(장소, 장소 선택 기준 등)', '결혼 비용(결혼 비용 지출 등)', '결혼문화와 관련된 인식', '결혼문화 개선(이상적 결혼비용, 선호하는 결혼식, 작은 결혼식 인지도 및 활성화 정책 등)'으로 총 4가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짐

2.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조사결과 요약

1) 결혼예식 및 결혼비용 부담

- 결혼식의 88.9%는 호텔이나 예식장·웨딩홀에서 이루어지며, 경제성이나 편리성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장소 선택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결혼피로연은 77.8%가 결혼식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3~4만원 정도의 뷔페식이 주를 이룸
- 결혼비용의 주부담자는 신혼주택은 신랑측(66.5%), 혼수는 신부측(68.1%), 나머지는 공동지출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룸. 낮은 비율이지만 신혼여행(1.8%), 예단(3.0%), 예물(2.4%)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결혼관련 항목 중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인 항목은 피로연(99.8%), 하객초청(98.6%), 신혼여행(98.2%), 축의금 받기(부모 93.5%, 자녀 93.3%)이며, 미이행률이 더 높은 항목은 약혼식(92.7%), 폐백(78.8%), 신랑상/신부상(78.0%)으로 나타남
- 결혼식에 평균 474명의 하객이 참석하였고, 축의금 규모는 부모가 받은 축의금 3,020만원, 자녀가 받은 축의금 1,297만원이며, 실제 지출한 결혼비용 총금액은 12,206만원(부모 8,023만원, 자녀 4,403만원)으로 조사됨
- 결혼관련 비용부담 인식은 주요 항목 중 신혼주택 마련과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비용 부담인식은 주요 항목 모두에서 신랑의 부담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자산별 주택마련, 신혼여행, 예단, 예물비용 부담은 가구자산 5억원 미만에서 더 크게 나타남

2) 축의금 및 결혼문화 관련 인식

○ 결혼축의금 문화

- 평균 1회 축의금 비용은 6.9만원이며, 최근 1년간 축의금 지출 횟수는 22.4회, 겹부조는 횟수 8.9회로 나타남
- 하객으로서의 결혼축의금과 겹부조에 대한 부담인식은 결혼축의금은 69.8%, 겹부조는 80.5%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축의금과 겹부조 모두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 중 겹부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겹부조 풍습 유지에 대한 인식은 불필요하다(71.3%)는 인식이 더 높았고, 가장 큰 불필요 이유는 큰 비용부담(61.7%)으로 나타났고, 유지가 필요(28.7%)한 이유로는 제주의 수놓음 풍습이기 때문(60.7%)이 가장 높았음

○ 결혼식 항목 중 피로연, 메이크업, 축의금은 필요인식이 80% 이상으로 높고 결혼식 이벤트와 예단의 필요인식은 40% 이하로 낮음

○ 결혼문화 관련 인식은 이중적 태도를 보임

- 신랑 측의 신혼집 마련 부담 의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60.8%),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90.0%) 인식이 더 높음. 남들만큼의 예단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65.7%)는 인식도 높음. 하지만 적은 하객 규모는 초라해 보일 것(41.1%)을 염려하고, 능력있는 부모의 도움(64.3%)을 기대하는 비율 역시 높음

3) 결혼문화의 문제점

- 결혼문화의 호화·사치 풍조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만큼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48.7%)로 나타났으며,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들만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30.5%)으로 나타남
- 결혼문화와 관련하여 하루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67.0%), 답례품 지급(60.4%), 겹부조 풍습(79.2%), 피로연 등에서의 잘못된 성문화(85.3%)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호텔에서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46.2%)에 대한 문제인식은 다소 낮음

4) 합리적인 결혼문화 방안

- 합리적인 결혼비용은 1천만원~2천만원 미만(37.6%)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선호하는 결혼방식은 실속있는 결혼(94.9%), 100인 미만 소규모 결혼식(65.3%), 당사자 주도 진행(84.8%), 2~3시간 이내의 피로연시간(68.1%)을 선호함
-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순위 요소는 예단 및 예물 최소화(47.9%), 2순위는 하객에게 하루 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의 개선(25.3%)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음
 - 초라한 느낌(39.7%),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35.0%), 이용불편(29.7%), 이용 및 추천의사 없음(26.4%)으로 나타남
- 작은 결혼식 관련 정책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비율(77.2%)이 높음
 - 작은 결혼식에서는 결혼당사자의 의견(37.8%)과 결혼의 의미(24.8%)를 담는 것이 저비용(23.6%)과 같은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남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26.1%),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대상 주택대출금리 인하(17.8%), 작은 결혼식 공간 확대(13.9%)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정책적 시사점

1) 결혼문화 가치충돌과 높은 변화 가능성

- 제주지역의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가치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부의 시선과 체면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함
- 결혼문화와 관련된 기존 가치의 변화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
 - 주요 결혼관련 요소 중 종일 피로연 문화, 답례품 지급, 껌부조 풍습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종일 피로연 문화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고, 껌부조 풍습 유지의 불필요성 인식 역시 높음
- 결혼 방식과 관련하여 실속있는 결혼, 100인 미만 소규모 결혼, 당사자 주도 진행,

2~3시간 이내의 피로연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음

- 조사결과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들은 제주사회가 기존 가치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결혼문화 개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결혼문화 개선의 장애물과 개선 방향

□ 결혼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의 제약

- 과시적 체면문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
 - 높은 결혼비용 부담과 결혼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은 자리잡고 있지만 현재 자리잡고 있는 관습적 결혼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함
 - 종일 피로연과 접부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개선요구는 드러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결혼문화 이행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회적으로 결혼문화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좀 더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함
- 관습적 결혼문화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이해 관점의 변화
 - 결혼비용 부담인식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신랑의 부담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결혼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결혼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높은 결혼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자녀의 문제가 아닌 가족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

□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

- 공공기관 제공 무료(실비) 개방 예식장의 개선방향
 - 결혼예식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이용은 3.6%에 그쳤으며,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실비)개방 예식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장소를 선택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경제성이나 편리성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무료(실비) 개방 예식장에 대해 초라한 느낌을 갖거나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음
 - 저렴한 비용의 장소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예비부부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먼저 제주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장소 발굴이 필요함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작은 결혼식 정책에 관해 들어본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 정책 홍보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당사자 의견 중심의 결혼식과 결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결혼식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에 걸맞은 다양한 가변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제4장 심층면접 조사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 제주지역 결혼문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결혼 당사자(5명), 혼주(3명) 및 웨딩산업 관련자(2명)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주요 면접 내용
 - 혼인당사자 및 혼주 : 결혼의 전반적인 준비 과정, 가문잔치 및 당일잔치 등 제주지역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결혼비용 실태 및 인식,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성 및 세대 간 갈등 사례, 건전한 혼례 문화 정착 방안 등
 - 웨딩산업 관련자 : 최근 결혼 트렌드의 변화, 타지역과 제주의 결혼 현황 비교, 결혼 문화의 문제점, 건전한 혼례 문화 정착 방안 등

2. 심층면접 결과 및 시사점

가.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호텔에서의 연회식 결혼이 가장 빈번한데, 그 이유는 하객의 편의와 더불어 호텔 서비스 및 뷔페에 대한 선호도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하여 직업이나 경제적 계층에 따라 어느 정도 호텔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호텔에서의 결혼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아, 웨딩 장소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친구 피로연, 총각파티, 신랑상·신부상, 폐백 등은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최대한 간소화 하거나 없어지는 상황임. 이는 의미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행이라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혼인 당사자 세대의 실리적인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데서는 돈을 아끼더라도 신혼여행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예단비가 육지부와 달리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먼저 가고, 신부측은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다시 신랑측에 보내는데 이에 대해서 신랑신부 보다는 부모님 세대가 더 고수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혼수와 주택마련 비용에서도 성에 따른 고정된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혼인 당사자인 신랑신부 세대에서는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는 부담을 하려고 하는 변화도 엿보임
- 제주지역의 경우 결혼 전후에 신랑신부 및 혼주들이 가까운 분들에게 따로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 따로따로 대접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잔치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이러한 이유로 가문잔치, 육지결혼 피로연, 당일잔치 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결혼식 전날 하는 가문잔치는 대체로 결혼당사자보다는 부모님들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축의금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결혼식 당일에 하루 종일 열리는 당일잔치는 결혼당사자들과 부모님 세대 모두 변화가 필요한 문화로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본인이 먼저 이행하지 않기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제주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며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축의금 문화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결혼식은 지금까지 지출한 축의금을 회수하는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님의 그동안 지출한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결혼식 하객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이러한 축의금 문화가 제주사회에서 당일잔치의 시간을 단축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겹부조 문화는 혼례보다는 장례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긴 하나,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는 겹부조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권이 육지부에 비해 독립적인 제주사회의 특성상, 남편이나 아버지가 우리집을 대표로 상대측 집에 축의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 부조가 발달한 것이 겹부조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됨. 이

는 기부장적 문화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껍부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화적 자정작용으로 차츰 없어질 것으로 예상함

나.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갈등 및 합리적인 결혼문화

- 결혼비용 부담에서 성고정화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랑측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신랑의 스트레스가 신부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러나 결혼당사자 세대 스스로 기존의 성고정화된 역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제주지역은 관공서를 활용한 공공예식장이 드문데 인식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관공서 중심의 장소 발굴보다는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식 장소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만한 협력업체의 발굴·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5장 합리적 결혼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 결과 요약

- 제주지역 결혼비용을 각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신혼주택 14,189만원, 결혼식(피로연 포함) 1,949만원, 혼수(살림살이) 1,379만원, 예단 1,018만원, 신혼여행 568.7만원, 예물 597만원으로 나타남. 이를 합하면 총 비용은 19,701만원으로 나타남
- 결혼비용에 대해 세대별 부담을 조사한 결과는 총 금액 평균 12,206만원 중 부모 8,023만원, 자녀 4,403만원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2배 가량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제주지역에서는 호텔에서의 결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46.7%),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다소 낮은 것(46.2%)으로 나타남. 당일잔치인 결혼 피로연은 결혼 예식별 필요도에서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이행률도 98.8%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피로연은 결혼예식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식사는 3~4만원 정도의 뷔페식이 주를 이룸

- 결혼비용 중 신혼주택의 주부담자는 신랑측(66.5%), 혼수는 신부측(68.1%)으로 조사되었고, 결혼관련 비용부담 인식은 신혼주택 마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항목 모두에서 신랑의 부담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성별에 따른 결혼비용 부담은 전국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결혼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사회적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임

- 결혼관련 항목 중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인 항목은 피로연(99.8%), 하객초청(98.6%), 신혼여행(98.2%), 축의금 받기(부모 93.5%, 자녀 93.3%)이며, 미이행률이 더 높은 항목은 약혼식(92.7%), 폐백(78.8%), 신랑상/신부상(78.0%)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경우 피로연의 이행은 전국보다 월등히 높으나, 육지부에서는 일반적인 폐백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비용 부담은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 예식에서는 의미가 없거나 지역문화와 맞지 않는 경우 취소선택이 일어남을 알 수 있음

- 결혼식 평균 하객수는 474명으로 조사되어 전국 조사 결과인 264명(김두환, 2013)에 비해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축의금 규모는 부모가 받은 축의금 3,020만원, 자녀가 받은 축의금 1,297만원으로 총 4,317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전국 조사 결과인 1,766만원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객으로서 느끼는 결혼축의금에 대한 부담은 결혼축의금은 69.8%, 곽부조는 80.5%로 나타나 제주 도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축의금은 필요하다고 인식(84.6%)하는 반면, 곽부조 풍습은 더 이상 유지가 불필요하다(71.3%)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비용부담(61.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결혼문화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랑 측의 신혼집 마련 부담 의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60.8%),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90.0%)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이행은 그렇지 않아 이중적임을 알 수 있음. 또한 능력있는 부모의 도움(64.3%)을 기대하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 결혼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식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결혼문화의 호화·사치 풍조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만큼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48.7%)로 나타났으며,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들만큼 성대하게 치러야 한

다는 생각(30.5%)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결혼문화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하루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67.0%), 답례품 지급(60.4%), 겹부조 풍습(79.2%) 등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속있고(94.9%), 당사자가 주도하며(84.8%), 피로연은 2~3시간 이내인(68.1%), 100인 미만 소규모 결혼식(65.3%)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책으로는 예단 및 예물 최소화(47.9%), 하객에게 하루 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의 개선(25.3%) 순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며, 작은 결혼식 관련 정책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비율(77.2%)이 전국(51.9%)보다 25.3%p나 높게 나타나 정책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작은 결혼식에서는 결혼당사자의 의견(37.8%)과 결혼의 의미(24.8%)를 담는 것이 저비용(23.6%)과 같은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남.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26.1%),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대상 주택대출금리 인하(17.8%), 작은 결혼식 공간 확대(13.9%) 순으로 나타남

나. 주요결과를 통한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혼비용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 역시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웨딩홀의 경우 '동시 예식'보다 '단독 예식'이 가능한 호텔식 결혼을 선호하고 신혼여행의 경우 평소에 가보기 힘든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호텔 결혼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결혼식 장소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제주 특유의 관행인 '하루 종일 피로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남. 피로연 시간 줄이기는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슈로 보임
- 결혼식은 지금까지 지출한 축의금을 회수하는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축의금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하루 종일 피로연, 하객들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음식 쓰레기 발생 등 다양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결혼문화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 보다는 '이브닝 웨딩이나' 숲 결혼식과 같이 시간과 공

- 간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발굴과 홍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 작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저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준비하는 결혼이어야 함. 결혼준비에 있어 결혼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이 많이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결혼비용 부담에 있어 부모님의 지원이 많을수록 개입도 많은 것으로 보임
 -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강조점은 혼인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독립적인 결혼문화 확산일 것이라고 여겨짐.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 세대의 체면치레나 강박관념 보다는 실속 있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봄. 이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합리적 결혼문화 캠페인 등이 필요함
 - 결혼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혼관련 정책은 주택지원 정책이었으며, 이는 주택공급, 대출자금 지원 등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를 확대하고 홍보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정책 제언

가. 단기과제

□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협력업체 발굴지원

- 첫째,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식 장소 발굴이 필요함. 이러한 자연을 활용한 웨딩 장소 뿐만 아니라 돌문화공원, 자연휴양림, 4·3평화공원 등과 같이 실내에서의 예식도 가능한 다양한 시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다양한 결혼 콘텐츠 발굴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함. 이미 타 지역에서는 하우스 웨딩, 이브닝 웨딩, 평일 웨딩 등 결혼형식과 시간대가 다양하게 취사선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주지역은 주말 낮 웨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따라서 웨딩산업체들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서 시도할 수 있는 웨딩 형식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도록 하고, 제주지역 언론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결혼식 사례를 실어 홍보함으로써 결혼문화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다양한 결혼식 장소와 콘텐츠가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웨딩업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다양한 결혼식 장소에서 원활히 예식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웨딩업체들이 발굴·육성 및 제주지역 결혼업체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필요함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혼부부 주택정책 수립 및 홍보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 58가구를 시작으로 현재 10배 가까이 지원 가구가 확대되었고 예산 또한 이에 비례하여 늘어남.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신혼부부들이 많아 홍보 확산이 필요함. 또한 예산 확보 또한 지원자와 지원금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함

□ 제주 결혼포털 사이트 구축 및 결혼 멘토단 운영

- 제주 결혼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협력업체들을 홍보하고, 제주지역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주례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결혼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결혼식 형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중기과제

□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

- 첫째, 작은 결혼식의 이미지 개선과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함. 지금 처럼 결혼식을 마냥 작게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그 의미를 살리기 어려움. 제주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네이밍을 공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일반 웨딩업체를 활용할 때 웨딩 플래너를 통한 전반적인 케어를 통해 신랑신부들이 비교적 신경 쓰지 않고 결혼식장이나 드레스 등을 진행하는 반면, 작은 결혼식은 불편하고 신경 쓸 것이 많다는 생각으로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작은 결혼식 웨딩 플래너 양성 및 지원을 통해 결혼 당사자의 편의성을 증진시

킬 필요가 있음

-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작은 결혼식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 범위의 한정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마을에서 회관이나 근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동네잔치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고 마을 단위로 운영하기에도 인프라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었음. 따라서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웨딩업체가 인프라와 물품을 구비하도록 행정에서 적극 발굴·지원해야 함
- 넷째, 작은 결혼식의 활성화가 가능한 자체 생태계 구축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작은 결혼식에 기여할 재능 기부자들 발굴 등 재능 기부 문화 조성 및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공유 마켓 조성 등이 가능할 것임. 이때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작은 결혼식 사업에 참여할 동기부여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 수혜자로 연결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내 작은 결혼식 관련 기관 MOU 체결을 통해 지원을 확보하고, 작은 결혼식 지원 조례 또는 합리적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웨딩 박람회 정례화 및 활성화

- 웨딩 박람회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 다양한 예식 문화와 정보의 장, 저렴하고 알뜰한 소비 유도라는 공통된 개최 목적 이외에도 최근에는 교육적 의미 제공 및 인구증대 효과까지 추가되어 다양한 이벤트까지 기획하여 제공되는 추세임
- 제주지역은 언론사 주최 박람회가 비슷한 시기에 연 2회 개최되고 있어, 소비자인 예비 신랑신부들을 위한 웨딩 박람회의 정례화가 필요함. 또한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이라는 본연의 박람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지역의 사례처럼 웨딩박람회와 연계한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합리적 결혼문화를 위한 인식변화와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임

다. 장기과제

□ 합리적 결혼문화 진작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과 제주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결혼문화 키워드는 ‘체면’과 ‘가부장적’이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고비용 관습적인 결혼문화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김소영 외, 2014)
-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결혼에 있어 가부장적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성별 불평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마련비용을 신랑측에서 지출하고 결혼예식에 부모님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전날 가문잔치나 당일잔치인 하루종일 피로연 등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음
 -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본인이 먼저 그 변화를 이행하는 것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 달서구의 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결혼지원 사업보다는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5
제2장 결혼관련 정책 현황 및 제주지역 결혼문화 고찰	7
1. 결혼관련 정책 현황	9
가. 중앙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관련 정책	9
나. 제주특별자치도 결혼관련 정책	18
2. 결혼관련 선행연구 고찰	21
가. 결혼비용 및 부담 정도	21
나.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24
3. 제주지역 결혼문화 고찰	27
4. 소 결	32
제3장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 조사 결과	35
1. 설문조사 개요	37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37
나. 조사 내용	37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39
2. 설문조사 결과	42
가. 결혼예식 및 결혼비용 부담	42
나. 축의금 및 결혼문화 관련 인식	61
다. 결혼문화의 문제점	69
라.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위한 방안	71

3. 요약 및 시사점	76
가. 조사결과 요약	76
나. 시사점	78
제4장 심층면접 조사 결과	81
1. 심층면접 개요	83
2. 심층면접 결과	85
가. 결혼예식, 결혼비용 및 정보	85
나. 제주지역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90
다.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갈등	93
라. 합리적인 결혼문화	95
3. 요약 및 시사점	99
가.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99
나.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갈등 및 합리적인 결혼문화	100
제5장 결 론 : 합리적 결혼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103
1.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5
가. 주요 결과 요약	105
나. 주요 결과를 통한 시사점	107
2. 정책 제언	109
가. 단기과제	111
나. 중기과제	114
다. 장기과제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 설문지(신랑신부용)	121
부록 2. 설문지(혼주용)	129

표 목 차

〈표 2-1〉 전국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현황	12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 관련 조례 및 추진실적	16
〈표 2-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	20
〈표 2-4〉 결혼준비 품목별 지출 비용(2015~2018년)	21
〈표 2-5〉 결혼비용 분담 비율(2014~2017년)	22
〈표 3-1〉 조사 내용	38
〈표 3-2〉 이해당사자별 응답자 현황	39
〈표 3-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0
〈표 3-4〉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예단	46
〈표 3-5〉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결혼예식	48
〈표 3-6〉 결혼예식 관련 요소 이행여부와 비용부담	49
〈표 3-7〉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결혼예식 구성요소 중) 피로연	50
〈표 3-8〉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신혼여행	51
〈표 3-9〉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신혼주택	53
〈표 3-10〉 결혼식 참가 하객 규모	55
〈표 3-11〉 실제 지출 총금액	57
〈표 3-12〉 결혼비용 부담인식	58
〈표 3-13〉 소득 및 자산별 결혼비용 부담인식	60
〈표 3-14〉 결혼 축의금 비용 및 횟수	61
〈표 3-15〉 월평균 가구소득별, 가구자산별 결혼 축의금 비용 및 횟수	62
〈표 3-16〉 결혼문화 관련 인식 :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 ...	67
〈표 3-17〉 결혼문화 관련 인식 :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좋다 ...	67

<표 3-18> 결혼관련 문제 인식 : 호텔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	71
<표 3-19>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2순위 요소	73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83
<표 5-1> 합리적 결혼문화 활성화 정책과제 시기별 추진일정(안)	110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5
〈그림 3-1〉 결혼식 장소 및 장소 선택 기준	42
〈그림 3-2〉 결혼 피로연	43
〈그림 3-3〉 결혼 관련 비용 부담자	43
〈그림 3-4〉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약혼식	44
〈그림 3-5〉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청첩장 제작	44
〈그림 3-6〉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예단	45
〈그림 3-7〉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예물	47
〈그림 3-8〉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피로연	50
〈그림 3-9〉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신혼여행	51
〈그림 3-10〉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혼수(살림살이)	52
〈그림 3-11〉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신혼주택	53
〈그림 3-12〉 축의금 이행여부와 축의금 총액	54
〈그림 3-13〉 결혼식 참가 하객 규모	55
〈그림 3-14〉 실제 지출 총금액	56
〈그림 3-15〉 결혼비용 부담인식과 평균비용	58
〈그림 3-16〉 축의금 및 껌부조에 대한 부담 인식	63
〈그림 3-17〉 제주의 껌부조 풍속 유지에 대한 인식	64
〈그림 3-18〉 결혼예식 항목별 필요도	64
〈그림 3-19〉 결혼문화와 관련된 인식	65
〈그림 3-20〉 결혼문화의 호화·사치 풍조 이유와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69
〈그림 3-21〉 결혼문화 관련 문제 인식	70

<그림 3-22> 이상적인 결혼비용	71
<그림 3-23> 선호하는 결혼방식	72
<그림 3-24>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인식	74
<그림 3-25>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75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1930년대부터 점차 서구식 결혼을 올리게 됨으로써 전문 상업 예식시설이 등장하였는데(김지순, 1997), 이때부터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결혼이 소비문화와 결합되기 시작함. 최근에는 예식시설 고급화 전략에 따라 ‘예식장’이라는 명칭 대신 대부분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급 호텔에서의 결혼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결혼에 따르는 여러 격식들이 웨딩시장의 필요에 의해 전통과 서구의 문화가 임의적으로 결합된 복잡하고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가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시적인 소비문화와 직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됨
- 고비용의 결혼문화는 결혼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지연, 비혼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기대 결혼부담 비용이 많을수록 기대 결혼연령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유계숙, 2014)
- 한국소비자원(2013)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5.0%가 우리사회에 ‘결혼의 호화사치 풍조’가 있다고 응답함. 「2016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75.4%가 우리 사회의 결혼비용이나 의식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함
 - 이러한 현상들은 물질만능 사회풍조 하에서 남들만큼은 결혼식을 뒤쳐지지 않게 치러야 한다는 잘못된 결혼에 대한 의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고비용의 문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결혼문화 전반에 잔재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 또한 문제로 제기됨. 예컨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재화인 혼수와 예단은 주로 신부 쪽에서 담당하고 재산으로 남게 되는 주택은 주로 신랑측에서 맡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신랑측 친척들에게만 한정되는 폐백문화와 결혼예식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주례, 사회) 부여는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문화로 지적됨
- 정부는 국내 혼인건수가 정점에 달한 1996년 이후부터 혼인률 감소와 농촌총각의 혼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식장과 예식비용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해 5,000만원 미만 예산으로 저소득층이나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한

합동결혼식에 머물러 그 성과는 크지 않았음(이영재, 2008)

- 아울러 2015년부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관계부처 공동협력 TF’를 운영하면서, 감소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총리 주재 간담회 및 작은 결혼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작은 결혼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작은 결혼’은 대중적인 문화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이와 관련한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 않음¹⁾
- 제주지역은 웨딩홀 인프라 부족 및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결혼 피로연 관행 등과 맞물려 호텔에서의 결혼식이 매우 대중화 되어 있는 상황임. 이는 고비용 식대 지출 뿐만 아니라 주말 시내 교통 혼잡 유발, 대량의 음식 쓰레기 발생, 신랑신부 및 혼주의 피로도 가중 등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 이에 제주지역 결혼 비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겹부조, 부신랑·부신부, 반대방향인 예단비²⁾ 등 제주지역 특유의 결혼문화에 관한 현대적 의미와 합리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신랑·신부 및 혼주를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 및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결혼관련 정책 및 결혼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제주지역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관련 실태 및 인식 조사
 - 결혼비용 및 세대별 부담 비율, 결혼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 이해당사자별(혼주/신랑/신부)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합리적 결혼문화에 관한 인식 및 정책방향
-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1)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료 참고(http://www.mogef.go.kr/mi/mdp/mi_mdp_s001.do)

2) 육지부의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비 방향을 일반적이라고 가정함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자료 및 정부와 각 지자체 정책 검토
- 설문조사 : 최근 3년 이내 결혼한 당사자(N=302) 및 혼주(N=203), 총 505명
- 심층면접 : 결혼 당사자, 혼주, 웨딩산업 관련자 등 10명
- 전문가 회의
- 이상의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1-1〉 연구 수행 절차



결혼관련 정책 현황 및 제주지역 결혼문화 고찰

1. 결혼관련 정책 현황
2. 결혼관련 선행연구 고찰
3. 제주지역 결혼문화 고찰
4. 소 결

1. 결혼관련 정책 현황

-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생활방식, 청년층의 고용불안 등의 다양한 사회변화로 결혼 기피 및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저출산 기본 계획을 통해³⁾,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주택 지원 정책,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등의 정책을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음

가. 중앙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 공공주택 정책대상이 저소득 계층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신혼부부가 주거복지 대상으로 포함됨. 2000년대 들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도입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박미선, 2017)
-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에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136만가구 지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 20만 가구 지원 등을 통해 총 17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뉴스1, 2018.6.28)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3만가구(5년간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5년간 7만가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유아특화 단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임
- 중앙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임대주택의 직접 공급과 전세자금의 저리 대출임. 박미선(2017)의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여건 개선과 주택자금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음

3) 1차(2006~2010) : 결혼·출산 주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 제도 도입,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2차(2011~2015)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관련 교육·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3차(2016~2020)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1) 주거여건 개선 정책

□ 행복주택

-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안정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증명)를 대상으로 함
- 세대소득은 평균소득의 80% 이하(맞벌이 120%)이고, 자산은 공공임대 기준 이하(총 자산 2.19억, 자동차 0.25억 원)가 기준임

□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08년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하는 정책으로, 공공건설주택은 15%(국민임대 30%), 민간건설주택은 10%의 비율임
- 자격요건은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자,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경우이며, 소득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일 때임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구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임
- 소득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1.67억 원 이하 및 차량 기준가액 2,522만 원 이하인 경우임

(2) 주택자금 지원 정책

□ 전세자금 마련 지원: 버팀목 대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저소득 무주택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자율 0.7%p 우대 및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완화(일반 5천만 원, 신혼부부 6천만 원) 지원
 - 대출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수도권 1.2억, 지방 8천만원 이하) 이내이며, 2년 이내 일시상환이나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디딤돌대출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정책임.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이며,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평가액 5억 원 이하임
 - 살가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2017.8.28 이후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살가주 유지 필요

2) 중앙정부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정책

- 박근혜 정부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정상화 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선정함('14.1)
- 추진 경과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추진현황' 보고('14.11)
 - 4대 중단과 「작은결혼·가족행복 만들기」 공동협력 선언('15.4)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관계부처 공동협력 TF」 구성·운영('15.6~)
 -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15.12)
 - 한국소비자원과 「작은결혼·행복한 육아문화 만들기」 공동협력 선언('16.2)
 - 검소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총리 주재 간담회 개최('16.4)
 - 2016 작은결혼 박람회 개최('16.10)
 - 작은결혼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16.12)

(1)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 공공시설이 예식장으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공간, 최소 70석 이상의 예식장소, 신부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함
-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부대물품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급적 음식 접대 장소를 제공해야 함
-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형태는 예식장 직영, 부분 위탁, 완전 위탁으로 구분됨
- 전국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현황은 아래 <표 2-1>과 같음

<표 2-1> 전국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현황

(‘17.10월 현재, 25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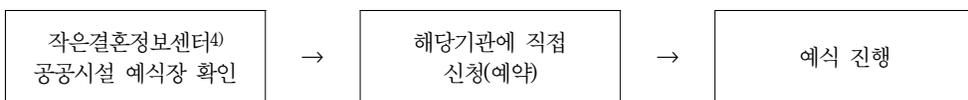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	252	45	32	17	8	7	3	8	4	19	34	9	5	17	5	13	24	2

※ (‘13년) 132개소→(‘14년) 157개소→(‘15년) 173개소→(‘16년) 224개소→(‘17년) 252개소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 자료

□ 공공시설 예식장 직영

- 강당 또는 대회의실을 예식홀로, 회의실 또는 강사대기실을 신부대기실로 활용함. 기관 주차장을 개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 예식시간과 3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
- 인력은 예식상담, 예약 및 접수, 계약, 안내를 담당할 업무 담당자 및 예식진행을 관리할 인원이 배치되어야 함
- 예식 시설 이용 흐름도



○ 운영 사례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모집(매 분기별로 모집하며 3개월 전에 모집하여 확정 공지함)
- 매주 토, 일요일 1회 11시 ~ 14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시작하고, 기본 3시간 사용 가능
- 식당가격 : 28,000~35,000원까지 선택 가능
- 주차료 : 1시간 무료(350대 수용), 2시간 초과 시 추가비용 발생

□ 공공시설 예식장 부분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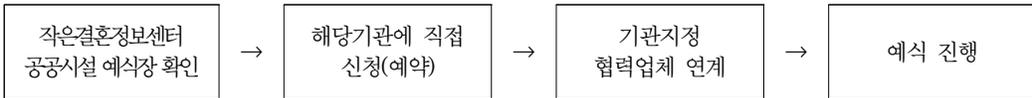
○ 위탁 내용은 예식진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임

- 이용자가 원할 경우 사진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등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예식 진행을 위한 편의 제공

○ 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예약편의를 위해 사전공모, 예약 기능일자 사전 안내 등 예식장 예약접수 등을 관리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함

○ 위탁업체는 사진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상담 및 서비스와 부대용품인 꽃길, 예식용품, 폐백 용품 등을 제공함

○ 예식 시설 이용 흐름도



○ 운영 사례 : 서울특별시 시민청

- 신청(매년 상/하반기)기간 내 시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심의, 선정절차 진행
- 2월 신청 : 당해 연도 하반기 7월 - 12월
- 8월 신청 : 다음 연도 상반기 1월 - 6월
- 매월 둘째주 토요일 1회, 매주 일요일 1회 예식 가능
- 기관에서 선정한 협력업체 6곳 활용

□ 공공시설 예식장 완전 위탁(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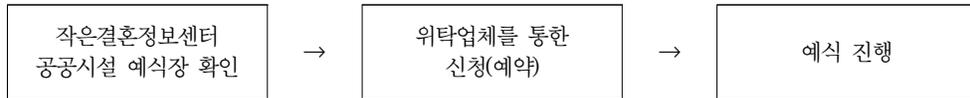
○ 위탁내용은 부분위탁과 동일하며, 기관에서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함

○ 위탁업체는 예식장 예약접수 등 관리와 사진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상담 및 서

4) <http://smallwedding.or.kr/main/>

비스와 부대용품인 꽃길, 예식용품, 폐백 용품 등을 제공함

○ 예식 시설 이용 흐름도



○ 운영 사례 : 양천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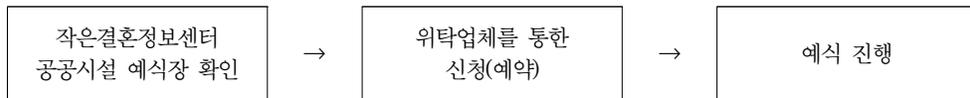
- 1층 해바라기홀 이용, 1시간 반 간격으로 2~3회 예식 가능
- 식사장소 : 양천리더스웨딩홀, 450석 운영(※ 식대 : 뷔페 33,000원)
- 주차공간 : 300대(주차료 무료)
- 특수연출 : 예도 에스코트, 케이크 커팅, 축포 등
- 예식당일 양천구청역에서 셔틀버스 운행
- 협력업체(토탈웨딩 더 샤프) 활용

□ 공공시설 예식장 완전 위탁(실외)

○ 기관에서는 야외 공원 등 장소 제공 및 주차장 개방을 지원함

○ 위탁업체는 예식장 예약접수 등 관리와 사진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상담 및 서비스와 부대용품인 꽃길, 예식용품, 폐백 용품 등 예식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

○ 예식 시설 이용 흐름도



(2) 작은 결혼식 지원

○ 작은 결혼이란 예식 절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준비하여 치르는 혼례를 의미

- 가까운 분만 모시고 의미 있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
- 예물과 예단보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소중히 여길 것
- 신혼살림은 신랑·신부가 함께 준비해 나갈 것

○ 작은 결혼 모델 개발 및 홍보

- 성평등 결혼, 숲속 결혼, 공공시설 예식장 결혼, 공원 결혼, 해변 결혼, 캠핑 결혼 등

○ 작은 결혼식장 발굴 및 안내제공

-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경기도청 굿모닝하우스, 경남도민의 집,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연리지홀, 영동군여성회관 등
- 정부는 청와대 사랑채를 예식홀로 개방하여 왔으나, 2018년 1. 10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함
- 그 외에도 셀프촬영지와 시즌별 국내 신혼여행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무료 주례 지원을 위한 저명인사들의 재능기부 연계 등의 사업이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정책

(1) 주거지원 정책

- 중앙정부에서의 주거지원에 더하여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 경기지역의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박미선, 2017)

□ 서울특별시

-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 저소득 무주택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을 할당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 청년임차 보증금 : 서울시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따복하우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2020년까지 1만호 공급 예정임
- 기본 6년에서 1자녀 출산 시 8년, 2자녀 이상 출산 시 10년으로 연장되고 출산, 자녀수에 비례해 대출이자 감면 및 도(道)와 경기도도시공사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40%를 지원(자녀를 한 명 낳으면 60%, 자녀 두명 이상을 낳으면 100%까지 지원)하므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주거복지정책임

□ 강원도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2016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 아내 만 44세 이하) 및 부인이 수급자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월 최소 5,9,12만원을 차등 지급)

(2)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 정책

- 몇몇 지자체에서는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표 2> 참조)
 - 고령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예식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그러나 봉화군의 경우 예산은 10명을 책정하였으나 집행은 50%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예식장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임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 관련 조례 및 추진실적

조례명	제정일	내 용	추진실적 ⁵⁾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2016.8.1	·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 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 · 100만원 이하	· 2016년 : 6명 · 2017년 : 4명 · 2018년 : 7명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2017.12.29	· 고령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 · 150만원 이하	· 2018년 : 3명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2014.12.26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 · 결혼자 남녀 각각 100만원	· 2016년 : 71명 · 2017년 : 89명 · 2018년 : 44명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2008.2.21	·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및 배산체육공원 내 결혼예식장 설치 및 무료 운영	· 조례 폐기 예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1	·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사업 ⁶⁾ 및 결혼장려 지원을 명시	· 각종 홍보부스 운영 : 11회 (2,396명) · 사랑의 끈맺기 행사: 2회(110명) · 각종 만남행사 : 2회(108명) · 결혼전략 설명회 및 교육 : 420명
청주시 미혼자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14.7.14	· 청주시 관내 거주자 중 전국 월평균 소득의 70%미만인 35-50세 농어업인 대상 결혼 비용 1회 지원 · 300만원 미만	· 추진 실적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결혼 자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조례 제정 및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관내 각종 축제와 행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포토존 운영, 리플렛을 통한 사업 홍보, 화관 만들기 등 체험 운영, 공공장소 결혼식장 안내판 설치 등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근두근 페스티벌'이라는 자체 결혼장려 홍보 행사를 통해 맞춤형 결혼상담실, 웨딩드레스 등 체험부스 등을 운영함
 - 결혼장려 지원 사업으로는 달서구청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미혼남녀를 초청하여 매칭 프로그램인 사랑의 끈맺기 행사를 2회 진행하였으며,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통해 6커플 매칭하고 그 중 2커플이 결혼함. 또한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전략 설명회를 통해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권역별 찾아가는 혼례교육을 통하여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식을 위한 혼주의 역할' 등을 교육함

- 그 외에, 부산시에는 2018년 8월에 한국교회 최초로 혼인미사만을 위한 특화 성당인 '부산가정성당'이 건립되어 현재 운영 중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4차례 혼인미사가 가능하고, 공간 임차비용 70만원, 사진촬영 100만원, 피로연 뷔페는 1인당 2만 7500~3만8500선임. 성당이나 교회 웨딩의 경우 물품이 없거나 장소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부산가정성당에는 신부대기실과 로비, 폐백실 등이 다 구비되어 있음. 교통이 편리한 초량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와 인접하여 하객들에게도 편리한 위치임. 평일에는 각종 강연회와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

5)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2018년 실적은 8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임
 6)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사업, 작은 결혼식 인프라 구축,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등
 7) 결혼장려 지원 시책 수행 사업체, 단체에 비용 및 행정 지원

나. 제주특별자치도 결혼관련 정책

1) 제주형 작은 결혼식

-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함('16~'18)
- 추진 방향
 - 작은 결혼식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 기회 제공
 -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도민인식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 제주의 자연 및 환경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콘텐츠 발굴 및 공유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 결혼식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
 - 공공시설 예식장과 연계한 작은 결혼식 확산
- 연차별 예산
 - '16년 50백만원, '17년 50백만원, '18년 50백만원으로 계획
 - '18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아 추진된 사업 없음

□ 제주형 작은 결혼식 “제주 연리지” 사업

- 사업주체 :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15. 10월 ~ 12월
- 사업비 : 40백만원(양성평등기금)
- 사업내용 : 지역형 혼례문화 모델 발굴 및 제주형 여성사업화
- 사업추진 성과
 - 작은결혼식 관련 홈페이지 개설(제주연리지.com)
 - 작은결혼식 콘텐츠 개발 : 숲속웨딩, 바닷웨딩, 올레웨딩 등
 - 작은 결혼식 추진 : 10쌍(동거·재혼 7쌍, 초혼 3쌍)

□ 작은 결혼식 정보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도민인식 제고 사업

- 사업주체 : (주) 제주방송

- 사업기간 : 2016. 9월 ~ 12월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추진 성과
 - 작은 결혼식 UCC공모전, 작은 결혼식 플랜&스토리 전시회, 작은 결혼식 다큐멘터리 제작반영 등

2)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및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 제주지역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은 2017년 기준 2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혼인지의 경우 일반 예식도 가능하나 대부분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하객 80~90명 정도 수용가능하여 협소함
 - 전통혼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이 필요함
- 남원생활체육관의 경우 2009년에 이어 2017년에 1억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18년 실적은 5월 기준 4건으로 '17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결혼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체육관 시설관리 인원 1명 또는 당일 읍사무소 일직 직원이 행사 지원을 하는 상황임
- 운영현황
 - '15년 : 2개소 · 20쌍(혼인지 13, 제주목관아 7쌍)
 - '16년 : 3개소 · 31쌍(혼인지 13, 제주목관아 8, 남원생활체육관 10쌍)
 - '17년 : 2개소 · 18쌍(혼인지 14, 남원생활체육관 4쌍)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제주시에서는 1984년부터 합동결혼식을 추진해왔으며, '16.12월 기준 총 555쌍임
- 지원대상 :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부부
- 지원내용 : 합동 결혼식을 위한 예식 비용 지원(결혼예식용품 등)
- 추진실적
 - '15년 : 14쌍(제주시 8, 서귀포시 6)
 - '16년 : 17쌍(제주시 10, 서귀포시 7)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5.12.30.)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 대상(임차)주택 : 주택 및 오피스텔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기준)의 이율 1.5%(최대70만원)
 - ※ 다자녀, 장애인(1~3등급), 다문화 가정은 0.5% 가산(최대100만원)
- 년도별 지원사업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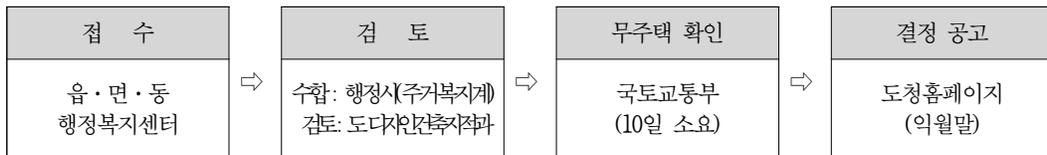
〈표 2-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신청가구수	지원금액	선정자 수	가구당 평균 지급 금액
	2,135	1,377,168	2,104	
2012	62	35,654	58	61.5만원 (최대 100만원)
2013	282	183,080	277	66.1만원 (최대 100만원)
2014	267	200,000	257	74.9만원 (최대 100만원)
2015	385	228,987	385	59.5만원 (최대 70만원)
2016	507	329,525	506	65.1만원 (최대 70만원, 배려 대상자 최대 100만원)
2017	632	399,922	621	64.4만원 (최대 70만원, 배려 대상자 최대 100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내부 자료

○ 지원 절차



※ 무주택 확인 :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로 확인

2. 결혼관련 선행연구 고찰

가. 결혼비용 및 분담 정도

-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운영하는 듀오 휴먼라이프 연구소⁸⁾의 ‘2018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평균 결혼자금은 2억 2,974만원으로 나타났음
 - 예식장 계약에서부터 신혼여행까지는 평균 6,18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 도움 없이 자립 결혼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78.4%로 나타나, 2017년 73.9%에 비해 4.5%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결혼준비 품목별 지출 비용에 대한 4개년 조사 결과는 <표 2-4>와 같음
 - 결혼 총 비용은 2016년에 정점이었다가 차츰 감소하여 2018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2억을 상회하는 비용인 것으로 조사됨. 이중 신혼집 마련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예식장 계약에서부터 신혼여행까지는 평균 6천만원대부터 8천만원대까지로 나타남

<표 2-4> 결혼준비 품목별 지출 비용(2015~2018년)

(단위: 만원)

지출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비용	23,798	27,420	26,332	22,974
신혼집	16,835	19,174	18,640	16,791
예식장	1,593	2,081	1,905	1,324
웨딩패키지	297	344	309	293
예물	1,608	1,826	1,798	1,429
예단	1,639	1,832	1,767	1,457
혼수용품	1,375	1,628	1,417	1,200
신혼여행	451	535	496	480

8) https://www.duo.co.kr/html/duostory/humanlife_003.asp

- 전체 결혼비용 중 신랑과 신부의 분담 비율에 대한 4개년 조사 결과는 <표 2-5>와 같음
 - 2018년의 경우에는 전체 결혼비용 분담 비율이 '5:5'가 22.8%, '7:3' 18.1%, '6:4' 14.7%, '6:4' 13.8% 순으로 나타나, 신랑신부 5쌍 중 1쌍이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분담 하는 것으로 보임. 남성은 '7:3'이 21.1%, 여성은 '5:5'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 학력, 연소득, 거주지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남
 - 2014년에서 2017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36.4% 남성은 63.6%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분담 비율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는 여성과 남성의 결혼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사회적 관행이 결혼당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행된다고 볼 수 있음

<표 2-5> 결혼비용 분담 비율(2014~2017년)

(단위: %)

분담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 성	37.6	36	37	35
남 성	62.4	64	63	6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36.2%가 결혼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함
 - 부담을 느낀 항목으로는 신혼살림(57.7%), 예물·예단(51.9%), 주택마련(26.0%), 결혼식(18.5%), 신혼여행(2.7%), 순으로 나타남
- 결혼비용에 대해서 최근에 결혼한 코호트 일수록 부담을 느낀 비율이 높음
 - 1995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는 29.3%로 나타난 반면, 2010~2015년 코호트에서는 47.2%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소영, 홍승아, 이아름, 2014)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식에 6,0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 신랑측 혼주는 8,000만원 이상이 54.8%였으며 2억원 이상도 11.3%인 반면, 신부측 혼주

는 70%가량이 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랑측과 신부측 부모의 지출 비용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부모님의 지원 비율은 전체 결혼 비용 중 60% 이상을 부모가 지원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에 달해 부모의 지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해 부모 세대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남
- 고비용 결혼문화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예단·예물 최소화'가 43.4%, '결혼 당사자가 결혼비용 부담'이 21.7%로 나타남
- '청년층 대학생의 결혼 비용 및 결혼 연령에 관한 연구'(유계숙, 2014)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결혼 비용을 평균 8천3백68만원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기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학생들은 1억 824만원 여학생들은 5천9백74만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5천만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에게서도 여전히 부거제 의식의 전통인 '남자=집, 여자=혼수'의 결혼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학생들의 기대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이며, 기대하는 본인 부담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준비단계에서부터 인식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결혼비용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김두환, 2013)에 따르면, 결혼 전 단계 소요 비용은 평균 3,423만원, 결혼식 진행 관련 비용은 평균 1,783만원으로 총 5,207만원으로 나타남(주택마련 비용 제외)
 - 주택마련 비용 부담은 신랑측이 60.9%, 신부측 2.3%, 공동이 36.8%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에 따른 관행이 이행되는 것으로 보임
- 결혼식 하객은 평균 264.2명이며, 축의금 규모는 1,766만원으로 나타남
- 하객 식사대접을 위한 피로연의 경우 응답자의 75.7%가 실시하였으며, 음식제공은 뷔페식이 81.6%로 가장 많았음
 - 피로연 비용규모는 평균 573.8만원으로 1인당 3.3만원이고, 양기를 합칠 경우 944.7

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이 여성은 2,883만원 남성은 9,588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3배 가량 높게 부담하는 것으로 신혼집을 남성이 마련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남성 40.4%, 여성 19.4%로 조사됨
 - 결혼비용 중 당사자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금액은 남성이 46.3%, 여성은 50.3%로 절반 수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나.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전통 혼례 풍습과 서구식 혼례 문화, 종교 의식이 뒤섞여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음
 - 혼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찰 없이 웨딩홀 또는 종교시설에서의 예식은 서양식으로 진행하고, 함, 폐백, 이바지 음식 등은 전통 혼례의 형식을 빌어와 단순히 형식만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질되고 있음
-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중 3명(75.4%)이 우리 사회의 결혼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 인식 및 실태’(이선민, 김신희, 2015)에 따르면, 75.8%가 결혼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였으며 그 원인은 ‘과다한 혼수로 나타남. 결혼에서 ‘당사자’가 중요하지만 부모 의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남
 - 선호하는 결혼식 형태는 실속 있는(86.2%), 소규모(81.1%)의 당사자 주도(85.2%)인 것으로 나타남. 결혼식 하객은 100인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참석인원은 200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결혼 절차 중 주례, 폐백, 피로연, 예물·예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30% 이상이 진행하였다고 응답함. 결혼의 이상과 실재는 다른 것으로 보임. 예물·예단, 폐백의 주 의사결정자는 남자측 어머니로 나타남

□ 과도한 하객초청 및 축의금 문화

- 우리나라 양가 하객 총 규모는 평균 343명인데 반해, 미국·일본·영국·대만·싱가포르 등의 하객은 대체로 50~100명으로 우리의 15~30% 규모에 불과함. 또한 하객의 40%만이 예식에 참석하고 60%는 단지 혼주와의 인간관계와 체면치레 때문에 예식장에 오기는 하지만 식사만 하거나 축의금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이강현, 1997, 이문화, 2014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많은 이웃에게 널리 알리는 혼인의식을 중요시하는 문화임. 혼주, 결혼당사자, 친지, 친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혼주 입장에서는 예식장소의 시설적인 면과 피로연 같은 외적인 부분을 중요시 하게 됨(김미숙, 김금화, 2010)
- 한국 갤럽의 2013년 결혼식 축의금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13%, '약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5%로 전체의 68%가 결혼식 축의금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문화, 2014)

□ 결혼식 장소

-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치러지던 전통혼례는 개화기 이후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종교시설 및 강당과 같은 집회 장소 형태의 장소로 옮겨졌다가, 산업화 이후에는 예식장이라는 상업 시설이 등장하게 됨(김진영, 공순구, 2015)
- 최근 결혼식을 거행하는 장소는 기존의 일반 예식장을 비롯하여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호텔, 야외 결혼식장 등으로 점차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는 상황임. 정부의 '건전가정의례준칙(1999)' 발표에 따른 호텔결혼식 인정과 웨딩산업의 자율화에 따른 결혼식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결혼을 앞 둔 사람들의 선택양상은 더욱 폭넓게 변화하고 있음(김미숙 외, 2010)
- 일반 예식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한때는 호화사치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호텔예식 연회는 호텔업계의 마케팅과 사회적인 인식 확대에 의해 현재 웨딩산업에서 점점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며, 호텔의 총 연회매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상품임. 각 호텔들은 예식 유치로 인한 매출증가와 기업 이윤확대 등 그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투자비를 들여 예식장을 재정비 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등 전략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정경호, 이은용, 이수범, 2007)

- 2000년 이전에는 일반예식장-특1급 전용 예식장-특2급 전용예식장의 삼각구도였던 국내 웨딩 시장이 2000년을 전후로 500억 원 시장 규모로 확대되면서 예식 관련 사업장의 수가 늘어가고 있음.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대응에 따른 차별화되고 다양한 웨딩 장소의 등장으로 현재는 기존 일반 예식장과 호텔 웨딩 외에도 리조트 웨딩, 뷔페식당 웨딩, 야외 웨딩, 하우스 웨딩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식 형태 또한 주말 주간 예식에서 평일 저녁예식, 이벤트성 예식, 주례 없는 예식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김진영, 공순구, 2015)

□ 남녀 불평등한 혼례의식 존속

-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결혼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음. 이는 혼수와 예단은 주로 신부측에서 준비하고 주택은 신랑측에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에서 그러함
 - 소비성 재화인 혼수와 예단을 신부측에서 부담하고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인 주택은 신랑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견 여성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교환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이 이후 결혼생활에서 시댁이나 남편과 불평등한 관계를 맺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또한 결혼 해체 시 소비성 재화를 부담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 작은 결혼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 인식 및 실태'(이선민 외, 2015)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에 대해 48.1%가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9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작은 결혼식을 위해서는 결혼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줄이거나 생략하고, 본식을 비롯해 전 과정에서 결혼 자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절차의 조정이나 간략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작은 결혼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예식장소 및 관련 물품 대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제주지역 결혼문화 고찰

- 일반적으로 전통혼례란 조선사회 중기 이후 나타난 유교식 혼례를 일컫는데, 주자가례에 따라 혼례절차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순서로 정해져 있음. 제주는 섬이라는 지형학적 특성으로 인해 결혼의례에 있어 육지부와는 달리 절차를 중시하기보다는 다소 간략히 치러지는 경향이 있어, 주자가례 중 대례와 폐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제주지역 결혼문화는 해방에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지역 전통인 일채잔치의 풍습에 따라 혼인이 7일간 열리는 집안잔치로 이루어져 오다가, 한국전쟁 이후 제주시에 굴림 회관, 동신 예식장 등이 생겨나면서부터 집안의 잔치문화에서 점점 상업화된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함. 서구식 혼례문화가 정착된 현재에도 전통 혼례문화의 영향은 일정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강정식 외(2010), 문혜경 외(2011) 및 현승환(2007)의 연구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 결혼문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 막편지와 이버지

- 육지부에서는 신랑측에서 신랑의 사주를 신부측에 보내면 신부측에서 택일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반해, 제주는 신랑집에서 택일한 결과를 신부집으로 전달하는데 이를 ‘막편지 보낸다’라고 함. 막편지를 받으면 신부집에서는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이는 현대의 약혼에 해당하는 것임
- 이때 신랑측에서 이버지(이부조)를 함께 보내기도 하고 혼례를 앞두고 보내기도 하는데, 육지부에서는 신부측에서 신랑측에 보내는 조리된 형태의 음식이라는 것과는 달리 돼지 1마리, 술 한동이, 계란 100개 정도의 식재료임
 - 이버지는 지역에 따라 전혀 없는 관행이기도 하고 어떤 마을에서는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고 하나, 일제강점기 중기부터 신부측 집안에서 양가의 세력이 평등함을 보이기 위해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면서 해방 후에는 점차 사라져 현재에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임
 - 육지부에서 결혼을 올린 후 신부가 친정집에서 자고 처음 시댁으로 갈 때 시댁 사당에 제를 올리기 위해 마련해 가던 ‘이바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름

□ 홍세함과 우시

- 제주 지역에서는 납폐를 따로 하지 않고 초행과 함께 함. 혼례 전날 밤 혼서지(예장)를 쓰고 이를 간단한 예물과 함께 상자에 넣고 격식을 갖추어 붉은 보로 싸는데 이를 홍세함이라고 하며, 혼서함에서 비롯된 말로 해석됨
- 홍세함은 초행 시 하님 혹은 상객인 우시에게 맡겨 앞장 세워 신부집으로 가서 전달하였는데, 이때 상객에는 남자 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며, 신랑의 친가 뿐만 아니라 외가 친지도 포함되는 것이 육지부와 다른 제주만의 문화임⁹⁾

□ 혼례

- 제주 지역에서는 초행과 신행이 한 날에 이루어짐. 신랑 일행이 홍세함을 가지고 신부집에 도착하여 우시가 홍세함을 들고 신부집에 들어가면, 신부의 근친이 이를 받아 문전제를 위한 제상에 올리고 분향한 다음 예장을 검토함
 - 예장 확인을 마치고 나면 신랑이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고 신랑과 일행은 작은 상을 받은 다음, 식사를 마치면 신부집 친지들과 상객이 인사를 나누는데 이를 '사돈 열맹' 또는 '사돈 대위'라고 하였음
- 육지부에서는 신부댁 전통혼례의 중심은 유교문화에 따른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대례 절차에 있으나, 제주 지역은 대례를 거의 행하지 않았고 문전제와 신랑이 상을 받는 것으로 신부집에서의 공식적인 의례는 사실상 종결됨
 - 이에 제주지역에서는 혼례에서 막편지와 예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신부가 신랑 일행과 함께 신랑집으로 가서는 작은 상을 받아 식사를 마친 후, 신부측 상객 배웅하고 나서 신랑측 근친 부인들이 신부방에서 서로 소개하고 선물을 전하는 것으로 결혼 당일 의례는 끝남

□ 재행 및 현구고례

-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부친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는 재행은 혼례 다음날 이루어졌으며, 이때 돼지고기, 쌀, 술 등을 함께 가지고 가서 양가의 상견례를 벌임. 이때

9) 친가를 성편권당 외가를 외편권당이라고 하며, 상객 중 이모, 고모, 숙모 등 여성이 1~2명이 반드시 참석함

신랑신부가 하룻밤을 자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신랑 다루기인 동상례는 이때 이루어지기도 함

- 제주지역에서는 폐백이라고 일컫는 현구고례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신행을 마치고 신랑집에서 여자 어른들이 마련해 준 옷을 받아보고 일일이 인사를 드리며 사례를 하는 것이 전부였음

□ 공동체 문화와 잔치

- 제주 지역의 혼례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 물이 귀한 지역적 특성 상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물을 길어다 주었고, 땀감이나 돼지 잡는 것 등 음식 준비도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임
- 제주의 혼례는 7일 정도가 소요되어 일명 '일뿔 잔치'라고 함. 1일에는 두부를 만들고 돼지를 잡아 삶고 마당에 장막을 치는 등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였음. 2일에는 손님 맞이를 하고 저녁에는 '가문 잔치'를 하였으며, 3일에는 혼례를 치루었음. 4일에는 신부집을 다시 찾아갔고, 5일에는 신부측에서 사돈택을 찾음. 6일에는 그동안 수고한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사례하였으며, 7일에는 정리는 하고 마무리를 함
- 이것이 나중에는 3일로 줄어 '사흘 잔치'가 되었는데, 1일은 돼지를 잡아 가문잔치를 하고 2일에는 혼례를 하고 3일째는 사돈잔치를 함
- 제주 지역의 결혼잔치는 육지부에 비해 꽤 길기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 고양과 유대감을 질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잔치풍습이 축소됨. 결혼 전날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모이는 가문 잔치와 결혼 당일에 혼례 후 종일 피로연을 포함한 이틀 혹은 하루 잔치로 변화함
- 윤용택(2015)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문잔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하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67%나 됨.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가문잔치 대신에 당일잔치를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등 풍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에서는 혼인의 의미가 결혼 당사자나 가족과 친지에 국한되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됨.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행위는 '우리'와 '타자'를 구획짓는 모드(mood)로 작동하면서, 결국 사회적 공동체 즉 우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임(오영주, 2006). 이렇듯 '잔치에 참여하여 먹는 행위'는 제주사회에서 나와 우리에게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딸 판다’ 예물과 혼수

- 제주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신부가 시집오면서 특별히 예단을 하는 일은 없었고, 신랑측에서도 신부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으나, 미혼의 여성들이 일본공장 등지에서 일을 하는 등 현금 수입이 있고부터는 신부측의 혼수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보임. 1920~30년대에는 짚방석 1개 정도, 1940년대에는 이불 2~3채, 요 2~3채, 방석 4~5개, 이불상 1개, 경대 1개로 품목과 수량이 크게 늘어남. 일제강점기 말기의 제주지역 혼수를 전국과 비교하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음. 예단을 받은 친지들은 결혼 축의금을 줄 때 그만큼의 돈을 더 얹어 하는 것이 관례로 됨(문혜경 외, 2011)
- 최근에는 결혼 전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현금을 예단 명목으로 주는 추세이며, 그 규모는 각 가정마다 다르나 대략 1500~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제주맘 카페)
 - 제주도 속담에 ‘딸을 낳으면 곤밥(쌀밥)해 먹는다’라는 말이 있음. 이는 딸의 노동력이 집안에 귀한 보탬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의식은 ‘제주 여자로 태어나시민 한 일가는 동동 맥여살려야주¹⁰⁾’라는 격언에서도 볼 수 있음(한림화, 2015)

□ 겁부조와 부신랑·부신부 관행

- 제주 지역의 결혼문화는 자식이 결혼하면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분가를 하여 부모를 모시지 않고 재산 상속은 아들과 딸, 장남과 그 외의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균분상속 풍습을 따름. 이러한 철저한 분가제도는 자녀들간에 그리고 부부간에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처가 뿐만 아니라 외가와 처가와도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함. 분가제도와 균분상속제도는 부모자식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어느 정도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문화는 여자들끼리의 친목 모임이 따로 있고 경조사에서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부조를 하는 겁부조 문화로 이어졌음(윤용택, 2015)
- 부신랑과 부신부는 결혼식 당일엔 신랑과 신부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주로 친구들이 맡아서 하게 됨. 제주에서는 세대별로 혼주와 신

10) 제주 여자로 태어났으면 한 일가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죠

랑·신부가 따로 본인의 축의금을 직접 받기 때문에, 부신랑·부신부는 신랑·신부를 대신해서 축의금을 챙기는 중요한 역할을 함. 그 외에도 결혼식 과정에서 자잘한 심부름 등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혼인하는 당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함

4. 소 결

가. 결혼관련 정책

-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결혼 관련 정책의 배경은 대체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을수록,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혼이나 결혼기피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비용 혼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정책을 추진·실시함.
- 몇몇 지자체에서는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예식장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임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우에는 결혼 자체 지원 사업보다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조례 제정 및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연차별로 '16~'18년도까지 50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미비함
 -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며, 합동 결혼식을 위한 예식 비용 지원사업 또한 기존의 결혼형태를 답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결혼 지원 정책이 아닌, 결혼 당사자들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대안적 결혼문화를 제시하고 성평등한 결혼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단순한 결혼경비 지원 사업 보다는 합리적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건강하고 성평등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나. 결혼비용 및 분담 정도

- 우리나라 신혼부부 평균 결혼자금은 2억 2,974만원으로 조사됨. 전체 결혼비용 중 신랑과 신부의 분담 비율이 평등하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의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담하는 영역에서도 주택은 신랑측 예단은 주로 신부측이라는 성차

별적인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음

- 결혼식 형태 또한 전통 혼례 풍습과 서구식 혼례 문화, 종교 의식이 뒤섞여 혼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형식만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질되고 있음
-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중 3명(75.4%)이 우리 사회의 결혼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함
- 특히 우리나라는 하객의 규모가 서구에 비해 크고, 식사 대접에 드는 비용이 많음. 하객 전체의 68%가 결혼식 축의금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는 결혼식 당일 피로연에서 하루종일 식사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고, 축의금을 내는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으며 겹부조 형태도 남아 있어 혼주와 신랑신부 뿐만 아니라 하객으로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상호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단순히 결혼 비용을 줄이려는 정책 보다는 향후에는 혼례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는 견지에서 성평등한 결혼비용 분담과 더불어 부모 세대에게 의지하지 않는 세대간 경제적 독립에 관한 의식 변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축의금 문화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축하를 할 가까운 하객 초청으로 이어지는 결혼식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는 인식 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결혼식 형태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및 방법

- 조사 대상자는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 이내 결혼 당사자 및 3년 이내 결혼을 한 자녀를 둔 혼주 총 505명임¹¹⁾
 - 신랑 150명, 신부 152명, 신랑측 혼주 100명, 신부측 혼주 103명
- 표집 방법은 임의선정식 무작위 조사임. 시장, 마트, 관공서, 기업체, 상점 등을 방문하여 최근 3년 이내 결혼 여부에 대해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함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2018년 5월 29일에서 6월 29일 사이에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서 수행되었음

나. 조사 내용

- 설문지 구성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소영 외, 2014) 및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혼비용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김두환, 2013)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이면선, 2015)의 설문지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문향을 추가하여 구성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표 3-1>과 같음 (<부록 1>, <부록 2> 참조)

11) 2010년 이후 2017년(잠정치)까지 제주도의 혼인건수는 약 3,000건임

〈표 3-1〉 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결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 장소 · 결혼식 장소를 선택 기준 · 하객들에게 식사대접 여부 · 피로연 장소, 음식메뉴, 음식 가격
결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비용 지출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 비용,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비용, 결혼식 총비용(대관료, 피로연 비용, 답례품 등), 신혼여행 비용, 예단 비용, 예물 비용 · 결혼식 관련 각 절차 이행 여부 및 부담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혼식 총비용, 청첩장 제작 총비용, 신랑, 신부 가족 예단 비용, 신랑, 신부 예물 비용, 결혼식장 대관료, 꽃, 케익, 축포 등 부가적 물품 비용, 주례, 축가, 사회 등 사례비용, 피로연 총 식대, 답례품 비용, 신랑상, 신부상 비용, 폐백 관련 비용(폐백상 차림비, 도우미 인건비 등), 사진, 비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여행경비 및 선물비,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마련 비용, 신혼주택 마련 비용 등 · 결혼식 지출 총금액 · 결혼비용 부담 정도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객으로서 1년 동안 지출한 축의금 · 하객으로서 느끼는 결혼에 대한 부담 · 하객으로서 느끼는 제주의 겹부조 풍습의 필요성 및 필요/ 불필요 이유 · 우리나라 결혼문화에 호화사치 풍조가 있는 이유 · 하객으로서 느끼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문제점 · 결혼예식에서 각 항목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첩장, 예단(또는 예단비), 예물(또는 예물비), 스튜디오, 야외 등 리허설 촬영, 드레스(턱시도) 구입 및 대여,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 한복 구입 및 대여, 결혼식 이벤트(케이크 커팅, 노래, 공연 등), 피로연(하객접대), 결혼 축의금, 해외 신혼여행 · 하객으로서 느끼는 결혼문화와 관련된 인식 · 하객으로서 느끼는 결혼문화의 문제점
결혼관련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적인 결혼비용 · 선호하는 결혼식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방안 · 공공기관 무료(실비) 개방 예식장에 대한 인식 · 작은 결혼식 인지도 및 중요 요소 · 작은 결혼식 활성화 정책

다.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응답자는 총 505명이며, 이해당사자별로는 신부 30.1%(152명), 신랑 29.7%(150명), 신부측 혼주 20.4%(103명), 신랑측 혼주 19.8%(100명)로 신부와 신랑이 조금 더 많음

〈표 3-2〉 이해당사자별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자녀세대		부모세대		계
	신랑	신부	신랑측 혼주	신부측 혼주	
응답자 수	150 (29.7)	152 (30.1)	100 (19.8)	103 (20.4)	505 (100.0)

- 자녀세대는 30~39세(72.8%), 제주시 거주자(85.4%),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대 (26.8%), 가구자산 1억~3억원 미만(33.8%), 사무직(34.1%), 대졸(91.0%), 종교있음 (51.0%)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30~39세 72.8%, 20~29세 23.2%, 40~49세 3.3%, 50~59세 0.7%로 나타나 30대가 대부분임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85.4%, 서귀포시 14.6%로 제주시 거주자가 대부분임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599만원 26.8%, 300~399만원 25.9%, 200~299만원 19.2%, 400~499만원 17.4%, 600만원 이상 7.1%, 200만원 미만 3.6% 순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대와 300만원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일부 나타남
 - 가구자산별로는 1억~3억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천만원~1억원 미만 22.5%, 5천만원 미만 19.1%, 3억~5억원 미만 11.3%, 자산없음 6.8%, 7억원 이상 4.4%, 5억~7억원 미만 2.0% 순으로 나타남. 이 중 가구자산 1억원 미만은 총 48.5%임
 - 직업별로는 사무직 34.1%, 관리/전문/준전문직 27.0%, 판매/서비스직 14.9%, 군인/공무원 11.1%, 농임어업/기능/단순직 7.8%, 무직/학생 3.0%, 전업주부 2.0% 순으로 사무직과 관리/전문/준전문직이 주를 이룸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 9.0%, 대졸이상 91.0%로 대부분 대졸이상으로 나타남
 - 종교유무별로는 종교 없음 49.0%, 종교 있음이 51.0%로 종교가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3-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자녀세대	부모세대	
연 령	20~29세	70 (23.2)	0 (0.0)
	30~39세	220 (72.8)	0 (0.0)
	40~49세	10 (3.3)	0 (0.0)
	50~59세	2 (0.7)	86 (42.4)
	60~69세	0 (0.0)	110 (54.2)
	70세 이상	0 (0.0)	7 (3.4)
	계	302 (100.0)	203 (100.0)
거주지	제주시	258 (85.4)	172 (84.7)
	서귀포시	44 (14.6)	31 (15.3)
	계	302 (100.0)	20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 (3.6)	7 (5.4)
	200~299만원	43 (19.2)	22 (16.9)
	300~399만원	58 (25.9)	25 (19.2)
	400~499만원	39 (17.4)	16 (12.3)
	500~599만원	60 (26.8)	53 (40.8)
	600만원 이상	16 (7.1)	7 (5.4)
	계	224 (100.0)	130 (100.0)
가구자산	자산없음	20 (6.8)	1 (0.5)
	5천만원 미만	56 (19.1)	7 (3.6)
	5천만원~1억원 미만	66 (22.5)	12 (6.3)
	1억~3억원 미만	99 (33.8)	59 (30.7)
	3억~5억원 미만	33 (11.3)	40 (20.8)
	5억~7억원 미만	6 (2.0)	19 (9.9)
	7억원 이상	13 (4.4)	54 (28.1)
	계	293 (100.0)	192 (100.0)
직 업	관리/전문/준전문직	80 (27.0)	30 (15.8)
	사무직	101 (34.1)	8 (4.2)
	판매/서비스직	44 (14.9)	28 (14.7)
	농림어업/기능/단순직	23 (7.8)	27 (14.2)
	군인/공무원	33 (11.1)	11 (5.8)
	전업주부	6 (2.0)	69 (36.3)
	무직/학생	9 (3.0)	17 (8.9)
	계	296 (100.0)	190 (1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7 (9.0)	106 (53.0)
	대졸 이상	272 (91.0)	94 (47.0)
	계	299 (100.0)	200 (100.0)
종 교	종교 없음	148 (49.0)	39 (19.2)
	종교 있음	154 (51.0)	164 (80.8)
	계	302 (100.0)	203 (100.0)

- 부모세대는 60~69세(54.2%), 제주시 거주자(84.7%),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대 (40.8%), 가구자산 1억~3억원 미만 30.7%, 전업주부(36.3%), 고졸이하(53.0%), 종교 있음(80.8%)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60~69세가 5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59세 42.4%, 70세 이상 3.4%로 60대가 가장 많음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84.7%, 서귀포시 15.3%로 제주시가 대부분임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599만원이 40.8%로 가장 많고, 300~399만원 19.2%, 200~299만원 16.9%, 400~499만원 12.3%, 6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미만이 각각 5.4%로 가장 적음
 - 가구자산별로는 1억~3억원 미만이 30.7%로 가장 많고, 7억원 이상 28.1%, 3억~5억원 미만 20.8%, 5억~7억원 미만 9.9%, 5천만원~1억원 미만 6.3%, 5천만원 미만 3.6%, 자산없음 0.5%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세대와 달리 3억~5억원과 7억원 이상도 적지 않음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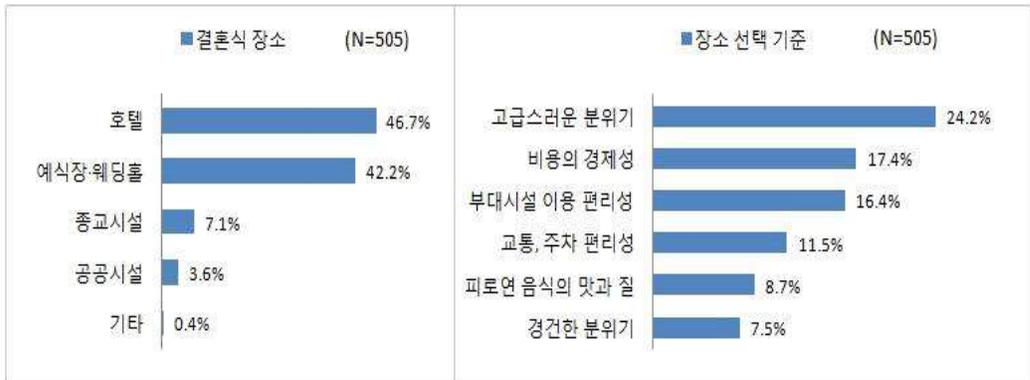
가. 결혼예식 및 결혼비용 부담

1) 결혼식 및 피로연

○ 결혼식 장소 및 선택 기준

- 결혼식을 올린 장소는 호텔 46.7%, 예식장·웨딩홀 42.2%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이나 예식장·웨딩홀을 결혼식 장소로 선택하였으며, 호텔을 선택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결혼식 장소의 선택 기준은 다른 요소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24.2%)'가 가장 영향력 있는 선택 기준으로 나타나 실리적 요소보다는 과시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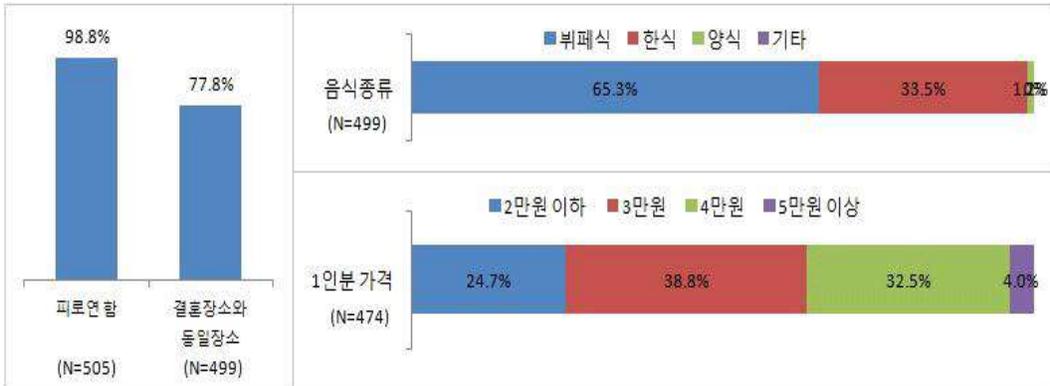
〈그림 3-1〉 결혼식 장소 및 장소 선택 기준



○ 결혼 피로연

- 응답자의 98.8%가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결혼식 피로연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연 장소는 77.8%가 결혼식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짐
- 피로연 음식은 뷔페식(65.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분에 3만원(38.8%) 또는 4만원(32.5%) 정도가 주를 이루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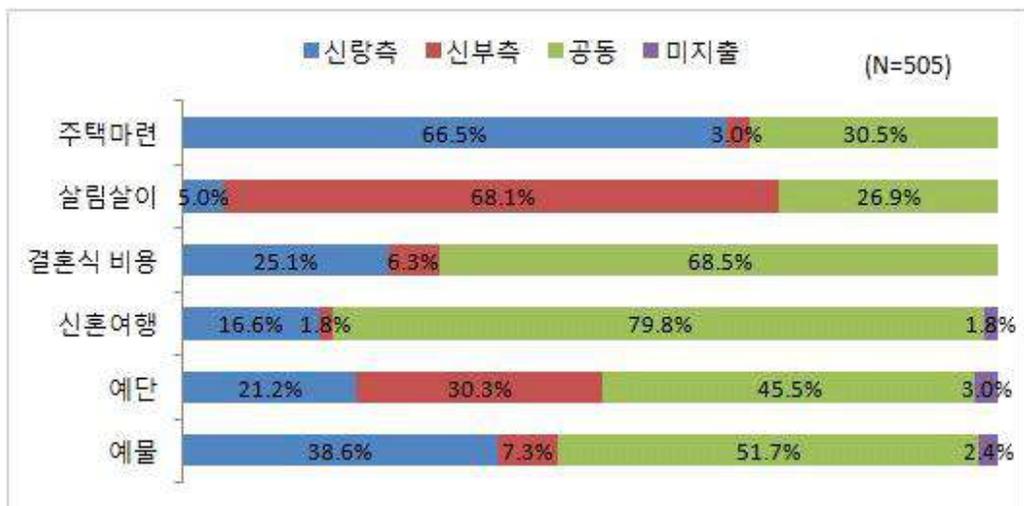
<그림 3-2> 결혼 피로연



2) 결혼비용의 부담

- 주택마련 비용은 주로 신랑측(66.5%)이, 살림살이는 신부측(68.1%)이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식 비용(공동 68.5%)과 신혼여행(공동 79.8%), 예단(공동 45.5%), 예물(공동 51.7%)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낮은 비율이지만 신혼여행(1.8%), 예단(3.0%), 예물(2.4%)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남

<그림 3-3> 결혼 관련 비용 부담자



3) 결혼 절차별 이행 여부 및 비용

□ 약혼식

- 약혼식은 이행 7.3%, 미이행 92.7%로 약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임
- 약혼식 평균비용은 평균 115.6만원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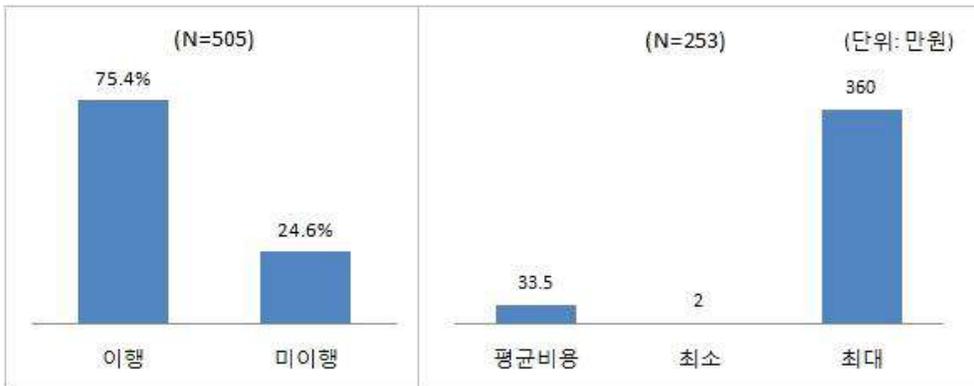
<그림 3-4>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약혼식



□ 청첩장 제작

- 청첩장 제작은 이행 75.4%, 미이행 24.6%로 이행률이 50.8%p 더 높게 나타남
- 청첩장 제작 평균비용은 평균 33.5만원으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6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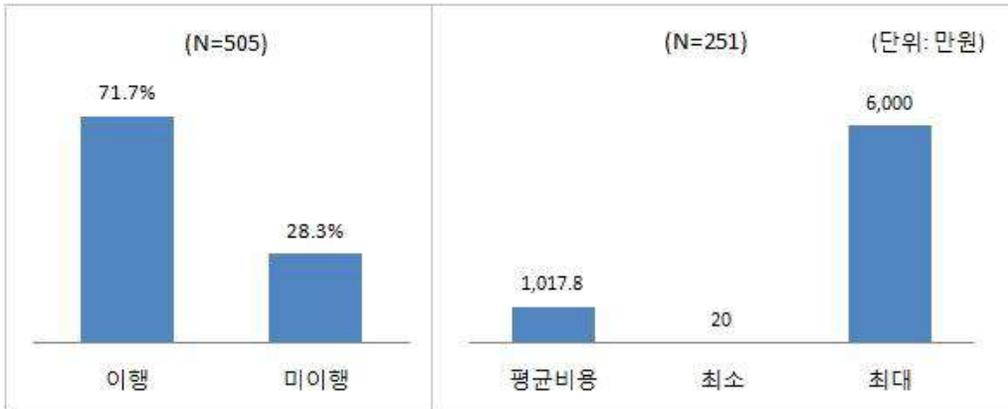
<그림 3-5>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청첩장 제작



□ 예 단

- 신랑·신부 가족 예단은 이행 71.7%, 미이행 28.3%로 이행률이 43.4%p 더 높게 나타남
- 신랑·신부 가족 예단 평균비용은 평균 1,017.8만원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신랑·신부 가족 예단 평균비용은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가구자산 3억~5억원 미만은 1,189.5만원, 1억~3억원 미만이 1,135.8만원으로 다른 자산구간에 비해서 부담비용이 높았고, 가구자산 1억원~3억원은 예단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3억~5억원 미만은 최대 3,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가구자산 규모에서는 가구자산 1억원 미만에서는 900만원 미만을 부담하였으며, 5억원 이상에서는 900만원 이상을 부담함

〈그림 3-6〉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예단



〈표 3-4〉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예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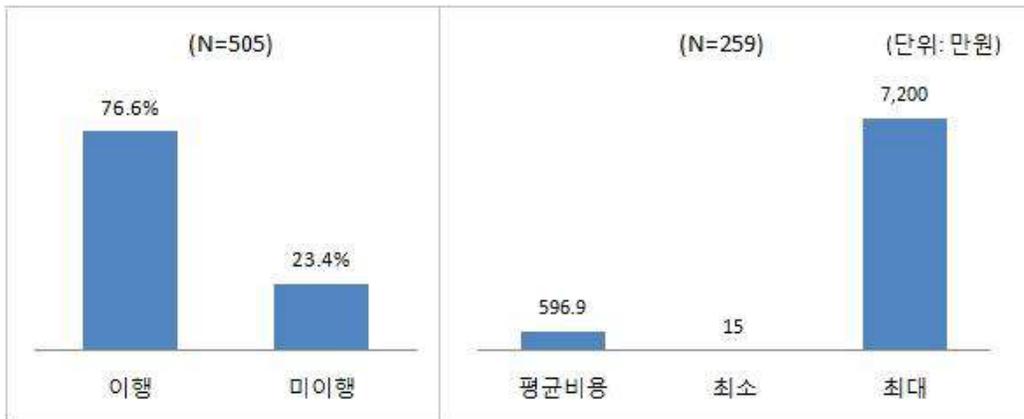
구분		평균비용	최소값	최대값	χ^2
예단 총비용		1,017.8	20	6,000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42.9	300	2,000	1.605
	200-299만원	847.3	100	2,000	
	300-399만원	1,111.7	30	5,000	
	400-499만원	714.2	20	2,000	
	500-599만원	1,097.6	100	3,000	
	600만원 이상	881.8	100	2,000	
	계	988.2	20	5,000	
가구 자산	자산없음	750.0	100	2000	2.141*
	5천만원 미만	858.1	20	2000	
	5천만원~1억원 미만	773.3	30	2000	
	1억~3억원 미만	1,135.8	50	5000	
	3억~5억원 미만	1,189.5	50	3000	
	5억~7억원 미만	900.0	200	2000	
	7억원 이상	945.7	200	2000	
계	997.8	20	5,000		

* p<.05, ** p<.01, *** p<.001

□ 예 물

- 신랑·신부 예물은 이행 76.6%, 미이행 23.4%로 이행률이 53.2%p 더 높게 나타남
- 신랑·신부 예물 평균비용은 평균 596.9만원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부담 예물 평균비용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자산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3-7〉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예물



□ 결혼예식

- 결혼예식 평균비용은 평균 1,948.7만원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2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예식 평균비용은 월평균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 결혼예식 평균비용은 300~399만원이 2,254.4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0만원 이상 2,012.5만원, 500~599만원 2,006.9만원의 순으로 2,000만원 이상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소득구간에서는 약 1,500~1,60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500만원대는 결혼예식 총비용으로 최대 8,2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결혼예식

(단위 : 만원)

구분		평균비용	χ ²		
			최소값	최대값	
결혼예식 총비용		1,948.7	50	8,250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570.0	750	2,850	3.036*
	200-299만원	1,594.4	200	5,430	
	300-399만원	2,254.4	50	6,346	
	400-499만원	1,627.4	270	4,000	
	500-599만원	2,006.9	50	8,250	
	600만원 이상	2,012.5	300	4,180	
	계	1,913.6	50	8,250	
가구 자산	자산없음	1,949.1	360	6,346	1.658
	5천만원 미만	2,047.5	250	8,250	
	5천만원~1억원 미만	1,720.2	50	4,800	
	1억~3억원 미만	1,966.9	200	6,340	
	3억~5억원 미만	1,815.6	50	3,500	
	5억~7억원 미만	2,035.8	450	3,350	
	7억원 이상	2,345.6	246	6,350	
	계	1,961.2	50	8,250	

* p<.05, ** p<.01, *** p<.001

○ 결혼예식 관련 세부 항목의 이행여부와 비용부담

- 결혼식장 대관은 이행 59.6%, 미이행 40.4%로 과반수가 조금 넘는 응답자들이 결혼예식을 위한 결혼식장 대관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식장 대관 비용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으로 평균 272.2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예식 부가물품은 이행 50.3%, 미이행 49.7%로 절반정도만 예식부가물품을 이용하였으며, 예식 부가물품 비용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평균 115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주례, 축가, 사회 등의 사례는 60.8%가 이행하였으며, 총 사례비용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평균 122.7만원을 부담함
- 답례품은 이행 51.7%, 미이행 48.3%로 절반정도의 응답자들만 답례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답례품 총비용은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평균 312.3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신랑상/신부상은 이행 22.0%, 미이행 78.0%로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랑상/신부상 총비용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평균 150.5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폐백은 이행 21.2%, 미이행 78.8%로 폐백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폐백 총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평균 125.5만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사진, 비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은 이행 85.1%, 미이행 14.9%로 결혼예식 요소 중 피로연 다음으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남. 사진, 비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총비용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평균 280.9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표 3-6〉 결혼예식 관련 요소 이행여부와 비용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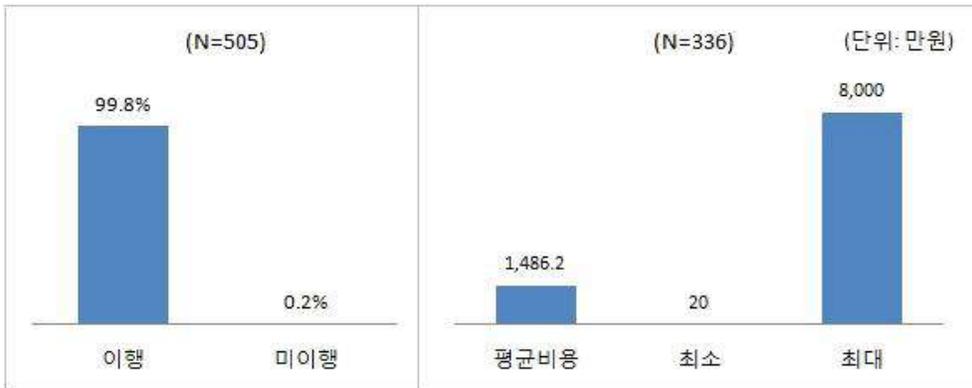
(단위 : %, 만원)

구분	결혼예식 관련 이행여부		결혼예식 관련 비용부담		
	이행	미이행	평균비용	최소값	최대값
결혼식장 대관	59.6	40.4	272.2	3	2,400
예식 부가물품	50.3	49.7	115.0	2	2,000
주례, 축가, 사회 등 사례	60.8	39.2	122.7	3	2,500
피로연	99.8	0.2	1,486.2	20	8,000
답례품	51.7	48.3	312.3	25	1,500
신랑상/신부상	22.0	78.0	150.5	20	2,000
폐백	21.2	78.8	125.5	10	1,000
사진, 비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85.1	14.9	280.9	30	3,000
총 예식비용	-	-	1,948.7	50	8,250

- 피로연 이행은 99.8%로 결혼 관련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이행률이 높은 항목임. 피로연 총비용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으로 평균 1,486.2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연은 결혼예식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비용 편차도 가장 큰 항목이었음
- 피로연 총비용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 피로연 평균비용은 300~399만원이 1,735.2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0만원 이상 1,667.9만원, 500~599만원 1,428.9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며, 200만원 미만이 1,127.3만원으로 가장 낮음
- 가구자산별 가구당 피로연 평균비용은 7억원 이상이 1,937.5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억~7억원 미만 1,542.1만원, 5천만원 미만 1,444.3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자산없음이 1,366.7만원으로 가장 낮음

〈그림 3-8〉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피로연



〈표 3-7〉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결혼예식 구성요소 중) 피로연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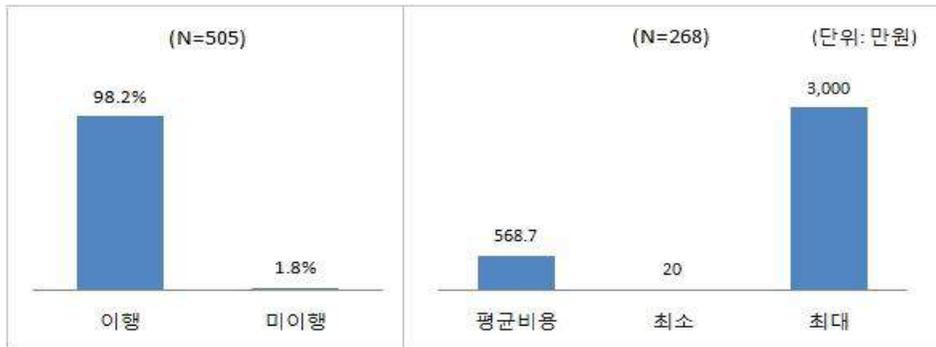
구분		평균비용	최소값	최대값	χ^2
피로연 총비용		1,486.2	20	8,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127.3	500	2,000	2.551*
	200-299만원	1,368.8	200	5,000	
	300-399만원	1,735.2	20	4,000	
	400-499만원	1,168.2	30	3,000	
	500-599만원	1,428.9	50	8,000	
	600만원 이상	1,667.9	200	3,800	
계		1,451.3	20	8,000	
가구 자산	자산없음	1,366.7	100	3,000	2.235*
	5천만원 미만	1,444.3	20	8,000	
	5천만원~1억원 미만	1,440.9	30	3,800	
	1억~3억원 미만	1,396.2	100	4,000	
	3억~5억원 미만	1,430.6	50	2,700	
	5억~7억원 미만	1,542.1	350	3,000	
	7억원 이상	1,937.5	400	5,000	
계		1,493.4	20	8,000	

* p<.05, ** p<.01, *** p<.001

□ 신혼여행

- 신혼여행 이행률 98.2%로 피로연과 하객초청에 이어 결혼관련 요소 중 이행률이 가장 높은 항목 중 하나임. 신혼여행 총비용은 평균 568.7만원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신혼여행 총비용은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399만원이 671.2만원으로 가장 높고, 500~599만원 607.1만원, 600만원 이상 493.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299만원이 397.4만원으로 가장 낮음

〈그림 3-9〉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신혼여행



〈표 3-8〉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신혼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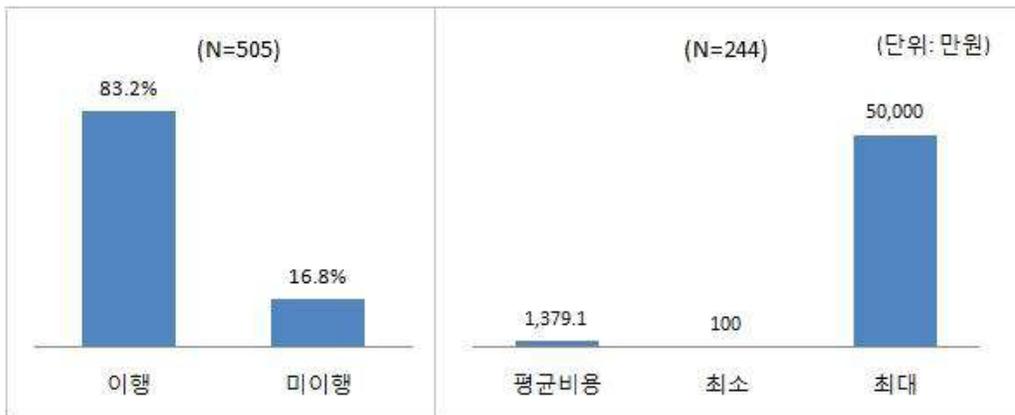
구분		평균비용	최소값	최대값	χ ²
신혼여행 총비용		568.7	20	3,000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16.7	150	1,000	3.159**
	200~299만원	397.4	40	1,000	
	300~399만원	671.2	50	3,000	
	400~499만원	435.0	25	2,000	
	500~599만원	607.1	20	1,500	
	600만원 이상	493.3	200	1,000	
계		554.7	20	3,000	
가구 자산	자산없음	712.0	120	3,000	1.528
	5천만원 미만	477.1	20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74.0	40	1,300	
	1억~3억원 미만	613.5	30	1,500	
	3억~5억원 미만	593.4	25	2,000	
	5억~7억원 미만	642.3	150	1,000	
	7억원 이상	574.2	100	1,000	
계		569.1	20	3,000	

* p<.05, ** p<.01, *** p<.001

□ 혼수

- 혼수는 이행 83.2%, 미이행 16.8%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전, 가구 등 살림살이 마련을 위한 혼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혼수 총비용은 평균 1,379.1만원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수 총비용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3-10〉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혼수(살림살이)



□ 신혼주택

- 신혼주택 마련은 이행 65.9%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신혼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남. 신혼주택 평균비용은 평균 14,188.6만원으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신혼주택 총비용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 평균비용은 500~599만원이 18,054.3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0만원 이상 15,722.2만원, 400~499만원 13,227.3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299만원이 7,912.5만원으로 가장 낮음
 - 가구자산별 가구당 평균비용은 7억원 이상이 25,583.9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억~7억원 미만 18,000만원, 1억원~3억원 14,262.3만원 등의 순이며, 자산없음이 7,628.6만원으로 가장 낮음

〈그림 3-11〉 결혼항목 이행 여부와 부담비용 - 신혼주택



〈표 3-9〉 결혼관련 항목 부담비용 - 신혼주택

(단위 : 만원)

구분		평균비용	최소값	최대값	χ^2
신혼주택 마련 총비용		14,188.6	70	50,000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783.3	700	20,000	3.353**
	200-299만원	7,912.5	200	50,000	
	300-399만원	11,031.3	500	30,000	
	400-499만원	13,227.3	1,500	30,000	
	500-599만원	18,054.3	70	50,000	
	600만원 이상	15,722.2	500	30,000	
	계	13,463.0	70	50,000	
가구 자산	자산없음	7,628.6	800	30,000	8.935***
	5천만원 미만	9,226.0	200	30,000	
	5천만원~1억원 미만	8,715.6	500	30,000	
	1억~3억원 미만	14,262.3	200	30,000	
	3억~5억원 미만	13,219.1	70	32,000	
	5억~7억원 미만	18,000.0	2,000	50,000	
	7억원 이상	25,583.9	1,400	50,000	
계	14,215.8	70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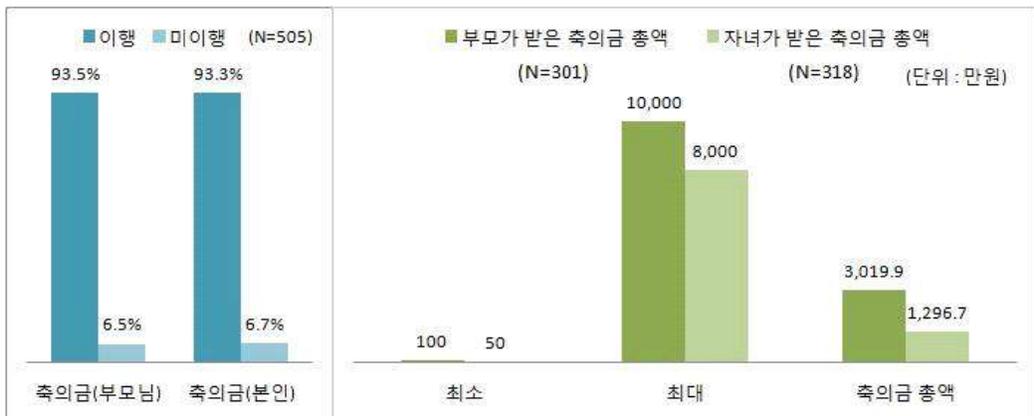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 축의금 및 하객규모

○ 축의금

- 축의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모와 자녀의 이행률이 각각 93.5%, 93.3%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받은 축의금 총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평균 3,01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받은 축의금 총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으로 평균 1,296.7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부모가 받은 축의금 총액은 3,019.9만원이며, 자녀가 받은 축의금 총액은 1,296.7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3-12〉 축의금 이행여부와 축의금 총액



○ 하객규모

-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 수는 부모 쪽 451.9명, 자녀 쪽 169.8명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전체 평균 474.3명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평균 하객 수는 최소 30명에서 최대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식에 참가한 하객 수는 월평균가구소득과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월평균 소득별로는 500~599만원이 497.4명으로 가장 많고 300~399만원이 458.8명, 200만원 미만 437.3명 등의 순이며, 400~499만원이 362.8명으로 가장 적음
- 가구자산별로는 7억원 이상이 561.3명으로 가장 많고, 자산없음이 328.6명으로 가장 적음

적었으며, 가구자산 5천만원 미만은 400명 미만, 3억원 미만은 500명 미만, 3억원 이상은 500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결혼식 참가 하객 규모



〈표 3-10〉 결혼식 참가 하객 규모

(단위 : 명)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χ^2
참가 하객 수		474.3	30	2,000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437.3	150	1,000	2.334*
	200-299만원	378.4	100	1,000	
	300-399만원	458.8	60	1,300	
	400-499만원	362.8	40	750	
	500-599만원	497.4	30	1,300	
	600만원 이상	393.7	100	700	
	계	435.6	30	1,300	
가구 자산	자산없음	328.6	60	850	3.187**
	5천만원 미만	350.9	80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46.6	30	1,500	
	1억~3억원 미만	486.1	30	1,300	
	3억~5억원 미만	519.6	100	1,300	
	5억~7억원 미만	509.1	100	1,000	
	7억원 이상	561.3	150	2,000	
	계	476.4	30	2,000	

* p<.05, ** p<.01, *** p<.001

□ 실제 지출한 결혼비용 총액

- 결혼식을 위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실제 지출한 총비용이 얼마인지를 질문한 결과, 결혼비용 총액은 부모 8,023.4만원, 자녀 4,402.8만원으로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하여 총 12,20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 총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60,00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지출한 결혼비용 총액은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가구자산별 지출 총액은 7억원 이상이 20,622.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억~5억원 미만 13,016.5만원, 1억~3억원 미만 11,739.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없음이 7,249.4만원으로 가장 낮음
- 결혼비용 지출 총액은 자산규모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달라짐. 세부 자산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1억 미만 자산규모의 지출 총금액은 1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7억원 미만 자산규모의 지출 총금액은 1억에서 1억 3천만원, 7억원 이상 자산규모의 지출 총금액은 2억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실제 지출 총금액



〈표 3-11〉 실제 지출 총금액

(단위 : 만원)

구분		평균금액	최소값		χ^2
			최소값	최대값	
총비용		12,205.5	500	60,006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822.4	3,000	32,000	2.109
	200-299만원	8,227.7	1,200	60,006	
	300-399만원	10,649.2	1,500	36,240	
	400-499만원	11,691.9	500	43,150	
	500-599만원	14,310.8	1,210	50,680	
	600만원 이상	11,559.3	1,520	37,420	
	계	11,531.0	500	60,006	
가구 자산	자산없음	7,249.4	2,557	21,650	6.395***
	5천만원 미만	9,854.0	500	36,240	
	5천만원~1억원 미만	8,888.7	1,200	43,150	
	1억~3억원 미만	11,739.5	1,000	57,950	
	3억~5억원 미만	13,016.5	1,870	37,278	
	5억~7억원 미만	10,693.8	1,600	43,300	
	7억원 이상	20,622.6	2,500	60,006	
	계	12,285.0	500	60,006	

* p<.05, ** p<.01, *** p<.001

3) 결혼비용 부담인식

○ 결혼비용 중 주택마련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결혼 관련 비용 부담인식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주택마련이 3.7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식 총비용 3.56점, 살림살이 3.33점, 예단 3.12점, 신혼여행 3.11점, 예물 3.02점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비용 부담인식은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조사된 총비용과 거의 일치함. 즉 지출한 총비용이 높을수록 부담인식도 높게 나타남

〈그림 3-15〉 결혼비용 부담인식과 평균비용



○ 결혼비용 부담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당사자는 신랑임

- 주택마련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결혼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신랑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마련 외에도 실제로 신부측이 더 많이 지출을 부담하는 가구·가전 등 살림살이 구입 비용을 비롯하여 공동부담이 더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도 신랑의 부담이 다른 이해당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3-12〉 결혼비용 부담인식

(단위 : 점/5점)

구분	자녀		부모		평균	N	F
	신랑	신부	신랑측	신부측			
주택마련	4.19	3.69	3.54	3.24	3.72	490	13.293***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3.47	3.39	2.92	3.39	3.33	486	7.155***
결혼식 총비용	3.72	3.59	3.32	3.53	3.56	503	3.713*
신혼여행	3.33	3.24	2.80	2.89	3.11	490	8.916***
예단	3.22	3.21	2.97	2.97	3.12	490	2.351
예물	3.20	3.14	2.81	2.79	3.02	486	5.589***

* p<.05, ** p<.01, *** p<.001

- 결혼비용 부담 요소 중 신혼여행, 예단, 예물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가구소득별 신혼여행비용 부담인식은 600만원 이상이 3.5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0~399만원 3.39점, 200만원 미만 3.27점 등의 순이며, 400~499만원 구간이 2.83점으로 가장 낮음
 - 가구소득별 예단비용 부담인식은 300~399만원이 3.4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299만원 3.27점, 500~599만원 3.17점 등의 순이며, 400~499만원이 2.83점으로 가장 낮음
 - 가구소득별 예물비용 부담인식은 300~399만원이 3.3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0만원 이상 3.22점, 200만원 미만 3.20점 등의 순이며, 400~499만원이 2.75점으로 가장 낮음
 - 400만원대 소득구간은 신혼여행, 예단, 예물비용 부담인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남
- 결혼비용 부담 요소 중 주택마련, 신혼여행, 예단, 예물에서 가구소득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가구자산별 주택마련비용 부담인식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4.0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 4.05점, 3억~5억원 미만 3.95점 등의 순이며, 7억원 이상이 3.00점으로 가장 낮음
 - 가구자산별 신혼여행비용 부담인식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3.5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억~3억원 미만과 3억~5억원 미만이 각각 3.24점, 5천만원 미만 3.05점 등의 순이며, 자산없음이 가장 낮음
 - 가구자산별 예단비용 부담인식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3.3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 3.25점, 1억~3억원 미만 3.22점 등의 순이며, 자산없음이 가장 낮음
 - 가구자산별 예물비용 부담인식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3.3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억~5억원 미만 3.14점, 5천만원 미만과 1억~3억원 미만이 각각 3.11점 등의 순이며, 자산없음이 가장 낮음
 - 전체적으로는 주택마련, 신혼여행, 예단, 예물비용 부담인식은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 미만이 5억원 이상보다 부담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억원 미만 자산구간 중 5천만원~1억원 미만의 부담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억원 이상 소득구간 중 주택마련은 7억원 이상이 가장 부담인식이 낮고, 신혼여행, 예단, 예물비용 부담인식은 자산없음이 가장 부담인식이 낮게 나타남

〈표 3-13〉 소득 및 자산별 결혼비용 부담인식

(단위 : 점/5점)

구분		주택마련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결혼식 총비용	신혼여행	예단	예물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87	3.67	3.93	3.27	3.13	3.20
	200-299만원	3.67	3.35	3.60	3.22	3.27	3.10
	300-399만원	3.99	3.35	3.63	3.39	3.47	3.33
	400-499만원	3.75	3.17	3.31	2.83	2.83	2.75
	500-599만원	3.76	3.38	3.54	3.17	3.17	3.19
	600만원 이상	3.91	3.35	3.91	3.52	3.00	3.22
	전체	3.81	3.34	3.58	3.21	3.19	3.14
	χ^2	.593	.753	1.926	2.849*	2.919*	2.404*
가구 자산	5천만원 미만	4.05	3.71	3.76	3.05	3.25	3.11
	5천만원~1억원 미만	4.08	3.48	3.79	3.55	3.35	3.33
	1억~3억원 미만	3.71	3.38	3.63	3.24	3.22	3.11
	3억~5억원 미만	3.95	3.29	3.53	3.24	3.19	3.14
	5억~7억원 미만	3.43	3.23	3.36	2.84	2.84	2.79
	7억원 이상	3.00	3.13	3.24	2.80	2.92	2.92
	자산없음	3.42	3.17	3.45	2.72	2.77	2.73
	전체	3.73	3.31	3.54	3.12	3.09	3.04
	χ^2	4.905***	1.550	2.086	6.414***	3.161**	3.047**

* p<.05, ** p<.01, *** p<.001

나. 축의금 및 결혼문화 관련 인식

- 조사대상자들에게 신랑·신부 및 혼주로서가 아니라 평소 하객으로서 축의금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결혼문화에 관한 인식을 질문하였음

1) 축의금 지출과 부담인식

- 최근 1년간 축의금 1회 평균 비용은 6만9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세대는 남성 6만1천원, 여성 5만6천원으로 평균 6만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자녀세대는 신랑 6만8천원, 신부 8만7천원으로 자녀세대의 1회 축의금 비용이 더 많았고, 특히 신부의 1회 평균 축의금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1년간 축의금 평균 지출 횟수는 총 22.4회였으며, 부모세대의 지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자녀세대의 축의금 지출 횟수는 신랑 18.1회, 신부 13.2회, 부모세대는 남성 37.7회, 여성 30.2회로 나타나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의 지출빈도가 평균 18회가량 더 많고, 자녀세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5회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평균 겹부조 지출 횟수는 총 8.9회였으며, 자녀세대보다는 부모세대의 지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자녀세대의 겹부조 지출 횟수는 신랑 7.3회, 신부 5.1회이며, 부모세대는 남성 10.9회, 여성 12.0회로 부모세대의 지출빈도가 더 높게 나타남

〈표 3-14〉 결혼 축의금 비용 및 횟수

(단위 : 만원, 회)

구분	자녀세대		부모세대		전체 평균	F
	신랑	신부	남성	여성		
평균 1회 결혼 축의금 비용	6.8	8.7	6.1	5.6	6.9	4.953**
결혼 축의금 지출 횟수	18.1	13.2	37.7	30.2	22.4	29.385***
겹부조 지출 횟수	7.3	5.1	10.9	12.0	8.9	10.769***

* p<.05, ** p<.01, *** p<.001

- 축의금 비용은 가구자산에서, 축의금 지출 횟수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가구자산별 평균 1회 축의금 비용은 자산없음이 12.4만원으로 가장 많고, 7억원 이상이 5.5만원으로 대체로 가구자산 규모가 클수록 평균 1회 축의금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구자산은 없지만, 월평균 가구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자산계층이 낮을수록 평균 1회 축의금 지출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월평균 가구소득별 축의금 지출 횟수는 500~599만원이 25.8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399만원 20.9회, 600만원 이상 20.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은 15.1회로 가장 적음
 - 가구자산별 축의금 지출 횟수는 7억원 이상이 29.6회로 가장 많고, 5억~7억원 미만 27.7회, 3억~5억원 미만 26.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천만원~1억원 미만이 15.7회로 가장 적음. 가구자산 규모 1억원 이상에서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축의금 지출 횟수도 증가함

〈표 3-15〉 월평균 가구소득별, 가구자산별 결혼 축의금 비용 및 횟수

(단위 : 만원, 회)

구분		평균 1회 결혼 축의금 비용	결혼 축의금 지출 횟수	겉부조 지출 횟수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3	15.1	10.7
	200-299만원	5.4	15.1	6.6
	300-399만원	6.5	20.9	9.7
	400-499만원	9.0	18.5	5.3
	500-599만원	7.5	25.8	9.6
	600만원 이상	7.6	20.1	5.4
	전체	7.0	20.8	8.3
	χ^2	1.691	2.897*	2.197
가구자산	자산없음	12.4	17.0	10.1
	5천만원 미만	8.2	17.2	7.3
	5천만원~1억원 미만	7.2	15.7	7.7
	1억~3억원 미만	6.8	22.6	9.8
	3억~5억원 미만	6.1	26.5	8.3
	5억~7억원 미만	6.2	27.7	7.4
	7억원 이상	5.5	29.6	9.1
	전체	7.0	22.4	8.8
	χ^2	3.041**	3.965**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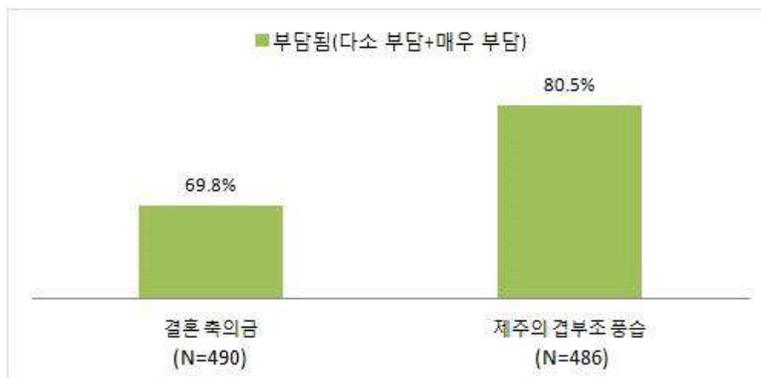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하객으로서 느끼는 결혼 부담인식

가) 축의금과 접부조 부담인식

- 하객으로써 결혼 축의금과 접부조 풍습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접부조 풍습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 축의금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69.8%이며, 제주의 접부조 풍습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80.5%로 축의금과 접부조에 대해 모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들이 많고 특히 접부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 축의금 및 접부조에 대한 부담 인식



3) 접부조 풍습 유지에 대한 인식

- 제주의 접부조 풍습 유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28.7%, 아니다 71.3%로 부정적 의견이 71.3%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필요한 이유로는 '집안이 아닌 개인 단위로 하는 제주의 수놓음 풍습이기 때문에' 60.7%, '제주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31.7%,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6%로 수놓음 풍습이 접부조 풍습 유지의 이유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 불필요한 이유로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61.7%,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풍습이기 때문에' 36.7%, 축의금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7%로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이유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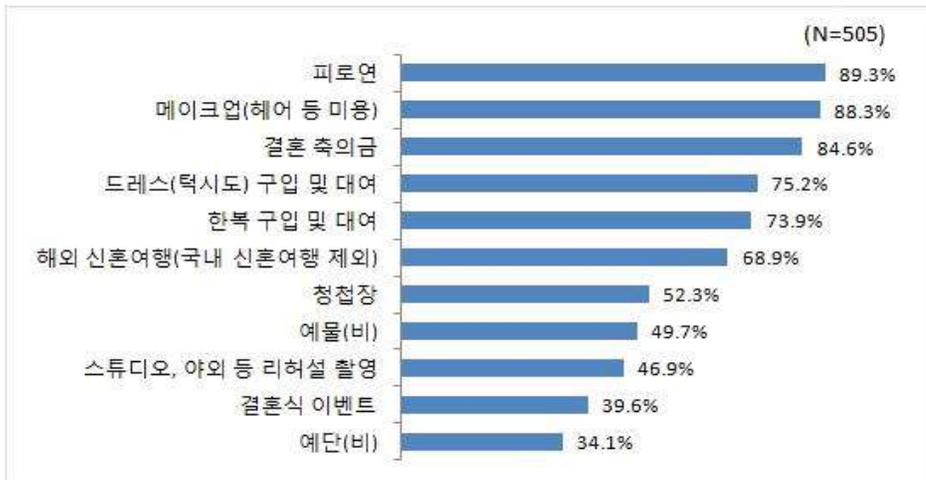
〈그림 3-17〉 제주의 겹부조 풍속 유지에 대한 인식



4) 결혼예식 항목별 필요도

- 결혼예식 항목 중 피로연, 메이크업, 축의금은 필요인식이 80% 이상으로 높고 결혼식 이벤트와 예단의 필요인식은 40% 이하로 낮음
- 결혼예식 항목 중 피로연(89.3%), 메이크업(88.3%), 축의금(84.6%), 드레스/턱시도(75.2%), 한복(73.9%) 등의 순으로 필요도가 높은 반면, 예물(49.7%), 리허설 촬영(46.9%), 결혼식 이벤트(39.6%), 예단비(34.1%)는 필요도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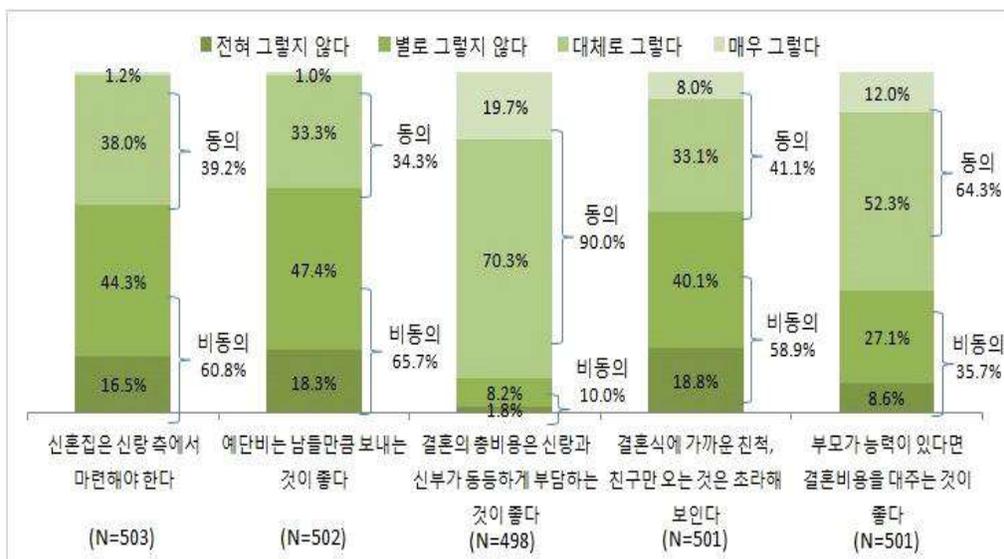
〈그림 3-18〉 결혼예식 항목별 필요도



5) 결혼문화와 관련된 인식

- 신랑 측의 신혼집 부담, 남들만큼의 예단비, 하객규모에 대한 외부적 시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고, 결혼비용의 공동부담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나 결혼문화 관련 인식 변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남
- ‘신혼집은 신랑 측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60.8%가 비동의하여 신랑 측의 신혼집 마련을 당연시하는 인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예단비는 남들만큼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65.7%가 비동의하여 외부적 기준에 의한 결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결혼의 총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90.0%가 동의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등한 결혼비용 부담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결혼문화와 관련된 인식



-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는 의견에 동의 41.1%, 비동의 58.9%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며,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자산규모가 7억원 미만에서는 '비동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7억원 이상에서는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7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식 참석자와 하객 규모를 다른 자산구간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동의' 비율이 더 높았던 7억원 미만 자산구간 중에서는 3억~5억원 미만이 55.6%로 다소 낮았지만 대부분 60.0% 이상의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만 오는 것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 64.3%로 경제적 능력 있는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해당사자,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이해당사자별로는 '동의'하는 비율이 신랑(52.0%), 신부(61.8%), 신부측 혼주(72.3%), 신랑측 혼주(78.6%) 순으로 나타나 자녀세대보다는 부모세대가 부모의 능력이 있다면 결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은 특히 신랑측 혼주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동의'하는 비율은 200만원 미만이 93.3%로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400~499만원 구간에서 52.7%로 가장 낮아졌다가 500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다시 증가함.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높은 '동의' 비율은 경제적 지원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의 '동의' 비율 증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구자산별로 '동의'하는 비율은 5억~7억원 구간이 7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7억원 이상 68.7%, 3억~5억원 미만 68.5%, 1억~3억원 미만 63.9%, 5천만원 미만과 자산없음 각각 61.9%의 순으로 나타났고, 5천만원~1억원 미만이 55.1%로 가장 낮음. 가구자산 3억원 미만보다 3억원 이상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부모의 현실적 지원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16> 결혼문화 관련 인식 :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비동의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
		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가구 자산	자산없음	23.8	38.1	61.9	23.8	14.3	38.1
	5천만원 미만	15.9	44.4	60.3	34.9	4.8	39.7
	5천만원~1억원 미만	17.9	43.6	61.5	30.8	7.7	38.5
	1억~3억원 미만	12.2	50.0	62.2	34.6	3.2	37.8
	3억~5억원 미만	25.0	30.6	55.6	25.0	19.4	44.4
	5억~7억원 미만	32.0	28.0	60.0	28.0	12.0	40.0
	7억원 이상	19.4	26.9	46.3	50.7	3.0	53.7
전체		18.0	40.5	58.5	34.0	7.5	41.5
χ^2		48.417***					

* p<.05, ** p<.01, *** p<.001

<표 3-17> 결혼문화 관련 인식 :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좋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비동의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
		않다	않다		그렇다	그렇다	
이해 당사자	신랑	12.0	36.0	48.0	47.3	4.7	52.0
	신부	7.9	30.3	38.2	50.0	11.8	61.8
	신랑측 혼주	7.1	14.3	21.4	62.2	16.3	78.6
	신부측 혼주	5.9	21.8	27.7	53.5	18.8	72.3
전체		8.6	27.1	35.7	52.3	12.0	64.3
χ^2		30.02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7	0.0	6.7	80.0	13.3	93.3
	200-299만원	3.1	28.1	31.3	50.0	18.8	68.8
	300-399만원	14.8	27.2	42.0	50.6	7.4	58.0

	400-499만원	9.1	38.2	47.3	36.4	16.4	52.7
	500-599만원	8.8	30.1	38.9	52.2	8.8	61.1
	600만원 이상	13.0	13.0	26.1	65.2	8.7	73.9
전체		9.4	27.9	37.3	51.0	11.7	62.7
χ^2		25.752*					
가구 자산	자산없음	28.6	9.5	38.1	47.6	14.3	61.9
	5천만원 미만	4.8	33.3	38.1	54.0	7.9	61.9
	5천만원~1억원 미만	6.4	38.5	44.9	44.9	10.3	55.1
	1억~3억원 미만	7.1	29.0	36.1	54.2	9.7	63.9
	3억~5억원 미만	11.0	20.5	31.5	54.8	13.7	68.5
	5억~7억원 미만	4.0	20.0	24.0	52.0	24.0	76.0
	7억원 이상	10.4	20.9	31.3	55.2	13.4	68.7
전체		8.5	27.4	35.9	52.5	11.6	64.1
χ^2		29.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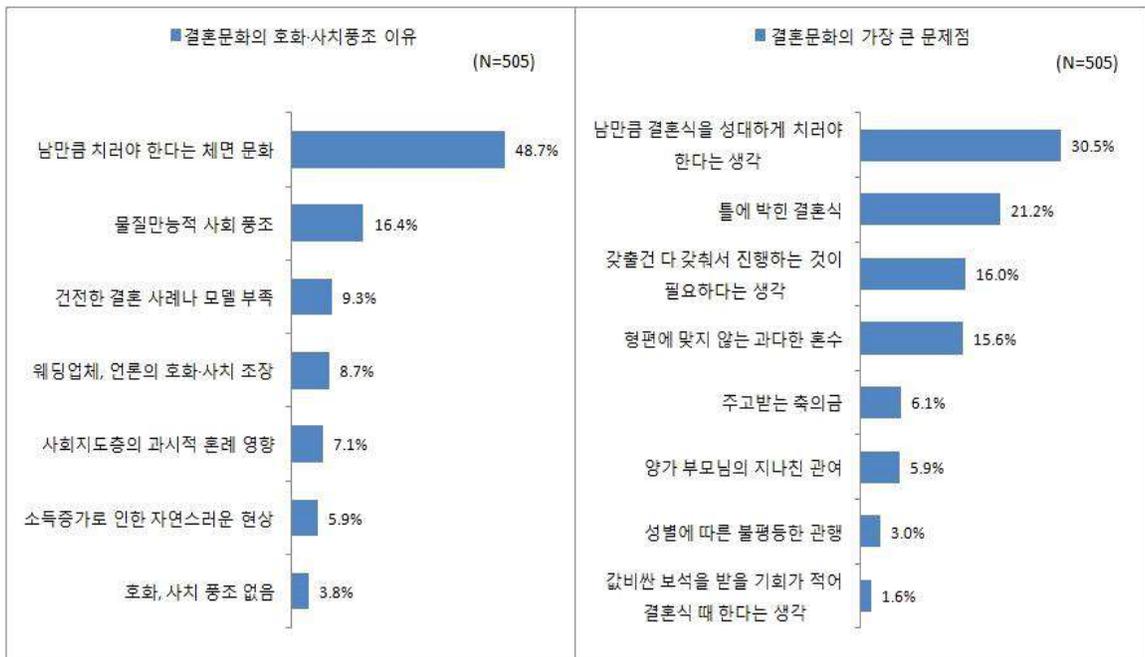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다. 결혼문화의 문제점

1) 결혼문화에 대한 호화·사치 풍조 이유와 문제점

- 결혼문화에 대한 호화·사치 풍조의 가장 큰 이유는 '남들만큼 치러야 한다는 체면 문화(48.7%)'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물질만능적 사회풍조(16.4%)', '건전한 결혼사례나 모델 부족(9.3%)', '웨딩업체, 언론의 호화·사치 조장(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만큼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30.5%)'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뜰에 박힌 결혼식(21.2%)', '갓출 건 다 갖춰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16.0%)', '형편에 맞지 않은 과도한 혼수(15.6%)'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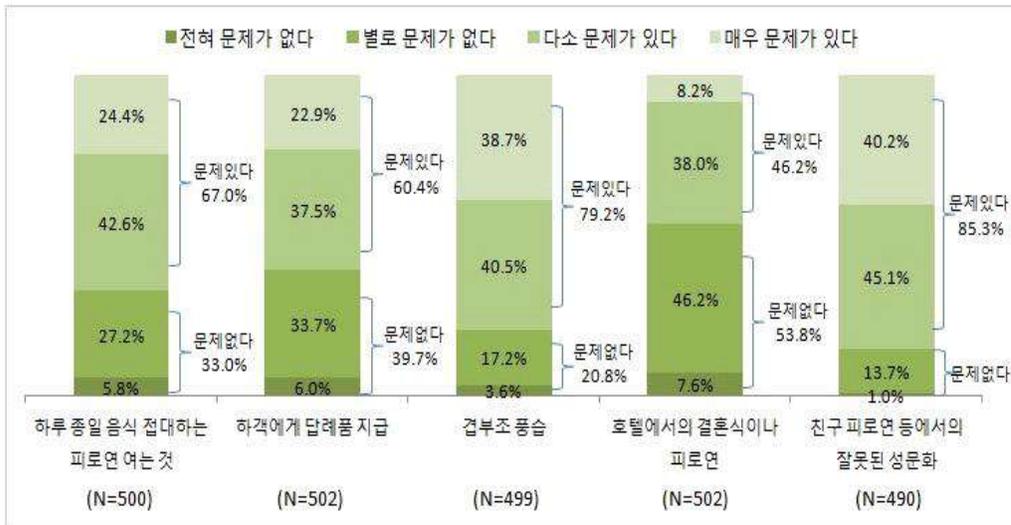
〈그림 3-20〉 결혼문화의 호화·사치 풍조 이유와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2) 결혼문화 문제 인식

- ‘문제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성문화, 겁부조, 종일 피로연, 답례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및 피로연 장소의 호텔 이용은 ‘문제없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문제 있다’는 응답은 ‘친구 피로연 등에서의 잘못된 성문화’ 85.3%, ‘겁부조 풍습’ 79.2%, ‘종일 음식 접대하는 피로연 여는 것’ 67.0%, ‘하객에게 답례품 지급’ 60.4%, ‘호텔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 46.2%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예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보다는 결혼을 둘러싼 관행적 요소에 대한 문제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21〉 결혼문화 관련 문제 인식



- ‘호텔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에 대해서는 ‘문제있다’ 46.2%, ‘문제없다’ 53.8%로 문제없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호텔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에 대해서 자산없음(52.4%)과 1억~3억원 미만(53.5%)은 문제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나머지 자산구간에서는 문제없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 중 5억~7억원 미만 자산구간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72.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8〉 결혼관련 문제 인식 : 호텔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비동의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
가구 자산	자산없음	0.0	47.6	47.6	33.3	19.0	52.4
	5천만원 미만	11.1	44.4	55.6	36.5	7.9	44.4
	5천만원~1억원 미만	7.7	50.0	57.7	35.9	6.4	42.3
	1억~3억원 미만	2.5	43.9	46.5	43.9	9.6	53.5
	3억~5억원 미만	19.2	38.4	57.5	31.5	11.0	42.5
	5억~7억원 미만	4.0	68.0	72.0	28.0	0.0	28.0
	7억원 이상	9.0	50.7	59.7	34.3	6.0	40.3
전체		7.9	46.5	54.3	37.2	8.5	45.7
χ^2		34.863***					

* p<.05, ** p<.01, *** p<.001

라.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위한 방안

1) 이상적인 결혼비용

○ 가장 이상적인 결혼비용은 1천만원~2천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신혼집을 제외한 이상적인 결혼비용은 1천만원~2천만원 미만 37.6%, 2천만원~3천만원 미만 24.9%, 500만원~1천만원 미만 17.5%, 3천만원~4천만원 미만 11.4% 등으로 1천만원대의 결혼비용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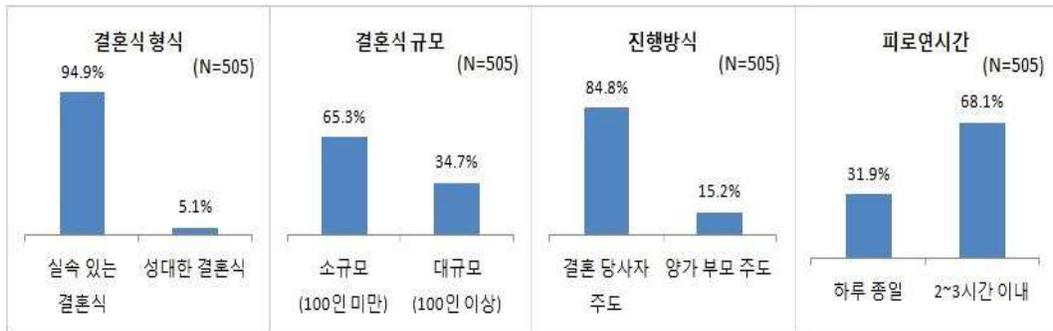
〈그림 3-22〉 이상적인 결혼비용



2) 선호하는 결혼방식

- 결혼방식은 '결혼당사자 주도'로 진행되는 하객 '100인 미만'의 '실속있는' 결혼식과 '2~3시간 이내'의 피로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결혼식 형식은 '실속있는 결혼식'이 94.9%, 결혼식 규모는 참석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결혼식'이 65.3%, 결혼진행 방식은 '결혼당사자 주도'가 84.8%, 피로연 시간은 '2~3시간 이내'가 68.1%로 나타남

〈그림 3-23〉 선호하는 결혼방식



3)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주요 요소

-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순위 요소는 ‘예단 및 예물 최소화’이며, 2순위 요소는 ‘하객에게 하루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 개선’으로 나타남
- 개선을 위한 1순위 요소로는 예단 및 예물 최소화 47.9%, 하객 줄이기 14.7%, 종일 피로연 문화 개선 14.3%, 결혼당사자 결혼비용부담 문화 10.5%, 실비(무료) 예식장 활용 7.3%, 겹부조 풍습 개선 5.3% 순으로 나타나 예단 및 예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2순위 요소로는 종일 피로연 문화 개선 25.3%, 하객 줄이기 16.9%, 겹부조 풍습 개선 15.7%, 결혼당사자 결혼비용부담 문화 14.7%, 예단 및 예물 최소화 14.1%, 실비(무료) 예식장 활용 13.3% 순으로 2순위 요소는 하객에게 하루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음

〈표 3-19〉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2순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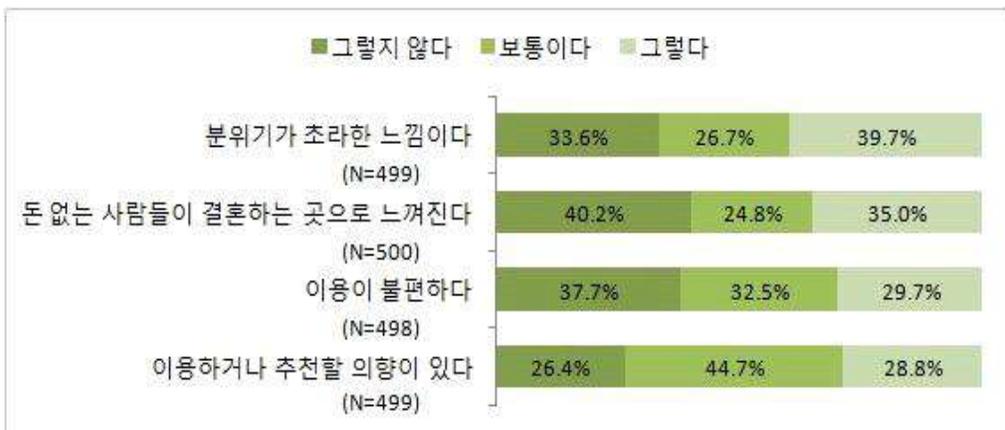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예단 및 예물 최소화	공공시설 등 무료예식장 활용	가까운 친척 및 친구 중심으로 하객 줄이기	결혼 당사자가 결혼비용 스스로 부담하는 문화	하객에게 하루 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	겹부조 풍습
1순위	47.9	7.3	14.7	10.5	14.3	5.3
2순위	14.1	13.3	16.9	14.7	25.3	15.7
합계	62	20.6	31.6	25.2	39.6	21

4)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인식

- 공공기관을 활용한 예식장에 대해 초라한 느낌(39.7%)을 가지거나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35.0%)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음. 또한 이용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37.7%에 불과하고, 이용 또는 추천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28.8%에 그쳐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려움
- '분위기가 초라한 느낌이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 33.6%, 보통이다 26.7%, 그렇다 39.7%로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 40.2%, 보통이다 24.8%, 그렇다 35.0%로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도 적지 않음
-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 37.7%, 보통이다 32.5% 그렇다 29.7%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도 적지 않음
- '이용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 26.4%, 보통이다 44.7%, 그렇다 28.8%로 이용 또는 추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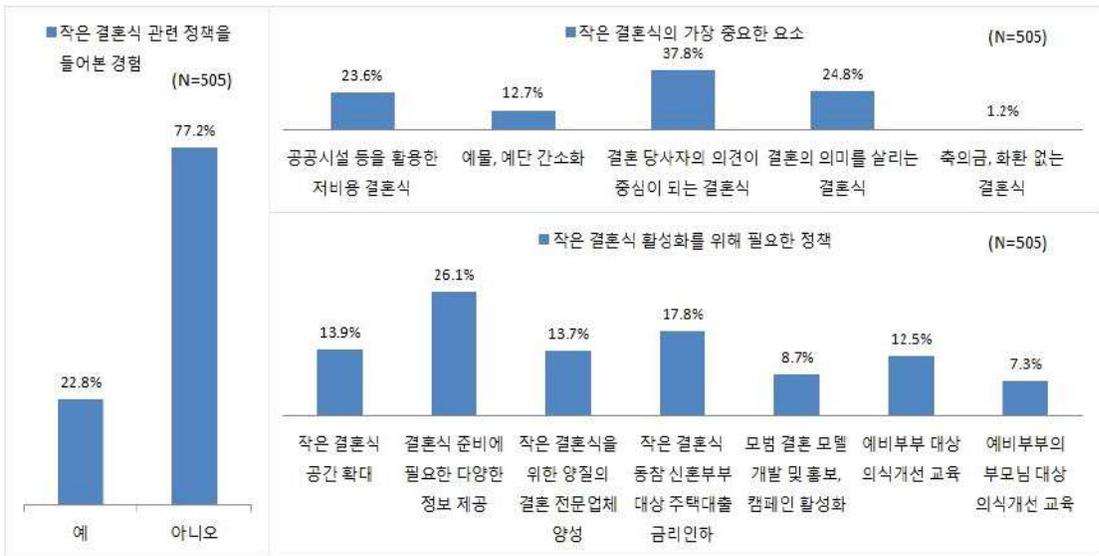
〈그림 3-24〉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인식



5)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결혼식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응답자의 77.2%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작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당사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결혼식'으로 나타남. 작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당사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결혼식' 37.8%, '결혼의 의미를 살리는 결혼식' 24.8%, '공공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결혼식' 23.6%, '예물·예단 간소화' 12.7%, '축의금·화환없는 결혼식' 1.2% 순으로 나타남. 다른 요소보다 결혼당사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나타남.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26.1%,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 대상 주택대출 금리 인하' 17.8%, '작은 결혼식 공간 확대' 13.9%, '작은 결혼식을 위한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양성' 13.7%, '예비부부 대상 의식 개선 교육' 1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5>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3. 요약 및 시사점

가. 조사결과 요약

1) 결혼예식 및 결혼비용 부담

- 결혼식의 88.9%는 호텔이나 예식장·웨딩홀에서 이루어지며, 경제성이나 편리성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장소 선택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결혼피로연은 77.8%가 결혼식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3~4만원 정도의 뷔페식이 주를 이룸
- 결혼비용의 주부담자는 신혼주택은 신랑측(66.5%), 혼수는 신부측(68.1%), 나머지는 공동지출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룸. 낮은 비율이지만 신혼여행(1.8%), 예단(3.0%), 예물(2.4%)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결혼관련 항목 중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인 항목은 피로연(99.8%), 하객초청(98.6%), 신혼여행(98.2%), 축의금 받기(부모 93.5%, 자녀 93.3%)이며, 미이행률이 더 높은 항목은 약혼식(92.7%), 폐백(78.8%), 신랑상/신부상(78.0%)으로 나타남
 - 항목별 부담비용은 신혼주택 14,189만원, 결혼식(피로연 포함) 1,949만원, 혼수(살림살이) 1,379만원, 예단 1,018만원, 신혼여행 568.7만원, 예물 597만원임
- 결혼식에 평균 474명의 하객이 참석하였고, 축의금 규모는 부모가 받은 축의금 3,020만원, 자녀가 받은 축의금 1,297만원이며, 실제 지출한 결혼비용 총금액은 12,206만원(부모 8,023만원, 자녀 4,403만원)으로 조사됨
- 결혼관련 비용부담 인식은 주요 항목 중 신혼주택 마련과 결혼식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비용 부담인식은 주요 항목 모두에서 신랑의 부담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자산별 주택마련, 신혼여행, 예단, 예물비용 부담은 가구자산 5억원 미만에서 더 크게 나타남. 신혼여행, 예단, 예물비용 부담인식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대인 집단이 가장 낮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집단에 따라 다름

2) 축의금 및 결혼문화 관련 인식

- 결혼축의금 문화
 - 평균 1회 축의금 비용은 6.9만원이며, 최근 1년간 축의금 지출 횟수는 22.4회, 겹부

조는 횡수 8.9회로 나타남

- 하객으로서의 결혼축의금과 겹부조에 대한 부담인식은 결혼축의금은 69.8%, 겹부조는 80.5%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축의금과 겹부조 모두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 중 겹부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겹부조 풍습 유지에 대한 인식은 불필요하다(71.3%)는 인식이 더 높았고, 가장 큰 불필요 이유는 큰 비용부담(61.7%)으로 나타났고, 유지가 필요(28.7%)한 이유로는 제주의 수놓음 풍습이기 때문(60.7%)이 가장 높았음
- 결혼식 항목 중 피로연, 메이크업, 축의금은 필요인식이 80% 이상으로 높고 결혼식 이벤트와 예단의 필요인식은 40% 이하로 낮음
- 결혼문화 관련 인식은 이중적 태도를 보임
 - 신랑 측의 신혼집 마련 부담 의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60.8%),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90.0%) 인식이 더 높음. 남들만큼의 예단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65.7%)는 인식도 높음
 - 하지만 적은 하객 규모는 초라해 보일 것(41.1%)을 염려하고, 능력있는 부모의 도움(64.3%)을 기대하는 비율 역시 높음

3) 결혼문화의 문제점

- 결혼문화의 호화·사치 풍조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만큼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48.7%)로 나타났으며,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들만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30.5%)으로 나타남
- 결혼문화와 관련하여 하루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67.0%), 답례품 지급(60.4%), 겹부조 풍습(79.2%), 피로연 등에서의 잘못된 성문화(85.3%)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호텔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46.2%)에 대한 문제인식이 다소 낮음

4) 합리적인 결혼문화 방안

- 합리적인 결혼비용은 1천만원~2천만원 미만(37.6%)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선호하는 결혼방식은 실속있는 결혼(94.9%), 100인 미만 소규모 결혼식(65.3%), 당

- 사자 주도 진행(84.8%), 2~3시간 이내의 피로연시간(68.1%)을 선호함
-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순위 요소는 예단 및 예물 최소화(47.9%), 2순위는 하객에게 하루 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의 개선(25.3%)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음
 - 초라한 느낌(39.7%),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35.0%), 이용불편(29.7%), 이용 및 추천의사 없음(26.4%)으로 나타남
 - 작은 결혼식 관련 정책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비율(77.2%)이 높음
 - 작은 결혼식에서는 결혼당사자의 의견(37.8%)과 결혼의 의미(24.8%)를 담는 것이 저비용(23.6%)과 같은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남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26.1%),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대상 주택대출금리 인하(17.8%), 작은 결혼식 공간 확대(13.9%)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시사점

1) 결혼문화 가치충돌과 높은 변화 가능성

- 제주지역의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가치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부의 시선과 체면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함
 - 결혼 문화의 호화·사치 풍조의 원인과 결혼문화의 문제점으로 “남들만큼”해야 한다는 체면문화와 인식이 지적되었지만, 실제로는 결혼식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경제성이나 편리성보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하루 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지만 피로연 이행률은 99.8%로 거의 모든 결혼식에서 피로연을 이행하고 있으며, 피로연 비용은 결혼예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00인 이하의 소규모 결혼식을 원하지만 가까운 친척과 친구만 오는 결혼식이 초라해 보일 것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음
- 결혼문화와 관련된 기존 가치의 변화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
 - 주요 결혼관련 요소 중 종일 피로연 문화, 답례품 지급, 겹부조 풍습에 대한 문제인

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중일 피로연 문화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고, 겹부조 풍습 유지의 불필요성 인식 역시 높음. 답례품의 경우는 이미 미이행률 48.3%로 다른 요소에 비해 이행률이 낮음

- 결혼 방식과 관련하여 실속있는 결혼, 100인 미만 소규모 결혼, 당사자 주도 진행, 2~3시간 이내의 피로연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음
- 조사결과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들은 제주사회가 기존 가치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결혼문화 개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결혼문화 개선의 장애물과 개선 방향

□ 결혼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의 제약

- 과시적 체면문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촉구
 - 높은 결혼비용 부담과 결혼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은 자리잡고 있지만 현재 자리잡고 있는 관습적 결혼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함
 - 중일 피로연과 겹부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개선요구는 드러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결혼문화 이행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다만, 과거와 달리 예단과 예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 사례의 1/4가량이 나타남
 - 사회적으로 결혼문화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좀 더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함
- 관습적 결혼문화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이해 관점의 변화
 - 결혼비용 부담인식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신랑의 부담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결혼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결혼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높은 결혼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자녀의 문제가 아닌 가족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임
 -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결혼문화는 개인적 관점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결혼이라는 사건을 가족사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의 성장이라는 관점의 개인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며,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분화라는 의미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

○ 공공기관 제공 무료(실비) 개방 예식장의 개선방향

- 결혼예식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이용은 3.6%에 그쳤으며, 결혼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실비)개방 예식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장소를 선택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경제성이나 편리성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무료(실비) 개방 예식장에 대해 초라한 느낌을 갖거나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음
- 저렴한 비용의 장소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예비부부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먼저 제주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장소 발굴이 필요함. 운영 방식으로는 부분이나 완전위탁을 통해 일반 웨딩홀만큼의 질 높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작은 결혼식 정책에 관해 들어본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 정책 홍보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당사자 의견 중심의 결혼식과 결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결혼식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개별 예비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결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가변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심층면접 조사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심층면접 개요

- 제주지역 결혼문화 및 결혼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결혼 당사자, 혼주 및 웨딩산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은 <표 4-1>과 같음
 - 혼인당사자는 여성 2명, 남성 3명으로 20대 후반~30대 중반의 연령대이고, 모두 제주가 고향임
 - 혼주는 여성 2명, 남성 1명으로 신랑측 2명, 신부측 1명이고, 모두 육지부와 사돈을 맺음
 - 웨딩산업 관련자는 웨딩홀에서 근무하는 1명 및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기업 대표 1명임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사례 번호	성 별	연 령	결혼년도	고 향	면접일시	비고
1	여	29	2016년	서귀포시	2018. 6.20	혼인 당사자
2	남	35	2018년	서귀포시	2018. 6.21	혼인 당사자
3	남	31	2018년	제주시	2018.6.23	혼인 당사자
4	남	31	2016년	서귀포시	2018.6.27	혼인 당사자
5	여	34	2018년	서귀포시	2018.6.28	혼인 당사자
6	여	57	2017년 ¹²⁾	제주시	2018.7.3	혼주(신랑측)
7	여	55	2015년	제주시	2018.7.12	혼주(신랑측)
8	남	52	2018년	서귀포시	2018.8.6	혼주(신부측)
9	남	44	-	제주시	2018.8.6	웨딩산업관련자
10	남	47	-	서귀포시	2018.8.4	웨딩산업관련자

12) 사례 6~8의 결혼년도는 면접대상자 자녀의 결혼을 의미함

○ 면접 기간 및 방법

- 면접 기간은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한달여 가량에 걸쳐 이루어짐
- 면접 대상자는 주변의 소개를 받은 분들 중,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연락을 취하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진행함
-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한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면접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음

○ 주요 면접 내용

- 혼인당사자 및 혼주 : 결혼의 전반적인 준비 과정, 가문잔치 및 당일잔치 등 제주지역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결혼비용 실태 및 인식,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성 및 세대 간 갈등 사례, 건전한 혼례 문화 정착 방안 등
- 웨딩산업 관련자 : 최근 결혼 트렌드의 변화, 타지역과 제주의 결혼 현황 비교, 결혼 문화의 문제점, 건전한 혼례 문화 정착 방안 등

2. 심층면접 결과

가. 결혼예식, 결혼비용 및 정보

1) 예식 장소 및 피로연

□ 예식 장소 선택기준 및 호텔 선호 이유

○ 결혼식장 선택 기준

- 혼인 당사자가 기독교인일 경우 장소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거의 '교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사례 1】, 【사례 3】)
-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객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이나 주차가 편리한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찾으려니 원하는 식당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교통과 주차가 편리한 곳이 그 호텔이어서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하객이 결혼식장을 오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니까요. 식사나 그 외의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통이 제일 중요했어요. 【사례 2】

○ 예식장보다 호텔을 더 선호하는 이유

- 집에서 치러지던 3일 잔치, 일뤼잔치 등의 제주지역 결혼문화가 웨딩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일부 흡수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굳어짐
- 이는 다양한 웨딩홀 인프라의 부재, 미디어의 영향, 호텔 서비스 및 뷔페에 대한 선호도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어떤 직업군이면 어느 정도 호텔에서 해야 한다는 체면의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예체능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고 봐요. 가상 결혼과 같은 요소가 예체능과 접목되었죠. 거기서 소개된 내용은 대부분 전통혼례가 아니라 호텔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은 저런 곳에서 한다는 로망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전원예식장이나 일반 가든, 회관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역전현상이 나타나 그곳은 도태가 되었고.... 호텔

결혼식이 급격하게 대두된 시기가 미디어의 제공과 거의 맞물려 있다고 봐요.... 아마 2005년 이내인 2000년 초반일 거예요. 그 시기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000호텔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결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례 9】

제주도는 원래 3일 잔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집에서 차리지도 않고, 돼지도 잡지 않죠. 식당에서 잔치를 치루는 문화가 생긴 것만도 예전에 비해선 편해진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이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게..... 호텔은 식대도 비싸고 값어치를 못해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호텔이 분위기도 좋고 뷔페가 잔치를 증명하는 음식이라 손님 대접하는데 손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았어요.... 요즘은 교사는 다들 000호텔이나 O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렇지 않으면 OO호텔에서 올리죠. 【사례 6】

□ 친구 피로연에 대한 인식

○ 친구 피로연이나 총각파티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친구 피로연의 경우는 신랑측 친구들이 미혼의 신부측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사회적 인식 및 왜곡된 성적인 놀이 문화로 인해 신부측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총각파티의 경우 여가문화 콘텐츠 부족으로 단순 음주, 화투 등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응답자들은 이러한 행사를 의미도 필요도 없는 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배제하고자 하였음

힘담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을 위한 피로연을 하지 않았어요.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했어요. 그런데 오빠 친구들이 친구들 피로연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왜 또 피로연을 하느냐고 답했어요. 제 친구들은 그런 것으로 힘담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자의 경우는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사례 1】

친구 피로연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술게임이 많을거라고 남자들이 기대해요. 저도 처음엔 제 친구들을 믿지 못하고 괜히 걱정했어요. 아내의 친구들을 자리에 데려오긴 했지만 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니까요. 【사례 3】

결혼 뒤풀이라고 해서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거나 없어졌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사례 5】

2) 결혼 비용

□ 축의금

○ 결혼 축의금에 관한 인식은 부정과 긍정이 공존함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축의금에 대해 '뿌린만큼 거둬야 한다' 와 '받은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결혼당사자들은 하객을 적게 초청하여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 하더라도, 하객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손님이기 때문에 축의금이 축소되는 상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함
- 이러한 강제성에 따른 부담감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수놓음 문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도 나타남

결혼식 하객은 대부분 부모님 손님이잖아요...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부조를 워낙 많이 하셔서 결혼식을 크게 하길 원했어요. 【사례 4】

축의금 문화는 공적 부조가 아닌 민간 부조예요. 이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결혼하는 분들이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해요. 【사례 2】

○ 관계의 의미에 따른 축의금 지출 규모 및 범위 결정

- 결혼당사자 세대는 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축의금 금액을 대략 정해 놓고 지출하고, 받은 축의금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받은 축의금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먼저 축의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관행대로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금액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친하지 않아도 5만원, 친하면 10만원을 축의금으로 내요. 그리고 한 달에 많을 때면 4~5번 결혼식이 있으니 약 30만원을 지출하는 셈이죠....저는 컴퓨터에 정리를 했어요. 혹시라도 빠트리면 안 되니까요. 【사례 4】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해요. 지금 나와 친밀한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나와 친밀해질 사람인가를 고민하죠... 누가 관혼상제가 있다면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에요....(안가는 것이) 부

담도 되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사례 3】

□ 예단비

○ 제주 특유의 혼인 관행으로 여전히 지속

- 타 지역의 예단비는 여가에서 남가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제주에서는 남가에서 여가로 보내고 여가에서는 받은 예단비의 50% 정도를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신부측에서는 예단비를 '딸 판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단비를 오히려 강하게 고수하는 것은 신랑측 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강박관념이나 체면치레 등으로 풀이됨

상견례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시댁에 예단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시댁은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천만 원이라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 돌아오고 부모님께 어째서 예단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조금은 화를 냈어요... 신랑측이 집이나 예단비처럼 돈을 많이 부담하는 게 저는 신부 측이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구걸해서 돈을 받고 시댁에 들어가면 그만큼 일을 부리겠다는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례 1】

부모님께서 신부쪽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도 반드시 예단비 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들이 다 하니 자신도 해야 한다는... 예의나 체면일 거예요.....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그러한 경향이 강해요. 서귀포는 아직도 그러한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전통이라면 전통이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문화도 바뀌어야 하는데 필요성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사례 2】

○ 경제적 사정이나 문화 차이에 따른 절충

- 결혼준비를 위한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예단비를 생략하고 주택마련에 집중하는 등의 선택이 나타나기도 함
- 육지사돈의 경우에는 서로 안주고 안받기 등과 같은 절충형태가 나타남

저희는 아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당장 집을 사줄 형편이 아니라서 신랑신부가 전세금을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단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례 6】

□ 혼수 및 주택마련 비용

○ 혼수는 신부측에서, 주택은 신랑측에서 준비하는 것은 관행으로 지속됨

- 신랑측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신랑신부가 주택비용을 같이 준비하기도 하나 이런 경우 주변의 시선이나 간섭 등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세대 간에 있어서도 부모가 주택자금 전체를 다 마련해주는 경우보다는 일부를 마련해 주고 나머지를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모님께서 사신 거고 저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비용마저 부탁하면 나쁜 아들이죠. 【사례 2】

일단 주택의 절반은 부모님께서 해주셨지만, 나머지 절반의 대출금은 제가 갚고 있어요. 【사례 4】

○ 신혼부부 관련 주택정책 반드시 필요

- 제주지역 주택비용이 너무 급등하여 부모나 자녀세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남자들이 집을 마련하면 그것에 대해 여자가 부담을 느껴야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도 각각 절반을 부담해야 맞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주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시댁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모두 해결할 수 없어요. 【사례 5】

□ 신혼여행

○ 신혼여행 기간과 비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임

- 결혼 당사자들은 신혼여행에 대해 일생에 한번 뿐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기간은 대체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로 설정하여 유럽 등지를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으로 다녀오고 있으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 외국여행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시간이 촉박하여 패키지로 다녀온 경우에는 요금이 비싸고 추가 요구가 많아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신혼여행은 일생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여행이길 바랐어요. 【사례 1】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니 이왕이면 잘 다녀와야죠....그리고 그 순간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굉장히 좋은 호텔에 머무는 등 그곳에서 그때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400만원을 들여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사례 2】

□ 결혼준비 정보

- 결혼 당사자들은 결혼준비에 관한 정보를 주로 먼저 결혼한 자매나 친구들 그리고 SNS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신랑보다는 주로 신부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일명 “스드메”로 일컬어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는 결혼 준비 기간이 촉박한 경우 웨딩박람회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리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웨딩박람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현금만 받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함

신부의 언니가 먼저 결혼식을 했기에 동생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말해 주고 신부 본인도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먼저 말해줬어요. 【사례 6】

웨딩박람회를 가면 정보를 한 군데서 알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용도 박람회가 저렴하니까요. 그 대신 현금으로 내야 하는 부분은 불편해요. 【사례 5】

나. 제주지역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1) 잔치 문화에 대한 인식

□ 가문잔치 및 피로연

- 가문잔치는 부모님의 잔치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
 - 일뤼잔치나 3일잔치의 풍습 중에 가문잔치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식 전날 혼주의 고향집이나 근처 시설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풍습으로, 제주시까지 결혼식 참석이 어려운 하객 배려를 위한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축의금 회수, 자녀의 결혼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문잔치는 결혼당사자 보다는 혼주의 의견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됨

아내 쪽은 당일 잔치를 했고 저는 전날 잔치를 했어요. 부모님이 부조를 회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결혼식 참석차) 오기 어렵기도 하고요. 【사례 2】

결혼식 전날 고향인 동흥동에서 잔치도 했어요. 그것도 원래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뿌린 것을 거두길 원하셨거든요. 【사례 1】

○ 결혼식장이 도외인 경우 “피로연”이라는 용어로 변형되어 나타남

- 결혼식이 도외에서 치러져서 결혼식 전날에 가문잔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결혼식 2~3주를 전후해서 시설을 빌려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형태로 나타남
- 피로연의 목적인 가문잔치와 비슷하게 하객 배려, 축의금 회수, 결혼사실을 주변에 알림 등으로 나타남

애들이 육지에 거주하다보니 거기서 결혼식을 해도 전날잔치는 제주도에서 했어요...제주도는 아이를 판다고 홍보도 해야 하니깐요. 잔치는 결혼했다고 알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 먹으라고 육지까지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죠....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럴잖아요? 지금까지 잔치에서 부지런히 얻어먹고 밥 한 끼 사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잔치를 하게 되면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 부탁하면서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이 예의예요. 【사례 8】

□ 당일잔치

○ 하루종일 치르는 당일잔치 관행 지속 이유

- 아쉬움 없이 대접하려는 이유와 더불어 하객이 편리한 시간에 결혼식에 언제든 올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의 문화
- 잔치에는 오래 있어야 정성을 보인다는 제주사회의 인식이 나타남

제주도 문화 중 하나가 사람을 대접했을 때 아쉬움이 없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생업이 있어 참석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간을 늘리는 것 같아요. 【사례 1】

제주도는 자리에 오래 있어 줘야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왔다가 얼굴만 비치고 가면 “나한테 기본 나쁜 일이 있나?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나?”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친척들 많은 집이면 크게 상관없지만 자기랑 각별한 사람이면 1~2시간 이상 있다가 가려고 하죠. 【사례 9】

○ 당일잔치의 문제점

- 신랑신부의 경우 육체적 피로도를 많이 호소하였으며, 또한 결혼식 끝나고 바로 신혼여

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주에서 1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함

- 당일잔치의 음식은 대부분 뷔페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음식이 공기 중에 노출되다 보니 위생상의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잠재하고 있음
- 당일잔치 비용이 결혼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 쓰레기 발생과 같은 환경적 문제도 제기됨

□ 신랑상신부상 및 이바지

○ 의미와 실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남

- 대례가 따로 없이 상을 받는 것으로 결혼의 절차가 완성되는 제주전통 혼례에 따라, 서양식으로 결혼형식이 변화되었어도 신랑상과 신부상 및 폐백의 문화가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신랑상과 폐백 문화가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신부상의 경우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바지의 경우 타지역에서는 신부측의 큰 부담이 되는 비합리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부에서는 관행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온 반면, 제주는 호화로운 완제품이 아닌 식재료 위주의 실리적인 문화인 것으로 나타남

저는 (신랑상이나 신부상)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신부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호텔에 공간을 마련해서 신부 친구들이 왔죠. 그렇지만 저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사례 4】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가면서 돼지고기를 가져갔어요. 우리 올케는 전복을 가져왔었어요....그냥 재료를 조금 사서 가게에서 포장된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사례 5】

2) 축의금 문화에 대한 인식

□ 겹부조 및 부신랑·부신부 문화

○ 제주지역 축의금은 家·家 형태가 아니라 개인간 부조임

- 친척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축의금을 전달할 때,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을 대표하여 혼자 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같은 성별에게 부조하는 개인간 부조의 구조임
- 겹부조라는 의미는 한명이 여러 명에게 하는 방사형의 의미라기 보다는 개인간 평행형

의 의미로 여겨짐

○ 제주 특유의 축의금 문화는 세대간 매우 개별적인 관리라는 것임

- 타 지역에서는 축의금 접수를 일원화 하여 일가친척 중에 한 명이 접수대에서 대표로 받는 반면, 제주는 대부분 혼주와 결혼 당사자가 하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직접 받는 형식임
- 받은 축의금에 대해 세대간 매우 독립적으로 각자의 몫을 지출 및 관리하고, 서로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님 손님은 전날 잔치에 거의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당일 날은 두세시 경에 집으로 가셨어요. 전날 잔치 대부분의 하객은 부모님 하객이니까 부모님께서 식대를 내셨고, 당일은 제 하객이 많아서 제가 지출했어요. 각자 자기가 받은 부조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례 2】

○ 축의금 문화에서 비롯된 부신랑·부신부 문화

- 축의금을 결혼당사자가 직접 받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부신랑, 부신부 문화가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개별적인 축의금 관행이 지속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부신랑과 부신부에게도 수고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친구나 친척이 도와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제주지역 문화가 드러남

저는 도와준 친구가 2명이라 둘에게 각각 30만원을 줬어요...부신랑의 가장 큰 역할은 부조를 관리하는 거예요. 신랑이 직접 챙길 수 없으니까요. 또 결혼식에서 제 보좌도 해주고 친척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부름을 해요. 그 심부름을 돌이켜 나눠서 했죠. 그 둘에게 미안해서 대가를 줬어요. 【사례 4】

다.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갈등

1) 성역할 갈등

○ 성고정화된 결혼비용 분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변의 시선

-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라는 성고정화된 비용 분담을 하지 않는 경우, 주변의 시선

과 간섭이 신랑신부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함

- 또한 신랑 본인이 성역할 고정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신부는 이중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됨

제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더러 남편에게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사람들이 간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보다 예비부부에게 어떻게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냐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 1】

결혼 비용은 저희 부부 둘이 같이 부담했어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남편과 갈등이 있었어요.....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남편 본인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 결혼 준비 당시 남편은 모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비용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어요....제가 돈이 더 많이 나갔는데도,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남자가 못하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저는 비용도 더 부담하는데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례 5】

- 신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가(女家)에게 양보하라’는 신랑측의 메시지가 예단비처럼 배려가 아닌 차별로 인식되기도 함

결혼을 준비할 때 무조건 신랑이 신부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보통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여자한테 양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례 1】

- 기존의 성고정화된 역할에 대한 변화 시도들이 나타남

- 주례는 여성이, 부케는 남성이 받고 사회는 공동으로 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양식 예복 대신 개량 한복이나 원피스 등의 변화도 감지됨

결혼을 준비하면서 성차별적인 점은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례는 남성이어야 하고 부케는 여성이 받아야 하는 것 등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하지 않았어요. 입장도 동시에 하고요. 하객들이 재미있어하시고 만족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사례 2】

2) 세대간 갈등

- 과연 결혼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아직까지 부모세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어, 이것이 결혼준비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 세대는 하객을 우선으로 결혼을 진행하고자 하며, 자녀 세대는 본인들이 주인공이므로 그 의미에 맞게 진행하고 싶어 함. 하객 중심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관행을 많이 따르게 되고, 신랑신부가 중심이 될 때는 의미나 실리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버지 하객이 70%예요. 결혼식을 작게 할 수가 없었죠. 또 부모님 모두 70대 옛날 분이라 해야할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결혼은 당연히 남자가 다 준비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례 5】

○ 세대간 절충안 도출

- 가문잔치는 부모의 뜻대로 하되, 신랑신부상, 폐백 등의 생략은 자녀 세대의 뜻대로 하는 등 세대간 절충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는 사례도 나타남
- 젊은 혼주(50대)의 경우 자녀 세대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주 세대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임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결혼 스타일이 있죠. 그것을 말리거나 반대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따랐어요. 결혼식과 관련된 것만 빼고요. 【사례 2】

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조리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시켜보니 신랑과 신부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개 자녀의 결혼식이어도 부모님의 의견을 내세우잖아요? 그렇지만 자녀의 의견을 받아줘야 하죠. 【사례 6】

라. 합리적인 결혼문화

1) 결혼문화 개선점 및 대안적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결혼문화 개선점

○ 개선하거나 없애야 할 것

- 스튜디오 촬영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하객수 및 결혼시간은 줄이는 것

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 예단비는 없애고 축의금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며, 모든 결혼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응답하였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해서 잔치를 보지 못하게 하나며 험담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들을 결혼 시켜보니 육지 결혼 문화가 좋았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적응을 한다면 간단한 결혼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7】

서울 양재동에 있는 가정 지방 법원에서 올렸는데, 법원도 2시간 간격으로 결혼식을 하더군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제주도는 결혼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서 결혼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비용도 절감되고요. 【사례 6】

어쨌든 부조 문화가 없어져야 해요. 부조 문화 때문에 결혼 문화를 축소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크죠. 【사례 7】

□ 공공예식장 및 작은 결혼식 관련 인식

○ 관공서 활용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관공서에 대한 선입견 및 부담이 있어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예식 장소 이용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불편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았음
- 제주라는 환경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예를 들어, 돌문화공원, 절물자연휴양림, 4·3평화 공원 등)이라면 공공예식장으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단, 신랑신부가 예식장을 꾸미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인프라가 있기를 원함

절물휴양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곳이 제주의 특색을 살리면서 결혼할 수 있는 장소 같아요. 그런 곳에서 결혼할 수 있다면 너도나도 그곳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사례 3】

도청이나 시청은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도청이나 시청과 같이 공공기관 내에 결혼식장이 있는 것보다 외부에 따로 건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예회관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례 2】

○ 작은 결혼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축의금 문화가 변화되어야 함

- 현재 제주지역 결혼은 부모님의 인적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하객의 수가 결정됨. 부모님

이 축의금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작은 결혼식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제주도에서 연간 3천 쌍이 결혼하잖아요?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이용자를 10%라고 가정한다면 3백 쌍이죠. 시점을 사업 초기로 보고 1%라고 생각한다면 30쌍이죠. 2주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혼 성수기에는 하루에 1쌍밖에 결혼식을 못한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사업가 마인드라면 하루에 2~3개 쌍을 수용하겠죠.....시장은 수익으로 더 많은 장비를 사겠지만 저희는 허례허식을 없애고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으니 사회적 기업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해요. 예전에는 공간을 한정지어서 작은 결혼식이 활성화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해요. 【사례 10】

2) 정책 수요

○ 주택 공급 및 대출금리 지원

- 대출금리 인하 및 전세자금 지원 정책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외곽지역이라도 가격과 평수만 괜찮으면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저는 주택공급과 대출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저금리 우대요. 저도 몰랐지만 제 지인은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제주도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요. 버팀목 대출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고요. 이렇듯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결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부부가 이자를 갚으면서도 재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5】

행복주택을 지으려는 장소가 원래 공원 부지였잖아요? 굳이 공원 부지를 없애서 행복주택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서 단독 형태의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곳에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미분양 주택이 1000호 가까이 돼요. 그곳을 매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2】

○ 다양한 결혼 인프라와 콘텐츠 제공

- 관공서 중심의 기존 건물 활용보다는, 새롭게 생길 다목적 문화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활용방안이 제안됨. 또한 제주의 아름다움을 반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웨딩 인프라와 연계 필요
- 하우스 웨딩, 이브닝 웨딩, 평일 웨딩 등 결혼형식과 시간대 다양화

시가 갖고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죠. 저는 다른 건물을 짓는 것보다 결혼식장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 문화시설이요. 200~300억의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도로를 만드는 데에도 1000억원이 소요되잖아요? 【사례 2】

이브닝 웨딩이 저희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트렌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 대관료를 면제해준다든가 다양한 이벤트 소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치하려고 해요. 3년 안에 이브닝 웨딩이 자리 잡을 거라 예상해요. 이브닝 웨딩은 제주도에서 가장 필요한 결혼 문화예요.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이죠. 호텔에서조차 아직까지 제주도의 피로연 문화 등을 고수하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존중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소비를 부추기는 거죠. 【사례 9】

○ 웨딩박람회 정례화 및 활성화

- 제주지역 웨딩박람회는 소규모 박람회에서부터 언론사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대규모 박람회까지 다양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박람회 외에는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개최 일정이 계획되므로 소비자인 예비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됨
- 도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을 통해 가격의 담합이나 바카지를 없애고 예비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또한 제안됨

제주도가 주관하는 웨딩박람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람회에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 참가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참가비를 받지 않으면 업체들이 미어터질 거예요. 선착순으로 추첨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정보를 한 곳에서 얻고 과소비도 방지하고, 가격의 평준화를 통해 예비부부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획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수익에서 4~5% 정도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 이를테면 이민가정 등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하는 방식도 좋구요. 【사례 9】

3. 요약 및 시사점

가. 결혼비용 및 결혼문화

-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호텔에서의 연회식 결혼이 가장 빈번한데, 그 이유는 하객의 편의와 더불어 호텔 서비스 및 뷔페에 대한 선호도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하여 직업이나 경제적 계층에 따라 어느 정도 호텔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호텔에서의 결혼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아, 웨딩 장소에 대한 제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친구 피로연, 총각파티, 신랑상·신부상, 폐백 등은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최대한 간소화 하거나 없어지는 상황임. 이는 의미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행이라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혼인 당사자 세대의 실리적인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데서는 돈을 아끼더라도 신혼여행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예단비가 육지부와 달리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먼저 가고, 신부측은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다시 신랑측에 보내는데 이에 대해서 신랑신부 보다는 부모님 세대가 더 고수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강박관념이나 체면치레로 해석됨. 또한 혼수와 주택마련 비용에서도 성에 따른 고정된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혼인 당사자인 신랑신부 세대에서는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는 부담을 하려고 하는 변화도 엿보임
- 제주지역의 경우 결혼 전후에 신랑신부 및 혼주들이 가까운 분들에게 따로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 따로따로 대접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잔치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이러한 이유로 가문잔치, 육지결혼 피로연, 당일잔치 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결혼식 전날 하는 가문잔치는 대체로 결혼당사자보다는 부모님들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축의금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결혼식 당일에 하루 종일 열리는 당일잔치는 결혼당사자들과 부모님 세대 모두

변화가 필요한 문화로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본인이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 세대가 바뀌기 전에는 당일잔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는 힘들고 차츰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주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며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축의금 문화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식은 지금까지 지출한 축의금을 회수하는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님의 그동안 지출한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결혼식 하객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이러한 축의금 문화가 제주사회에서 당일잔치의 시간을 단축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겹부조 문화는 혼례보다는 장례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긴 하나,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는 겹부조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권이 육지부에 비해 독립적인 제주사회의 특성상, 남편이나 아버지가 우리집을 대표로 상대측 집에 축의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 부조가 발달한 것이 겹부조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가부장적 문화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겹부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문화적 자정작용으로 차츰 없어질 것으로 예상함

나.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갈등 및 합리적인 결혼문화

○ 결혼비용 부담에서 성고정화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랑측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신랑의 스트레스가 신부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러나 결혼당사자 세대 스스로 기존의 성고정화된 역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이러한 시도들은 부모님 세대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연 이 결혼이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짐. 즉 타인에

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며 하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모님 세대와 자신들의 결혼이므로 자신들의 가치관대로 진행하고 싶어하는 결혼당사자 세대의 갈등으로 풀이됨. 결혼에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적을수록 부모님들의 의견은 적게 반영되므로,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인당사자 세대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제주지역은 관공서를 활용한 공공예식장이 드문데 인식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관공서 중심의 장소 발굴보다는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식 장소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만한 협력업체의 발굴·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 론 : 합리적 결혼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정책 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 결과 요약

□ 결혼비용

- 제주지역 결혼비용을 각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신혼주택 14,189만원, 결혼식(피로연 포함) 1,949만원, 혼수(살림살이) 1,379만원, 예단 1,018만원, 신혼여행 568.7만원, 예물 597만원으로 나타남. 이를 합하면 총 비용은 19,701만원으로 나타남
 - 듀오 휴먼라이프 연구소의 2018년 결혼비용과 비교해 보면, 전국에 비해 제주지역 총 비용은 3천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택마련에서 2천6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피로연을 포함한 당일 결혼식 비용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혼비용에 대해 세대별 부담을 조사한 결과는 총 금액 평균 12,206만원 중 부모 8,023만원, 자녀 4,403만원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2배 가량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됨
 - 김소영 외(2014)의 연구에서 부모가 전체 비용 중 60% 이상을 지원하는 비율이 43.4%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서도 부모의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에서는 호텔에서의 결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46.7%),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다소 낮은 것(46.2%)으로 나타남. 당일잔치인 결혼 피로연은 결혼 예식별 필요도에서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이행률도 98.8%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피로연은 결혼예식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식사는 3~4만원 정도의 뷔페식이 주를 이룸
 - 김두환(2013)의 조사에서 피로연 이행이 75.7%로 나타난 것에 비해 제주지역의 피로연 이행률은 매우 높은 편임. 또한 피로연 비용이 전국 평균 573.8만원인데 비해 제주는 평균 1,486.2만원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2배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임
- 결혼비용 중 신혼주택의 주부담자는 신랑측(66.5%), 혼수는 신부측(68.1%)으로 조사

되었고, 결혼관련 비용부담 인식은 신혼주택 마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항목 모두에서 신랑의 부담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성별에 따른 결혼비용 부담은 전국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결혼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사회적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임
- 결혼관련 항목 중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인 항목은 피로연(99.8%), 하객초청(98.6%), 신혼여행(98.2%), 축의금 받기(부모 93.5%, 자녀 93.3%)이며, 미이행률이 더 높은 항목은 약혼식(92.7%), 폐백(78.8%), 신랑상/신부상(78.0%)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경우 피로연의 이행은 전국보다 월등히 높으나, 육지부에서는 일반적인 폐백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비용 부담은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 예식에서는 의미가 없거나 지역문화와 맞지 않는 경우 취사선택이 일어남을 알 수 있음

□ 결혼문화

- 결혼식 평균 하객수는 474명으로 조사되어 전국 조사 결과인 264명(김두환, 2013)에 비해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축의금 규모는 부모가 받은 축의금 3,020만원, 자녀가 받은 축의금 1,297만원으로 총 4,317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전국 조사 결과인 1,766만원에 비해 2.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의 결혼은 참여 하객수가 많고 축의금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음
- 하객으로서 느끼는 결혼축의금에 대한 부담은 결혼축의금은 69.8%, 접부조는 80.5%로 나타나 제주 도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축의금은 필요하다고 인식(84.6%)하는 반면, 접부조 풍습은 더 이상 유지가 불필요하다(71.3%)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비용부담(61.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결혼문화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랑 측의 신혼집 마련 부담 의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60.8%),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90.0%)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이행은 그렇지 않아 이중적임을 알 수 있음. 또한 능력있는 부모의 도움(64.3%)을 기대하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 결혼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식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결혼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결혼문화의 호화·사치 풍조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만큼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

(48.7%)로 나타났으며,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들만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30.5%)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결혼문화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하루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67.0%), 답례품 지급(60.4%), 겁부조 풍습(79.2%) 등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속있고(94.9%), 당사자가 주도하며(84.8%), 피로연은 2~3시간 이내인(68.1%), 100인 미만 소규모 결혼식(65.3%)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책으로는 예단 및 예물 최소화(47.9%), 하객에게 하루 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의 개선(25.3%) 순으로 나타남
- 제주 특유의 관행인 '하루 종일 피로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나므로, 피로연 시간 줄이기는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슈로 보임

□ 결혼관련 정책

- 공공기관 활용 예식장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며, 작은 결혼식 관련 정책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비율(77.2%)이 전국(51.9%)보다 25.3%p나 높게 나타나 정책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작은 결혼식에서는 결혼당사자의 의견(37.8%)과 결혼의 의미(24.8%)를 담는 것이 저비용(23.6%)과 같은 경제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남.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26.1%),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대상 주택대출금리 인하(17.8%), 작은 결혼식 공간 확대(13.9%) 순으로 나타남

나. 주요 결과를 통한 시사점

- 최근 결혼비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신혼부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혼수의 비중이 줄고, 웨딩홀과 여행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³⁾.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근 하나를 사더라도 가치 있게 소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웨딩 준비에도 가치 소비 트렌드가 나

13) 결혼준비 비용 '스드메, 혼수' 줄고, '웨딩, 여행'은 늘었다(뉴스1. 2018.8.13일자)

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혼비용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 역시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웨딩홀의 경우 '동시 예식'보다 '단독 예식'이 가능한 호텔식 결혼을 선호하고 신혼여행의 경우 평소에 가보기 힘든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문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호텔 결혼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결혼식 장소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결혼식은 지금까지 지출한 축의금을 회수하는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축의금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하루 종일 피로연, 하객들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음식 쓰레기 발생 등 다양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결혼문화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 보다는, '이브닝 웨딩'이나 '숲 결혼식'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발굴과 홍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작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저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준비하는 결혼이어야 함. 결혼준비에 있어 결혼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이 많이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결혼비용 부담에 있어 부모님의 지원이 많을수록 개입도 많은 것으로 보임
 -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강조점은 혼인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독립적인 결혼문화 확산일 것이라고 여겨짐.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 세대의 체면치레나 강박관념 보다는 실속 있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봄. 이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합리적 결혼문화 캠페인 등이 필요함
- 결혼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결혼관련 정책은 주택지원 정책이었으며, 이는 주택공급, 대출자금 지원 등으로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를 확대하고 홍보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결혼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과제별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적정 추진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였음(<표 5-1> 참고)
- 추진 시기는 단기,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향후 5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추진시기 구분은 단기는 2019~2020년, 중기는 2019~2021년, 장기는 2019~2023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에 따른 단기사업은 1~2년 내 단기간에 추진해야 할 유형이고, 중·장기사업은 3~5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데 단계적 준비, 사회적 합의, 그리고 예산 부문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류됨
 - 향후 단기와 중·장기 정책 대응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와 추진 시기는 변화 가능할 수 있음

〈표 5-1〉 합리적 결혼문화 활성화 정책과제 시기별 추진일정(안)

주요 사업	추진주체	추진시기		
		단기	중기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협력업체 발굴지원 				
·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식 장소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 다양한 결혼 콘텐츠 발굴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웨딩산업체			
· 웨딩업체 발굴육성 및 결혼업체 협동조합 설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 수립 및 홍보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결혼포털 사이트 구축 및 결혼 멘토단 운영 				
· 결혼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결혼 멘토단 구성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 				
· 제주의 특성 담은 작은결혼식 네이밍 공모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 작은 결혼식 웨딩 플래너 양성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작은 결혼식 인프라 조성을 위한 웨딩업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재능 기부 문화 조성 및 물품 공유 마켓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 작은 결혼식 지원 또는 합리적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딩 박람회 정례화 및 활성화 				
· 웨딩 박람회 정례화	제주특별자치도 웨딩산업체			
· 웨딩박람회와 연계한 캠페인과 세미나 등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웨딩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결혼문화 진작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가. 단기과제

1)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협력업체 발굴·지원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호텔에서 결혼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문제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호텔 결혼식은 종일 피로연과 결부되면서 결혼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전국에 비해서도 고비용으로 나타났다음
- 제주지역 결혼문화 개선점으로 가장 높게 꼽힌 것이 하루 종일 음식을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피로연 시간을 2~3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및 합리적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식 장소 발굴

- 타지역은 관공서 중심으로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으나 제주는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식 장소 발굴이 필요함
-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작은 결혼식에서 오름웨딩, 바닷웨딩 등 다양한 예식장소 발굴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 이러한 자연을 활용한 웨딩 장소 뿐만 아니라 돌문화공원, 자연휴양림, 4·3평화공원 등과 같이 실내에서의 예식도 가능한 다양한 시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결혼 콘텐츠 발굴 및 홍보지원

- 다양한 결혼 콘텐츠 발굴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함. 이미 타 지역에서는 하우스 웨딩, 이브닝 웨딩, 평일 웨딩 등 결혼형식과 시간대가 다양하게 취사선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주지역은 주말 낮 웨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따라서 웨딩산업체들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서 시도할 수 있는 웨딩 형식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도록 하고, 제주지역 언론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결혼식 사례를 실어 홍보함으로써 결혼문화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웨딩업체 발굴육성 및 결혼업체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다양한 결혼식 장소와 콘텐츠가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웨딩업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결혼당사자들은 결혼식 당일에 자신들이 신경을 써야하는 장소라면 아무리 좋아도 선택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호텔이 선호되는 이유도 바로 서비스 때문임. 따라서 다양한 결혼식 장소에서 원활히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웨딩업체들이 발굴·육성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제주지역 결혼업체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으로 보임

2)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혼부부 주택정책 수립 및 홍보

-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2014) 결과, 신혼부부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하향하더라도 직주근접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위치보다는 주택가격과 규모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음. 제주지역의 경우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위치보다는 실제 구입여건과 규모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일 수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정책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및 홍보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2012년 58가구를 시작으로 현재 10배 가까이 지원 가구가 확대되었고 예산 또한 이에 비례하여 늘어남.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신혼부부들이 많아 홍보확산이 필요함. 또한 예산 확보 또한 지원자와 지원금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함

3) 제주 결혼포털 사이트 구축 및 결혼 멘토단 운영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결혼 당사자들은 결혼준비에 관한 정보를 주로 먼저 결혼한 지인들 그리고 SNS,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상품을 선호하는 편이었음

□ 결혼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 제주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결혼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협력업체들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임

□ 결혼 멘토단 구성 및 운영

- 제주지역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주례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결혼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비용 결혼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결혼식 형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중기과제

1)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

- 제주지역에서 작은 결혼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부모세대의 축의금 문화에 기인하고 있어, 결혼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단기적으로 이러한 축의금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한 단계씩 변화를 유도해야 함

□ 제주의 특성 담은 작은결혼식 네이밍 공모 및 홍보

- 작은 결혼식의 이미지 개선과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함. 지금처럼 결혼식을 마냥 작게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그 의미를 살리기 어려움
- 제주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네이밍을 공모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작은 결혼식 웨딩 플래너 양성 및 지원

- 일반 웨딩업체를 활용할 때 웨딩 플래너를 통한 전반적인 케어를 통해 신랑신부들이 비교적 신경 쓰지 않고 결혼식장이나 드레스 등을 진행하는 반면, 작은 결혼식은 불편하고 신경 쓸 것이 많다는 생각으로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작은 결혼식 웨딩 플래너 양성 및 지원을 통해 결혼 당사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 인프라 조성을 위한 웨딩업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작은 결혼식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 범위의 한정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마을에서 회관이나 근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동네잔치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고 마을 단위로 운영하기에도 인프라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었음

- 따라서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웨딩업체가 인프라와 물품을 구비하도록 행정에서 적극 발굴·지원해야 함
- 또한 이러한 업체들이 제주지역의 모든 신혼부부를 잠재적 이용자로 고려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결혼식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작은 결혼식 추진을 공익적 가치로 바라보고 취약 계층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계층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결혼식 전문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자연환경 및 특성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권장 장소 개발을 위하여 작은 결혼식 특구 지역 선정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도민 대상 전방위적인 홍보와 활성화가 필요함. 또한 현재 리마인드 웨딩이 붐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도 포함하여 진행된다면 협력업체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능 기부 문화 조성 및 물품 공유 마켓 조성

- 작은 결혼식의 활성화가 가능한 자체 생태계 구축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작은 결혼식에 기여할 재능 기부자들 발굴 등 재능 기부 문화 조성 및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공유 마켓 조성 등이 가능할 것임
- 이때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전문 업체들을 사회적 경제 시스템 내에서 상호 협력 가능한 체계를 만들도록 물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김소영 외, 2014)¹⁴⁾

□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 작은 결혼식 동참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작은 결혼식 사업에 참여할 동기부여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 수혜자로 연결시키는 인센티브

14) 서울시의 경우 결혼산업 종사자들이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소상공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결혼문화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영 중임

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 지원 또는 합리적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제주지역 내 작은 결혼식 관련 기관 MOU 체결을 통해 지원을 확보하고, 작은 결혼식 지원 조례 또는 합리적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2) 웨딩 박람회 정례화 및 활성화

- 기혼자의 절반 정도는 웨딩 박람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송지성, 배은혜, 2009), 예비 신랑신부들은 웨딩 준비를 위한 정보를 한군데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웨딩 박람회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 다양한 예식 문화와 정보의 장, 저렴하고 알뜰한 소비 유도라는 공통된 개최 목적 이외에도 최근에는 교육적 의미 제공 및 인구증대 효과까지 추가되어 다양한 이벤트까지 기획하여 제공되는 추세임

□ 웨딩 박람회 정례화

- 웨딩 박람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은 코엑스에서 연 4회 가량 그리고 언론사 주최로 연 2회 등 계절마다 꾸준히 개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은 언론사 주최 박람회가 비슷한 시기에 연 2회 개최되고 있어, 소비자인 예비 신랑신부들을 위한 웨딩 박람회 정례화가 필요함

□ 웨딩박람회와 연계한 캠페인과 세미나 등 개최

-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이라는 본연의 박람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지역의 사례처럼 웨딩박람회와 연계한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합리적 결혼문화를 위한 인식변화와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임

다. 장기과제

1) 합리적 결혼문화 진작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은 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예비 부부들에게 예식 지원 및 무료 예식장 대여 등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옴. 이와 더불어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 또한 추진되었으나,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이문희, 2014)
-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과 제주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결혼문화 키워드는 ‘체면’과 ‘가부장적’이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고비용 관습적인 결혼문화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김소영 외, 2014)
- 제주는 타지역에 비해 결혼에 있어 가부장적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성별 불평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마련비용을 신랑측에서 지출하고 결혼예식에 부모님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전날 가문잔치나 당일잔치인 하루종일 피로연 등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음
 -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본인이 먼저 그 변화를 이행하는 것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 달서구의 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결혼지원 사업보다는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 홍보와 교육을 통한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제주지역의 가족제도는 예로부터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살았고, 재산은 균분상속을 하는 풍습이 있었음. 분가제도와 균분상속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윤용택, 2015), 대부분의 도민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73%) 이는 이러한 풍습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성평등하고 합리적인 제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때, 제주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맥락에서 결혼비용을 신랑신부인 자녀세대가 독

립적으로 부담하고 이와 더불어 체면보다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인식 확산을 통해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플랫폼을 마련하여, 공감대 확산 및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 합리적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페스티벌 기획이 필요함
- 결혼의 의미와 가치, 작은 결혼식, 결혼관련 정책 등을 홍보하고, 합리적인 결혼 사례에 대한 사상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체험 위주의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정식·강소진·현혜경. 2010. 「한국인의 일생의례 : 제주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연구실.
- 김남정. 2014.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국토교통부.
- 김두환. 2013. 「결혼비용 실태 및 소비자인식 조사」. 한국소비자원.
- 김미숙·김금화. 2010. “韓·日 미혼남녀의 결혼식과 웨딩산업에 관한 선호도 비교연구”. 「한복문화」 제13권 3호. 한복문화학회.
- 김소영·홍승아·이아름. 2014.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순. 1997. “제주지역의 혼례음식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권 2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김진영. 1995. “가정의례 의식과 개선 운동-제주사회의 가정의례 행위를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11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김진영·공순구. 2015. “결혼 문화 의식 변화에 따른 웨딩 시설의 공간 및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문혜경·이창가·한삼안·강만생·양종렬·김창후·김동전·장혜련·김은화·허영산·이성훈·이지치·노리코·진관훈·후지나가·다케사·현혜경·양영자·조성운·문순탁·권귀숙·현진숙·조미영·강경화·강세현. 2011. 「제주여성사 II」. 제주발전연구원.
- 박미선. 2017.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혜경·민소담. 2016. 「강원도 비혼 2030 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조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송지성·배은혜. 2009. “웨딩박람회 의 공동브랜드 필요성에 관한 연구-국내 공동브랜드 박람회 사례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오영주. 2006. “제주 전통혼례와 음식문화에 관한 민속지적 묘사”. 「제주도연구」 제29권. 제주학회.
- 유계숙. 2014.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용택. 2015.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생활문화 의식”. 「제주도연구」 제43권. 제주학회.
- 이명선. 2015.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 「KWDI Brief」 (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문희. 2014. 「작지만 아름다운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재. 2008. “21세기 초 한국의 혼인제도와 혼례관행”. 「실천민속학연구」 제12호. 실천민속학회.
- 이현주·박서정·지영숙. 2003. “혼례비용 및 혼례 준비과정 표준화”. 「생활과학」 (6).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정경호·이은용·이수범. 2007. “호텔 예식연회 매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특1급 호텔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한림화. 2015. “제주여성의 용기, 지혜, 힘-제주여성의 삶 재조명을 위한 서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포럼」 자료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현승환. 2007. 「제주인의 일생」.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보도자료

- 2001년 1월 8일 “결혼식 유발 교통혼잡비용 추계 결과”, 교통문화운동본부.
- 2016년 11월 15일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

관련 뉴스

- 2018년 6월 28일 “올해 173만가구 주거지원 혜택..청년·신혼부부 지원책 강화”, <뉴스1>.
<https://news.v.daum.net/v/20180628180009372?rcmd=r&f=m>

【부록 1】 설문지 : 신랑신부용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 설문조사 -신랑/신부용-

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결혼을 한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인 결혼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귀하는 최근 3년 이내에 결혼식을 했습니까?

- ①예(2015년 이후 결혼)(☞문1번으로) ②아니오(2014년 이전 결혼)(☞조사중단)

A. 결혼식 관련 질문

문1. 귀하가 결혼식을 올리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예식장, 웨딩홀 ②호텔 ③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④공공시설(회관,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 ⑤기타()

문2. 귀하가 문1번의 결혼식 장소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비용의 경제성 ②고급스러운 분위기 ③경건한 분위기
④교통, 주차의 편리성 ⑤부대시설 이용 편리성 '⑥피로연 음식의 맛과 질
⑦주위 사람들의 추천이나 평판 ⑧기타()

문3. 귀하는 하객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셨습니까?

- ①예(☞3-1번으로) ②아니오(☞4번으로)

문3-1. 문3번에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아래의 항목에 응답해주시요.

문3-1-1. 결혼식을 올린 장소와 피로연 장소가 동일한 건물이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피로연 장소 별도 예약)

문3-1-2. 음식 메뉴 : ①뷔페식 ②한식(갈비탕 등) ③양식 ④기타()

문3-1-3. 1인분 가격 : (원)

B. 결혼 비용 관련 질문

문4. 결혼비용의 각 항목별로 주로 누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까?

항 목	신랑측	신부측	공 동
1. 주택마련 비용	①	②	③
2.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비용	①	②	③
3. 결혼식 총비용(대관료, 피로연 비용, 답례품 등)	①	②	③
4. 신혼여행 비용	①	②	③
5. 예단 비용	①	②	③
6. 예물 비용	①	②	③

문5. 결혼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항목별로 실제 이행 여부 및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이 부담한 비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배우자측에서 지출한 비용은 제외)

항 목	세부항목	이행여부	비용(원)	
			부모님	본인
결혼 전	1 약혼식 총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2 청첩장 제작 총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3 신랑 신부 가족 예단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4 신랑 신부 예물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결혼예식	5 결혼식장 대관료	①이행 ②미이행		
	6 꽃 케익 축포 등 부가적 물품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7 주례 축하 사회 등 사례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8 피로연 총 식대	①이행 ②미이행		
	9 답례품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10 신랑상 신부상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11 폐백 관련 비용(폐백상 차림비 도우미 인건비 등)	①이행 ②미이행		
	12 사진 비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①이행 ②미이행		
신혼여행	13 여행경비 및 선물비	①이행 ②미이행		
혼 수	14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마련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주택마련	15 신혼주택 마련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축의금 규모	16 부모님이 받은 결혼식 축의금 총액	①이행 ②미이행		
	17 본인이 받은 결혼식 축의금 총액	①이행 ②미이행		
하객규모	18 결혼식 참가 하객수(배우자측 하객 제외)	①이행 ②미이행		

문6. 결혼식을 위하여 **귀하와 부모님이 실제로 지출한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배우자측에서 지출한 금액 제외)

부모님 지출 총액	본인 지출 총액
원	원

문7. 결혼비용 각 항목별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항 목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부담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1. 주택마련 비용	①	②	③	④	⑤
2.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비용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식 총비용	①	②	③	④	⑤
4. 신혼여행 비용	①	②	③	④	⑤
5. 예단 비용	①	②	③	④	⑤
6. 예물 비용	①	②	③	④	⑤

C. 결혼문화에 대한 하객으로서의 인식

문8. 귀하가 하객으로서 최근 일 년 동안 지출하신 결혼 축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응 답
8-1. 평균 1회 결혼 축의금 비용	원
8-2. 최근 일 년 동안 지출한 결혼 축의금 총횟수	년 회
8-3. 최근 일 년 동안 지출한 겹부조 횟수	년 회

문9. 귀하가 하객으로서 평소 느끼는 결혼 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부담 없음	별로 부담 없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1. 결혼 축의금	①	②	③	④
2. 제주의 겹부조 풍습	①	②	③	④

문10. 귀하는 **제주의 겹부조 풍습**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10-1번으로) ② 아니다(☞10-2번으로)

문10-1. 제주의 겹부조 풍습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①제주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 ②집안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하는 제주의 수놓음 풍습이기 때문에
- ③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④기타()

문10-2. 제주의 겹부조 풍습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①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풍습이기 때문에
- ②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 ③축의금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기타()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에 호화·사치풍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건전한 결혼사례나 모델 부족
- ②물질만능적인 사회 풍조
- ③사회지도층의 과시적 혼례 영향
- ④웨딩업체나 언론의 호화·사치 조장
- ⑤소득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 ⑥남만큼은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
- ⑦호화·사치풍조 없음

문12. 귀하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
- ②틀에 박힌 결혼식
- ③양가 부모님의 지나친 관여
- ④남만큼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
- ⑤갖출 건 다 갖춰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 ⑥값비싼 보석을 받을 기회가 적어 결혼식 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 ⑦주고받는 축의금
- ⑧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관행
- ⑨기타()

문13. 귀하는 아래의 각 항목들이 결혼예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함	필요없음	모르겠음
1. 청첩장	①	②	③
2. 예단(또는 예단비)	①	②	③
3. 예물(또는 예물비)	①	②	③
4. 스튜디오, 야외 등 리허설 촬영	①	②	③
5. 드레스(턱시도) 구입 및 대여	①	②	③
6.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	①	②	③
7. 한복 구입 및 대여	①	②	③
8. 결혼식 이벤트(케익, 노래, 공연 등)	①	②	③
9. 피로연(하객접대)	①	②	③
10. 결혼 축의금	①	②	③
11. 해외 신혼여행(국내 신혼여행 제외)	①	②	③

문14. 다음은 결혼문화와 관련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혼집은 신랑측에서 마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예단비는 남들만큼 보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의 총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4.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5.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문15. 귀하는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문제가 없다	별로 문제가 없다	다소 문제가 있다	매우 문제가 있다
1. 하루종일 음식 접대하는 피로연 여는 것	①	②	③	④
2. 하객에게 답례품 지급	①	②	③	④
3. 겁부조 풍습	①	②	③	④
4. 호텔에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	①	②	③	④
5. 친구 피로연 등에서의 잘못된 성문화	①	②	③	④

D. 결혼문화 개선

문16. 귀하는 **이상적인 결혼비용(신혼집 마련 비용 제외한 총 결혼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5백만원 미만 | ②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 ③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④ 2천만원~3천만원 미만 |
| ⑤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⑥ 5천만원~1억원 미만 |
| ⑦ 1억원~1억 5천만원 미만 | ⑧ 1억 5천만원 이상 |

문17. 귀하가 **선호하는 결혼식**은 어느 쪽입니까?

항 목	응 답	
17-1. 형식	① 실속 있는 결혼식	② 성대한 결혼식
17-2. 규모	① 소규모(참석인원 100인 이하)	② 대규모(참석인원 100인 이상)
17-3. 진행방식	① 결혼 당사자 주도	② 양가 부모 주도
17-4. 피로연 시간	① 하루 종일	② 2~3시간 이내

문18. 귀하는 **결혼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예단 및 예물 최소화
- ② 공공시설 등 실비(또는 무료) 예식장 활용
- ③ 가까운 친척 및 친구 중심으로 하객 줄이기
- ④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가 결혼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문화
- ⑤ 하객에게 하루종일 음식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 개선
- ⑥ 겹부조 풍습 개선
- ⑦ 기타()

문19.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또는 실비) 개방 예식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분위기가 초라한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용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용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또는 무료로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검소하게 치르는 결혼식을 의미**

문21. 귀하는 **작은 결혼식 요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저비용 결혼식 ②예물, 예단 간소화
③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결혼식 ④결혼의 의미를 살리는 결혼식
⑤축의금, 화환 없는 결혼식 '⑥기타()

문22. 귀하는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간 확대
②작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③작은 결혼식을 위한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양성
④작은 결혼식에 동참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 대출금리 인하
⑤모범 결혼모델 개발 및 홍보, 캠페인 활성화
⑥예비부부 대상 의식개선 교육(예: 작은 결혼식, 검소한 혼례문화 등)
⑦예비부부의 부모님 대상 의식개선 교육(예: 작은 결혼식, 검소한 혼례문화 등)
⑧기타()

DQ.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D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DQ3. 현재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제주시 동지역 ②제주시 읍면지역 ③서귀포시 동지역 ④서귀포시 읍면지역

DQ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

DQ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종교없음 ②천주교 ③기독교 ④불교 ⑤기타()

DQ6. 지난 3개월 동안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동거가족 모두의 소득 및 연금, 예금이자 등 포함) 총 _____ 원

DQ6-1. 현재 **귀댁의 자산**은 얼마 정도입니까?(주택시가,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모두)

-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1억원 미만 ③ 1억원~3억원 미만
④ 3억원~5억원 미만 ⑤ 5억원~7억원 미만 ⑥ 7억원 이상 ⑦ 자산 없음

DQ6-2. **결혼 당시, 귀하 부모님의 자산**은 얼마 정도입니까?(주택시가,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 모두)

-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1억원 미만 ③ 1억원~3억원 미만
④ 3억원~5억원 미만 ⑤ 5억원~7억원 미만 ⑥ 7억원 이상
⑦ 자산 없음 ⑧ 해당없음(사망 등)

DQ7. 현재 **귀하의 직업**과 **결혼 당시, 귀하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 결혼 당시 아버지 직업(), 결혼 당시 어머니 직업()

- ① 관리자(회사 임원 등)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사, 감독 및 연출가, 사회복지사, 부동산 중개인 등)
③ 사무종사자(인사·총무·기획·영업·홍보·안내·접수·전산 업무 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미용사/간병인/피부관리사/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주방장 및 조리사/승무원 등)
⑤ 판매종사자(도매 및 소매 판매 종사자/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등)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숙련기능직 종사자(재단사, 정비사, 설치 및 수리기사, 미장공, 세공사 등)
⑧ 반숙련 기능직 종사자(각종 공장의 기계 조작용, 차량 운전사 등)
⑨ 단순직 종사자(청소원, 택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⑩ 군인/공무원
⑪ 전업주부
⑫ 무직
⑬ 학생
⑭ 기타()
⑮ 해당없음(사망 등)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지 : 혼주용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 설문조사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결혼을 한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결혼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인 결혼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최근 3년 이내에 결혼식을 한 자녀가 있습니까?

- ①예(2015년 이후 결혼)(☞문1번으로) ②아니오(2014년 이전 결혼)(☞조사중단)

※ **지금부터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 결혼식을 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문항은 가장 최근에 결혼식을 한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A. 결혼식 관련 질문

문1. **2015년 이후 가장 최근에 귀하의 자녀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예식장, 웨딩홀 ②호텔 ③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④공공시설(회관,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 ⑤기타()

문2. **문1번의 결혼식 장소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비용의 경제성 ②고급스러운 분위기 ③경건한 분위기
④교통, 주차의 편리성 ⑤부대시설 이용 편리성 ⑥피로연 음식의 맛과 질
⑦주위 사람들의 추천이나 평판 ⑧기타()

문3. **귀하는 하객들에게 식사대접을 하셨습니까?**

- ①예(☞3-1번으로) ②아니오(☞4번으로)

문3-1. **문3번에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아래의 항목에 응답해주시시오.**

문3-1-1. **결혼식을 올린 장소와 피로연 장소가 동일한 건물이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피로연 장소 별도 예약)

문3-1-2. **음식 메뉴 :** ①뷔페식 ②한식(갈비탕 등) ③양식 ④기타()

문3-1-3. **1인분 가격 :** (원)

B. 결혼 비용 관련 질문

문4. 결혼비용의 각 항목별로 주로 누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까?

항 목	신랑측	신부측	공 동
1. 주택마련 비용	①	②	③
2.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비용	①	②	③
3. 결혼식 총비용(대관료, 피로연 비용, 답례품 등)	①	②	③
4. 신혼여행 비용	①	②	③
5. 예단 비용	①	②	③
6. 예물 비용	①	②	③

문5. 결혼식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항목별로 실제 이행 여부 및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부담한 비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사돈측에서 지출한 비용은 제외)

항 목	세부항목	이행여부	비용(원)	
			본인	자녀
결혼 전	1 약혼식 총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2 청첩장 제작 총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3 신랑 신부 가족 예단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4 신랑 신부 예물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결혼예식	5 결혼식장 대관료	①이행 ②미이행		
	6 꽃 케익 축포 등 부가적 물품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7 주례 축가 사회 등 사례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8 피로연 총 식대	①이행 ②미이행		
	9 답례품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10 신랑상 신부상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11 폐백 관련 비용(폐백상 차림비 도우미 인건비 등)	①이행 ②미이행		
	12 사진 비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①이행 ②미이행		
신혼여행	13 여행경비 및 선물비	①이행 ②미이행		
혼 수	14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마련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주택마련	15 신혼주택 마련 비용	①이행 ②미이행		
축의금 규모	16 본인이 받은 결혼식 축의금 총액	①이행 ②미이행		
	17 자녀가 받은 결혼식 축의금 총액	①이행 ②미이행		
하객규모	18 결혼식 참가 하객수(사돈측 하객 제외)	①이행 ②미이행		

문6. 결혼식을 위하여 귀하와 자녀가 실제로 지출한 총금액은 얼마입니까?(사돈측에서 지출한 금액 제외)

부모 지출 총액	자녀 지출 총액
원	원

문7. 결혼비용 각 항목별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항 목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부담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1. 주택마련 비용	①	②	③	④	⑤
2. 가구, 가전 등 살림살이 비용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식 총비용	①	②	③	④	⑤
4. 신혼여행 비용	①	②	③	④	⑤
5. 예단 비용	①	②	③	④	⑤
6. 예물 비용	①	②	③	④	⑤

C.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문8. 귀하가 하객으로서 최근 일 년 동안 지출하신 결혼 축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응 답
8-1. 평균 1회 결혼 축의금 비용	원
8-2. 최근 일 년 동안 지출한 결혼 축의금 총횟수	년 회
8-3. 최근 일 년 동안 지출한 겹부조 횟수	년 회

문9. 귀하가 하객으로서 평소 느끼는 결혼 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부담 없음	별로 부담 없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1. 결혼 축의금	①	②	③	④
2. 제주의 겹부조 풍습	①	②	③	④

문10. 귀하는 제주의 겹부조 풍습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10-1번으로) ② 아니다(☞10-2번으로)

문10-1. 제주의 겹부조 풍습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①제주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 ②집안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하는 제주의 수놓음 풍습이기 때문에
- ③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④기타()

문10-2. 제주의 겹부조 풍습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①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풍습이기 때문에
- ②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 ③축의금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기타()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에 호화·사치풍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건전한 결혼사례나 모델 부족
- ②물질만능적인 사회 풍조
- ③사회지도층의 과시적 혼례 영향
- ④웨딩업체나 언론의 호화·사치 조장
- ⑤소득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 ⑥남만큼은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
- ⑦호화·사치풍조 없음

문12. 귀하는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
- ②틀에 박힌 결혼식
- ③양가 부모님의 지나친 관여
- ④남만큼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
- ⑤갖출 건 다 갖춰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 ⑥값비싼 보석을 받을 기회가 적어 결혼식 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 ⑦주고받는 축의금
- ⑧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관행
- ⑨기타()

문13. 귀하는 아래의 각 항목들이 결혼예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필요함	필요없음	모르겠음
1. 청첩장	①	②	③
2. 예단(또는 예단비)	①	②	③
3. 예물(또는 예물비)	①	②	③
4. 스튜디오, 야외 등 리허설 촬영	①	②	③
5. 드레스(턱시도) 구입 및 대여	①	②	③
6.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	①	②	③
7. 한복 구입 및 대여	①	②	③
8. 결혼식 이벤트(케익, 노래, 공연 등)	①	②	③
9. 피로연(하객접대)	①	②	③
10. 결혼 축의금	①	②	③
11. 해외 신혼여행(국내 신혼여행 제외)	①	②	③

문14. 다음은 결혼문화와 관련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혼집은 신랑측에서 마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예단비는 남들만큼 보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의 총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4.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5.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문15. 귀하는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문제가 없다	별로 문제가 없다	다소 문제가 있다	매우 문제가 있다
1. 하루종일 음식 접대하는 피로연 여는 것	①	②	③	④
2. 하객에게 답례품 지급	①	②	③	④
3. 겁부조 풍습	①	②	③	④
4. 호텔에서서의 결혼식이나 피로연	①	②	③	④
5. 친구 피로연 등에서의 잘못된 성문화	①	②	③	④

D. 결혼문화 개선

문16. 귀하는 이상적인 결혼비용(신혼집 마련 비용 제외한 총 결혼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백만원 미만
- ②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③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④ 2천만원~3천만원 미만
- ⑤ 3천만원~5천만원 미만
- ⑥ 5천만원~1억원 미만
- ⑦ 1억원~1억 5천만원 미만
- ⑧ 1억 5천만원 이상

문17. 귀하가 선호하는 결혼식은 어느 쪽입니까?

항 목	응 답	
17-1. 형식	①실속 있는 결혼식	②성대한 결혼식
17-2. 규모	①소규모(참석인원 100인 이하)	②대규모(참석인원 100인 이상)
17-3. 진행방식	①결혼 당사자 주도	②양가 부모 주도
17-4. 피로연 시간	①하루 종일	②2~3시간 이내

문18. 귀하는 결혼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예단 및 예물 최소화
- ②공공시설 등 실비(또는 무료) 예식장 활용
- ③가까운 친척 및 친구 중심으로 하객 줄이기
- ④결혼 당사자(신랑, 신부)가 결혼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문화
- ⑤하객에게 하루종일 음식 접대하는 피로연 문화 개선
- ⑥겁부조 풍습 개선
- ⑦기타()

문19.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또는 실비) 개방 예식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분위기가 초라한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곳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용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용하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또는 무료로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검소하게 치르는 결혼식을 의미

문21. 귀하는 작은 결혼식 요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저비용 결혼식 ②예물, 예단 간소화
 ③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결혼식 ④결혼의 의미를 살리는 결혼식
 ⑤축의금, 화환 없는 결혼식 '⑥기타()

문22. 귀하는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간 확대
 ②작은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③작은 결혼식을 위한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양성
 ④작은 결혼식에 동참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 대출금리 인하
 ⑤모범 결혼모델 개발 및 홍보, 캠페인 활성화
 ⑥예비부부 대상 의식개선 교육(예: 작은 결혼식, 검소한 혼례문화 등)
 ⑦예비부부의 부모님 대상 의식개선 교육(예: 작은 결혼식, 검소한 혼례문화 등)
 ⑧기타()

DQ.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D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DQ3. 최근에 결혼한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DQ4. **최근에 결혼한 자녀의 결혼 당시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DQ5. 현재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제주시 동지역 ②제주시 읍면지역 ③서귀포시 동지역 ④서귀포시 읍면지역

D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

DQ7.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종교없음 ②천주교 ③기독교 ④불교 ⑤기타()

DQ8.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동거가족 모두의 소득 및 연금, 예금이자 등 포함) 총 _____ 원

DQ9. 현재 **귀댁의 자산**은 얼마 정도입니까?(주택시가,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모두)

- ①5천만원 미만 ②5천만원~1억원 미만 ③1억원~3억원 미만
④3억원~5억원 미만 ⑤5억원~7억원 미만 ⑥7억원 이상 ⑦자산 없음

DQ10.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관리자(회사 임원 등)
②전문가 및 준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사, 감독 및 연출가, 사회복지사, 부동산 중개인 등)
③사무종사자(인사·총무·기획·영업·홍보·안내·접수·전산 업무 종사자)
④서비스종사자(미용사/간병인/피부관리사/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주방장 및 조리사/승무원 등)
⑤판매종사자(도매 및 소매 판매 종사자/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등)
⑥농림어업 종사자
⑦숙련기능직 종사자(재단사, 정비사, 설치 및 수리기사, 미장공, 세공사 등)
⑧반숙련 기능직 종사자(각종 공장의 기계 조작원, 차량 운전사 등)
⑨단순직 종사자(청소원, 택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
⑩군인/공무원
⑪전업주부
⑫무직
⑬학생
⑭기타()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서 2018-07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발행인 이은희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사 열린출판기획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ISBN 979-11-87026-31-0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